



1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1호

(루게 387)



◆◆◆◆◆◆◆◆◆◆

차 례

◆◆◆◆◆◆◆◆◆◆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한마음.....	5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노래.....	7
새해 첫아침에.....	9
하나의 꽃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10
력사물대작구성의 빛나는 모범.....	11
주체형의 당일군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15
당일군의 빛나는 형상을!.....	21
조국과 혁명에 충직한 농민영웅의 형상을 창조하겠습니다.....	21
주체시대의 작가대렬에 서있는 영예를 안고.....	22
당문예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영예를 지니고.....	22
끝없이 걷고싶은 길.....	23
10 월의 대회장으로!.....	25
다듬은 말.....	26
빛나는 천리길.....	27
4 월에 사는 마음.....	28
언 제 나.....	29
막장의 《제비》.....	29
기쁜날에는.....	30
고향의 다락밭 (외 2 편).....	31
둥근달이 떴네.....	32
다락밭의 선녀들.....	32
소설가들의 새해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33

래일에 사는 청년.....	34
어린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작품을!.....	43
동심이 흘러넘치도록.....	43
당의 뜻을 받들어 가는 자동화의 기수.....	44
그들이 가는길.....	47
옛 속담에 대한 생각.....	59
숲을 가꾸는 마음.....	60
전변의 나날에.....	63
당을 노래한 충성의 시.....	66
통일된 조선 만세!.....	68
밝게 웃어라.....	70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한마음

리 맥

줄기줄기

백두산이 뻗어내려

천리 산발들이 솟고

줄기줄기

끝짜기마다 수정샘 솟아

강물도 천리를 흘러흐르는

어머니품 나의 조국

절벽우에

싱싱한 가지를 펼쳐든 푸른 소나무도

은혜로운 넋을 새기며

장엄히 밝아온

이 아침을 노래하는가

수령님 따라

당을 따라 걸어온 길우에

파사로이 복눈은 내리고

비약의 나래를 펼치고

또다시 넘어설 혁명의 언덕우에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는 1980 년

아 이 땅우에

민족의 역사가 흘러 반만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년대에

이 땅, 이 하늘을 궁지높이 바라보며

이렇듯 힘찬 걸음으로

새해의 첫 자욱을 내디딘적 있었던가

황금의 이삭으로 온몸을 휘감고

강철로 비약의 나래를 펼친

강대하고 부강한 나의 조국이여

또다시 치달아오를

80 년대의 령마루는 얼마나 빛날것이나

아 수령님 우러러

감사에 목메이는 마음

삼가 옷깃 여미나니

영광의 이 아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

수령님께서 기나긴 한평생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그렇듯 간고한 혁명의 언덕을 넘으신것

아니었던가

10 대의 젊으신 나이에

깃뺨힌 조국의 운명

끊어졌던 민족의 역사를

자욱자욱 해방의 천리길에 이으시며

곡절 많고 수난 많은

혁명의 길우에 오르신 그날로부터 반세기

눈보라를 헤치시며

비발치는 탄우속을 누비시며

넘으신 설령은 몇만봉우리

건느신 강하는 또 몇만줄기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고

혁명의 난국을 진두에서 뚫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세대여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인류력사우에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셨어라

언제나

력사의 주인 세계의 주인인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주체의 철리로

인민의 앞길을 헤치시며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풍찬로숙하시는 수령님

생각하면 지난해에도

눈내리는 새벽길을 떠나시여

백두고원의 밀바다

청천강반의 강녕이바다

봉산나무리의 벼바다

이 땅의 풍년농사를 다 지으시고서야

락엽이 지는 가을날에

그리도 기쁘시여

평양으로 돌아오신 수령님

그 령도의 길우에서

공업의 대비약도 수령님께서 마련하시였고

그 사랑의 길우에서

이름없이 피어난 숨은 영웅도

수령님께서 먼저 찾아주시었어라

꽃나이청춘을

당을 위해 혁명을 위해

발이랑우에 바치여

소문없이 지성을 꽃피운

한 연구사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며

그처럼 기뻐하시던 말씀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이 위력합니다

아 자신께서 받으시고

한몸에 안으셔야 할

감사도 영광도 꽃다발도

모두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랑이여

오늘도 두고두고 외우시는

56년 그해 12월의 이야기

강선의 구내길에

눈은 평평 쏟아지는데

가시던 차를 다시 멈추시고

어깨우에 눈을 맞으시며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일해봅시다

그 진정 그 사랑

그 믿음이 아니시였던가

산골의 한 기계공장에서

주체의 새 주물법을 발견한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손수 록음기로 들려주시며

회의장에 모인 일군들에게

맨뒤에서도 다 들리는가 물어보시며

수령님께서 대견히 미소지으실 때

가슴속에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로

우리 어찌 그 사랑을 다 받아안을수 있었던가

한평생

자신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도

혁명동지들의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사들을 귀중히 아껴주시는 그 사랑

아 그 사랑 받아안았기에

인민은 영원한 삶을 지녔나니

우리 당은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하고

우리 조국은 수령님을 받들어 위력하여라

수령님 걸어오신 반세기의 력사우에

장군과 전사는 언제나 한마음이였고

수령과 인민은 언제나 한결심이였기에

수령님 두리에 굳게 뭉친

이 불패의 통일단결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어라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오직 수령님을 따르는

이 한길우에 있고

인민의 행복도 영광도

오직 이 한길우에 꽃피나니

찬란히 밝아온 1980년대여

위대한 수령님 모신 나의 조국

위대한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해돋이의 나라

너의 상상봉우에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높이 휘날리리라

우리는 달려가리라

다시한번 자력갱생의 마치고 낮을 들고

쇠물을 끓여도 우리 식으로

씨앗을 뿌려도 우리 식으로

기술혁명의 기치 높이

우리 당 6차대회의 승리의 언덕을 넘어

더 높은 상상봉으로 날아오르리

통일의 문도 그 길에서 열리고

인간해방의 마지막 언덕도 그 길우에서 넘으리

주체, 이 불패의 힘으로

세계는 전진하고

인류는 자주성새를 더 높이 쌓으리니

영광의 이 아침

인민이 드리는 간절한 축원

이 강산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누리에 주체의 화원이 만발할 그날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라 !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노래

윤두만

만경봉 푸른 소나무에
백두의 설레는 밀림에
뜻깊은 년륜을 새기며
락원의 강산에 찬란히 밝아온
80 년대의 첫아침

한없는 감격에 넘쳐
끝없는 행복에 넘쳐
인민은 한마음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다함없는 축원의 노래를
삼가 드립니다

해와 달 빛나는
70 년대의 령마루를 넘어
더 높은 비약의 나래 펼치고
80 년대의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
생각도 깊어지고
아뢰고싶은 사연도 많은
이 아침입니다

돌이켜보면
곡절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많았던
그 캄캄한 민족수난의 날에
우리 조선
우리 인민은
어디 있었습니까

생사존망의 갈림길우에서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망국의 설움이 두텁게 얼어붙은
길없는 백두의 만년장설우에
조국의 운명이 무겁게 실린
주체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습니다

결음마다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그 길
원췌의 총을 빼앗아
인민의 어깨우에 메워주시며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셔야 하셨던

우리 수령님

아 가도가도 끝없는 눈보라 만리
항일의 20 성상 그 길을 걸으셨기에
인민은 해방의 봄을 맞았고
조국땅의 눈비를 맞으시며
다시 30 여성상
그 길을 걸어오셨기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념원이 꽃핀
세기의 상상봉우에
이리도 금지높이 서있는것 아닙니까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혁명도 건설도
주체의 뜻으로 꽃피우시며
기나긴 반세기
수령님 넘어오신 그 많은 로야령들이
수령님 헤쳐오신 그 많은 강선의 눈발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어려오는데

아버이수령님이시여
지난해에도 온 한해
대한의 눈바람 안고 떠나시여
단풍이 타는 랑림의 산밭을 넘으시며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걷고 또 걸으신
그 높이신 뜻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겠습니까

비 개인 고원의 한여름
사래긴 밀밭을 돌아보시고
삼지연기슭을 지나시던 그날을
인민은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천리수해우에 어둠은 내리고
넘으셔야 할 백암령은 높고높은데
쉬고 떠나시길 간절히 아뢰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뜨거이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

—나는 백두산에서
15 년간 싸웠기에
여기 기후는 몸에 적응되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걷는것이 나에게는 휴식입니다

아 세월은 흘러 이제는
30여년이 지나갔건만
백두산에 서계시던 그날의 그 마음으로
위대한 령도의 길
끝없는 사랑의 길 이어가실 때
수령님 로고의 그 자욱자욱을 새겨안고
천고의 밀림도 파도쳐 설레였고
하늘의 별들도 목메여
장군봉우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마음을 안으시고
다시 솟는 해를 개천의 들길에서 맞으신 수령님
여기 오니 56년 겨울이 생각난다 하시며
몸소 한이삭 강냉이를 따드시고
우리 당이 발기한 강냉이농사가
이처럼 대풍을 가져왔다고 기뻐하실 때
수령님 어깨우에 쌓이던 그해의 함박눈이
다시금 인민의 가슴속에 소리없이 내리고

그 마음을 안으시고
산촌의 한 기계공장을 찾으신 그날엔
당의 품에서 자라난 숨은 영웅들을 또
찾으셨다고
그리도 기쁘시여 못내 기쁘시여
쏟아져나오는 주물소재들을 지켜보시며
손수 시간까지 측정해주실 때

아 그 초침소리 초침소리
심장의 맥박이 되어
사랑의 노래가 되어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굽이쳐 흘렀습니다
자랑도 많고
위훈도 많은
조국의 나날을 빛내이시며
수령님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주체의 그 길우에
철의 강국이 솟아올랐고
세상에 없는 만풍년의 자랑
세상에 부럼없는 배움의 노래
세상에 금지높은 통일단결의 노래
대양과 대륙 넘어 울려가나니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공화국이 위력하고

우리 혁명의 양양한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가슴마다에
민족의 이 긍지, 이 자부심이 넘치고
하늘땅에
주체의 기치 펄펄 휘날리기에
새해의 첫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의 희망은
이리도 가슴벅찬것이 아닙니까

온 나라가 격동에 휩싸여 맞이할
우리 당 6차대회의 높은 연단우에서
수령님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를 안고
80년대의 조선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될것입니까

3대혁명의 기치높이
주체의 뜻으로
락원의 이 강산을 더 활짝 꽃피우고
한걸음을 걸어도
우리 식으로 걸어나가며
기어이 새 7개년의 승리의 보고를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그 길우에서
3천리에 통일의 꽃바다가 설레일
민족속원의 그 아침도
인간자주의 화원이 만발한
공산주의 새날도 맞이하렵니다

아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은
이 행복 이 영광 길이길이 노래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영광스러운 당을 따르며
주체의 혁명위업 온 누리에 꽃피워가리니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경봉의 소나무 영원히 푸르듯이
백두의 성산이 영원토록 솟아있듯이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새해 첫아침에

전세봉

새해, 새날이 밝아왔다.

더욱더 큰 승리를 약속하는 1980년의 첫아침이다. 또 하나의 년륜이 내 조국의 력사우에 새겨진것이다.

이 새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 경건히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79년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또 하나의 찬란한 페이지를 아로새긴 뜻깊은 해였다.

지난해에는 정초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 대외무역, 인민생활, 수송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된 자랑찬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의 로동계급은 도처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라우는 혁신을 일으켰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의 영웅적탄부들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충성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으로 탄벽을 밀고나갈 때 김철과 황철, 강선의 로동계급들도 충성의 쇠물폭포를 마련하였으며 먼바다의 어로공들도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만선기를 휘날렸고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세계공장들이 조업을 선언하는 일대 경사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대동강기슭이며 보통강기슭에는 웅장화려한 산원이며 목욕탕이 일떠섰다.

지난해에는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된 해였다. 말그대로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이 들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사를 망쳐 세계가 식량위기에 빠져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농법이 찬란히 꽃피어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풍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 때 사람들을 한없이 격동시킨 숨은 영웅들

의 위훈이 세상에 알려져 그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온 사회가 들끓고있는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진정한 애국자들인것이다.

지난해에는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영화로 옮겨져 온 세상사람들의 감탄을 불러 일으킨것은 바로 지난해에 있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또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해 남조선인민들은 거세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원썩들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어 놈들로 하여금 제놈들끼리 박정희피괴역도놈을 썩죽이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1979년은 참으로 수많은 사변들로 가득찬 해였다.

실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볼수록 기적과 혁신으로 나날을 주름잡아가며 전진과 투쟁만을 아는 나라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를 가슴 뿌듯하게 느끼게 된다.

이토록 더욱 부강해진 우리 조국의 지난 한해에 날과 날들에 이어지며 감격 없이는 들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수놓아져있다.

새 결의를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접하던 지난해 정월초하루, 그날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뵈옵던 우리는 얼마 안있어 차디찬 한겨울의 바다바람을 맞으시며 서해의 항구를 건너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왔다. 그 다음엔 농민들도 아직 나서지 않았던 이른 봄 평안남도의 논벌을, 다음엔 북방에 자리잡은 바다기슭의 제철소, 량강도의 두메산골, 황해남북도의 드넓은 벌이며 자강도며 그 어디라없이 걷고걸으시며 나라일을 돌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뵈올수 있었다.

백두산에 오르시여 험한 눈발을 헤치시며 일제를 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도 로고를 헤아리지 않으심은 우리 인민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한것이 아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우리 인민을 아껴주시기에 행복한 우리 인민은 로쇠를 모르고 혈기왕성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마련해가고있다.

집안이 흥하면 손님이 많다는 옛말 한가지로

주체사상을 따르는 외국의 벗들은 또 얼마나 많이 우리 조국에 찾아왔던가.

부강한 나라, 혈기왕성한 인민, 그 위대한 사랑 속에서 70년대의 년륜이 끝나고 80년대의 문턱에 들어서지만 우리 인민은 한결 더 젊어졌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모든것이 푸르청청 젊어만진다. 정녕 우리 인민도 우리 조국도 청춘 시절에 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신 령도아래 더욱 큰 승리를 약속해주는 새해-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를 맞는 이해에 우리는 또 얼마나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를것인가.

새로운 투쟁과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1980년을 맞는 우리 인민앞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휘황히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여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힘있게 촉진시켜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

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980년을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이 아침,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들을 불태우는 우리 인민들의 흥분에 겨운 모습, 그 높은 숨결소리를 나는 보고 듣는다.

생각만 하여도 새해전투에 진입할 조국의 전진하는 모습, 그 거룩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랜 창작생활에 머리가 희여진 나도 이제는 늙기를 그만두었다. 청춘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조국의 젊음을 노래하는 젊은 작가로 살려고 한다. 청춘이 주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욱 붓끝에 힘을 줄 결의를 다지게 된다.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새봄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새해결의

하나의 꽃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안정기

새해를 맞으니 기쁨도 희망도 하냥 새롭다. 영광의 제6차당대회를 맞는 이해엔 또 얼마나 거창한 전변이 이룩될것인가. 얼마나 뜨거운 사연들을 안은 충성의 꽃들이 이 강산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달려가고싶은곳도 많고 쓰고싶은 서정시와 가사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다 그러안기엔 내 가슴이 너무도 좁고 내 힘이 너무도 부족하다. 나는 다만 이 뜻깊은 해에 자기가 해야 할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영예이며 행복인것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만천하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무대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나는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것은 나자신의 맹세이며 우리 창작집단의 한

결 같은 결의이기도 하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이 작품이 우리의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을 기대하고있다.

나는 오직 이 기대, 이 믿음에 보답하는 길에서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고 삶의 보람을 느낄것이다. 그러자면 그만큼 피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가르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좌우명으로 된다. 때문에 나는 이해를 정치사상적인 수준과 기술실무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한 해로 정하고 긴장하게 투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 결의가 빈말로 되지 않을것이다.

소담하고 아름답고 향기높은 하나의 꽃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찬란한 주체문학의 화원에 적으나마 보태고싶은 마음! 이것은 내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소망의 불길이며 이것은 또한 당의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의무에서 산생되는 량심의 웨침이다.

역사물대작구성의 빛나는 모범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보고—

한류속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인들은 당의 지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영화화면에 옮기는 역사적위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발전력사에 또 하나의 자랑찬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달성한 혁신적성과는 민족적독립이나 나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혼자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못쓰고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힌 종자의 독창성과 함께 역사물영화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구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미학적원칙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역사물창작에는 역사적사건과 사실, 역사적인물들이 반영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것을 기계적으로 라벨한다면 그것은 역사기록, 역사자료 소개에 그치고말것이다.

지금까지 역사물영화창작에서는 대체로 위인들의 전기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역사적사실을 기계적으로 조립라벨하는 역사기록적인 경향으로 나가는것이 상례였다. 전쟁이나 계급투쟁을 반영한 작품인 경우에도 극을 무시하고 화폭만 내세우면서

영화의 비상한 표현적가능성을 람발하여 요란한 사건, 수많은 군중, 거대한 피사체로 대규모의 화면만을 창조하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이러한 영화들에는 뚜렷한 문제성도, 명백한 인간관계도,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도 없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내세우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살며 투쟁하는 산인간의 전형형을 창조한 새로운 형식의 역사물대작이다.

이 영화가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역사물대작으로 된것은 무엇보다도 형상구성상 특성과 관련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구성은 극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다. 구성이 짜이지 못하면 작가의 의도가 살아나지 못할뿐 아니라 형상이 진실치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작품의 사상적내용까지 모호하게 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형상구성상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19세기말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20세기 초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을 포괄하고있으나 그 모든것이 하나의 정연한 극적 이야기로 엮여지고있는것이며 공부정인물들의 직접적인 성격적충돌은 적게 보여주면서도 주인공에게 극을 집중시키고 그의 극적체험의 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해낸것이며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한 역사적사건을 보여주는데 중심을 두면서도 당대의 시대상을 정치, 경제, 문리도덕, 세태풍속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낸것이다.

그러면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이러한 형상구성상 특성을 갖게 된 기본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운데 있다.

영화에는 방대한 역사적사건과 인물, 생활자료들이 반영되어있으나 그 모든것이 주인공 안중근의 운명선과 밀접히 결합되어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한결같이 지향되고있다.

영화에 반영된 당대의 중요한 사회정치적사변을 이루는 역사적사건들과 시대의 동향을 대변하는 수많은 역사적인물들은 주인공 안중근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련결되어 그의 운명발전에 심각한 우여곡절을 조성시키고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일제침략자들의 횡포한 만행과 사대매국노들의 추악한 역적행위로 인하여 망국의 도탄속에 빠진 민족의 참상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과정에 주인공의 반일애국사상은 격화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심각한 모태김속에서 마침내 이등박문을 사살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

영화에 반영된 모든 사건과 사실들이 주인공의

운명선과 밀접히 결합되어 종자를 뿌듯하게 살릴수 있게 된것은 시대의 동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 인물관계의 중심에 주인공 안중근을 확고히 내세운데 있다.

영화에서 궁정인물계열을 대표하는 안중근과 리준, 안중근과 명국, 안중근과 오경식의 관계만 보더라도 시대의 특징과 지향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주인공 안중근으로 하여금 심각하고 복잡한 정신적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도록 전형화되어 있다.

리준은 안중근의 스승으로서 서구열강에 의존하여 국권을 회복하려고 지향하는 인물이다.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되어 조선의 독립을 절규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배를 갈라 원한의 최후를 마치게 된다. 그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은 안중근의 사상의식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하여금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찾게 한다.

또한 명국이는 안중근이 구원하여 의로운 길을 걷도록 이끌어준 인물이다. 영화에서는 삼대에 걸친 그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참담한 근대사를 발가놓고있다. 갑오민란과 청일전쟁에 삼대가 멸살당하고 이번에는 그마저로일 전쟁에 끌리어나왔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나온다. 군인폭동이 실패하자 그는 의분을 품고 의병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무능한 상층부의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제의《토벌》에 걸려들어 처참하게 희생된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안중근으로 하여금 의병투쟁의 방법으로도 국권을 회복할수 없다는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안중근의 친구인 오경식이기도 애국적인 신문기자로서 문필활동으로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벌리였으나 《일진회》원놈들의 책동으로 실패하며 나중에는 박해를 받는다.

영화에서는 이와 같이 안중근을 중심에 놓고 복잡한 갈래의 수다한 사건과 인물들을 치밀하게 맞물려놓음으로써 구성의 산만성과 복잡성을 극복하고 극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하고있으며 력사와 인간들의 운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력사의 흐름속에서 주인공들의 생활과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형상구성상특성은 다음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낼수 있는 생활국면들을 잘 조성하고 다양한 영화적인 형상수단을 리용하여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형상의 극적집중성과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풍부한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한데 있다.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줄수

있는 생활국면을 잘 조성해놓고 집중적으로 그려나가는것은 극을 지루하게 벌려놓지 않으면서도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하며 형상의 사상정서적감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영화에서는 하나의 극적사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자체를 라렬한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극적체험의 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모든 영화적인 형상수단을 집중하고있다.

국경연안에서 의병부대가 피멸되는 사건은 안중근의 의식발전에서 결정적인 단계인 개인테로 의 길로 나갈 결심을 품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영화는 사건자체의 비참성을 장황하게 라렬한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체험하고 느끼는 안중근의 심리세계를 밝히는데 묘사를 집중하였다.

관현악이 처량하게 울리는속에 격전의 참상이 펼쳐진다. 피로 얼룩지고 짓밟힌 무연한 쪽새발에 의병들의 시체가 널려있다. 피발이 선 눈으로 이 처참한 광경을 둘러보는 안중근, 시체들사이를 한치한치 기어나오다가 치명상을 입은 명국을 발견한다. 안중근을 알아본 명국은 나까지 죽으면 우리 일가는 대가 끊어진다고 하면서 왜놈들을 저주하다가 숨을 넘긴다. 그의 원통한 마음을 담아서인가 관현악이 더욱 장중하게 울린다. 전우를 잃은 안중근의 피라는 울부짖음이 강산에 메아리친다. 벌겋게 충혈된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진다. 쪽새풀이 바람에 세차게 설레인다. 피빛으로 물든 저녁노을이 전장을 더욱 살벌하게 만든다.

보는바와 같이 이 장면은 안중근으로 하여금 일제놈들과 사생결단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강한 심리적충격을 안겨주는 심리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영화에서는 하르빈역구내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하는 절정사건도 이런 방법으로 박력있게 그려나가고있다.

취주악소리에 박자를 맞추며 의장대앞을 천천히 걸어나오는 이등과 그 일행, 긴장된 중근의 얼굴, 여기에 이등놈의 가증스런 얼굴이 교차된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태연한것 같으나 속으로는 극도로 초조하고 긴장되어있는 안중근의 세부행동과 안면표정, 절호의 기회를 놓칠가봐 걱정하는 그의 내면독백, 주머니속에서 권총천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외교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이등과 그 일행, 중근의 시선이 이등놈을 뒤따른다. 불이 펄펄 이는 중근의 눈, 파격을 표시하듯 이등놈의 뒤모습이 천천히 확대된다. 중근의 손이 주머니속에서 날파람있게 불쑥 솟아나며 총성이 메아리친다. 군중의 비명소리, 몸을 비트는 이등놈, 순간 화면이 정지되고

취주악과 군중의 환호성이 일제히 멎는다. 이등놈의 얼굴이 이그러지다가 폭 꺼꾸러진다. 수원들이 쓰러진 이등에게로 달려나오자 다시 연거퍼 울리는 총성, 세놈이 차례로 너부러진다. 뒤따라 중군이 달려나와 이등놈의 시체를 밟고 호탕하게 웃는다. 그리고 조선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다.

보다싶이 안중근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펼쳐보이는 이 절정장면은 당시의 역사적사변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다양한 영화적인 형상수단을 집중하여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영화의 사건조직과 장면조직에서의 이러한 특이성은 극을 시종일관 감정조직으로 일관시킬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있다.

영화에 반영된 《을사보호조약》체결과 《시일야방성대곡》, 《국채보상운동》, 《헤그밀사사건》, 의병투쟁, 하르빈역두에서의 이등박문 사살 등 역사적 사건들은 시대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보여주고있는 전형적인 사건들로서 우리 인민이 당하는 망국의 설움과 고결한 애국정신을 안중근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생활적 전제와 계기를 지어 준다. 이러한 역사적사건들의 발전속에서 안중근은 민족의 운명을 통탄하게 되며 참을수 없는 의분을 안고 국권회복의 길에 나서게 된다.

영화에서 안중근의 반일의식이 높아가는 과정이 이처럼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된것은 성격과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감정조직을 주도세밀하게 한데 있다. 이러한 감정조직의 치밀성은 안중근의 성격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극세계에 깊이 잠겨 주인공과 같은 사상감정으로 역사적사실을 체험하고 작품의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은 타고난 인품을 지닌 영웅호걸이 아니라 애국충정이 높은 시대의 선각자이므로 그의 반일애국사상이 높아가는 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본조건 하나도 된다.

안중근은 시대적제한성으로 여러가지 모순적인 투쟁속에서 모태기다가 결국 옳바른 출로를 찾지 못한채 개인테로의 길로 나가게 된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러한 심리발전과정을 단순히 그의 개인의 운명선으로 끌고간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극의 감정선이 심각한 사상정서적색채를 띠게 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당대의 역사적사실을 생동한 산 현실로 체험하게 되며 깊은 공감속에서 크나큰 교훈을 찾게 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형상구성상 특성은 또한 극적화폭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서사적인것과 서정적인 화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있다.

영화에서는 조선인민과 일제침략자들사이에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는 극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면서 극의 줄거리에 일제와 구미열강들의 조선침략음모를 폭로하는 역사적자료들과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을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적화폭을 그리고 긍정인물들 호상간에 오고가는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보여주는 서정적인 화폭들을 생활론리에 맞게 잘 배합함으로써 사상적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예술적으로 감명깊은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형상구성방법은 영화에서 극성과 이야기 줄거리에만 매달리는 경향과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라렬하여 년대기식, 전기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경향을 극복할수 있게 하였으며 생활을 외딴곳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그려나감으로써 당대의 시대상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영화에서는 특히 민족적특색이 짙은 인정생활을 여러모로 잘 보여줌으로써 형상전반에 걸쳐 독특한 정서적향기가 풍기게 하고있다.

영화에서 안중근과 안해 아려와의 관계, 안중근과 명국, 한씨와의 관계, 안중근과 오경식간의 관계는 서로 떼여놓을수 없는 뜨거운 인정적인 관계로 유착되어있다.

한씨는 안중근의 비보를 듣게 되자 년로한 몸인데도 불원천리하고 아려를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일을 돕고 위안해준다.

그는 부역에서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된 시동생 명국이를 집에 데려다가 피신시키고 극진히 돌봐주었으며 그후에도 의로운 길을 걷도록 알선해준 안중근에 대한 감사의 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쳐싸운 애국렬사의 가정을 정성껏 도와주는것을 백성된 응당한 도리로 여긴다.

참으로 주인공 안중근의 가정과 명국, 한씨의 관계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되어온 상호부조의 미풍과 모진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불행을 꿋꿋이 이겨가는 한없이 높고도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보인다.

영화에서는 특히 주인공 안중근과 안해 아려와의 관계를 소박하면서도 뜨겁고 진실한 사랑관계로 값높게 형상하고있다.

나라가 진 채무를 갚자고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녀자들은 식찬을 줄이고 가락지, 비너 같은것을 뽑아바치는 회를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자 시집을 때 해가지고 온 옷들과 노리개감을 고스란히 내놓으며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해오던 결혼반지마저 남편에게 맡기는 아려, 나라를 지켜싸울 의로운 뜻을 품고 기약할수없는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집걱정을 말라고 굳이 안심시키며 그의 걸음을 지체시키는 시동생들에게 집이야 우리들이 못지키구 어머니야 우리들이 못모시겠는가고 조용히 타이르면서 어린 자식들을 시켜 먼길을 떠나는 아버지께 절을 드리게 하는 아려의 고결한 풍모는 우리 조선녀성들이 지닌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유순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민족적 특색으로 빛나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에 의하여 일제와 사대매국노들에 의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이를 갈고 치를 떠는가 하면 때로는 아름답고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둘러싼 이러한 인물관계를 통하여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과 례의도덕을 긍지높이 례찬하고있으며 《을사5적》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추악한 행실을 비난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뿐만아니라 료리도덕적면에 이르기까지 심오하게 대립시켜 예리하게 발가놓고있으며 이 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상의 중심에 일관시키고있다.

영화에서는 이밖에도 격동적인것과 정서적인것서사적인것과 극적인것 등 다양한 생활화폭으로 당대의 시대상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처지와 동향을 폭넓게 보여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구성상 특성에 맞게 연출과 연기, 촬영과 미술, 음악 등 영화형상전반에서도 완벽한 예술적조화를 보여주었으며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영화는 방대한 규모의 력사적사실과 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으며 조선경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판도에서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있으나 대담하고 세련된 연출형상으로 극적매듭을 잘 설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비약 함축하면서 매 화면을 다양한 정서로 충만시키고 극의 흐름을 박력있게 끌어나가고있다.

영화에서 력사적진실을 발가놓는 사진자료들이 많이 삽입되고있으나 그것이 설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극의 이야기줄거리에 튼튼히 맞물리는것은 다양한 화면편집수법으로 능란하게 처리한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유구한 력사가 담긴 이끼푸른 성벽이 아득히 멀어지면서 설화가 시작되고 조선의 기상을 말해주듯 절벽우에 푸르싱싱 솟아오른 소나무에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가리워지면서 그속에 무장을 든 수백의 조선농민들이 합성을 지르며 육박해오는 그림이 펼쳐지는 첫장면의 처리는 뜻이 강한 상징적인 묘사로 화면내용의 깊

이를 보장하면서도 대담한 상징수법으로 화면들을 순탄하게 련결시킨 세련되고 특색있는 편집기교로 된다.

영화에서는 특히 극의 흐름을 박력있게 끌고가면서도 내용을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강한 극적대조의 수법을 많이 쓰고있다.

그것은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온 나라가 망국의 슬픔에 잠겨 애국지사들과 인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역적들을 처단하려 나서고 안중근과 리준은 죽기로써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자고 맹세다지는 장면과 한편 술판을 벌려놓고 일제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데 바친 서로의 공로를 치사하며 대신 한자리 벌여볼 공상에 들떠 돌아가는 매국노들을 보여주는 장면의 대조, 《국채보상운동》이 배일행동으로 물리어 금지되자 안중근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온 민족의 애국충정이 유린된 통분을 안고 가슴치는 장면과 다른 한편 례천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한 흑막관계를 자랑하며 일본기생들을 끼고 취흥에 잠겨 해피한 추태를 부리는 매국역적의 무리들을 보여주는 장면의 대조, 일제의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사살하는 장면에서 열혈 조선청년에게 개죽음을 당한 원통을 안고 절명하는 이등박문과 그놈이 죽었다는것을 확인하자 통쾌감에 잠겨 하늘높이 머리를 쳐들고 웃음을 터뜨리는 안중근의 존엄있는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준것 등 편집수법들은 극의 전반을 사상정치적으로 예리한 감정선과 갈등선으로 박력있게 전개시킬수 있게 한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영화의 촬영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생활의 흐름에 맞게 화면을 길게 찍으면서 촬영기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화면내부편집을 잘하여 감정을 지속시켜 보여준것이다.

이러한 촬영수법은 현대적미감에도 맞고 민족적 특성도 살린 광폭영화촬영에서의 새로운 경지를 이룬다.

영화는 또한 전반적으로 화조가 부드럽고 선명하며 천연색의 표현적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대상을 폭넓게 잡으면서도 공간의 깊이와 량체감을 보장하고 생활의 흐름에 맞게 화면의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시킴으로써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보여준 이러한 형상구성상특성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 리론이 밝힌 혁명적창작원칙과 형상방도를 정확히 구현한데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영화가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견결히 옹호하고 계속 진지하게 따라배움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당일군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류 만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들끓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변화발전하는 시대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리상은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주체시대의 본질과 위대한 전진운동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더 훌륭히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우리 문학예술에서 내세워야 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공산주의자의 전형가운데서도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한몸바쳐 싸우는 당일군의 형상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아가며 이 땅우에 세기적전변과 기적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생활력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 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이 땅우에 이루어진 모든 전변과 기적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밝히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의 참다운 원천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힘있게 천명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 문학예술에서 주체시대의 인간과 현실에 대하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력사적변혁에 대하여 진실하고 감명깊게 반

영할수 있다. 또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고 그 관철으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그런데 문학예술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여주는 문제는 일반적인 강조나 설명으로 해결될수 없으며 어느 한두대목이나 사건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문학예술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는 달리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여주는 문제도 구체적인 인물설정과 그 형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여기서 기본은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는데 있다. 당일군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다 그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고 관철되여나가기때문에 당일군이 어떻게 역할하는가 하는것은 곧 당의 령도적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현실의 위대한 전변을 낳은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자면 무엇보다도 당일군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생활을 통하여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일군을 옳게 설정하고 현실에서와 같이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아가는 그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감명깊게 보여주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또한 새시대의 인간전형-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하는것은 문학예술창작의 중심과제이며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이다. 문학예술에서 어떤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그 문학의 성격을 특징지으며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본질적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일군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이 성스런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시대적전형들이다.

당일군들이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의路线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광범한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열렬한 정치선전자, 능숙한 경제조직자이며 투쟁의 기수들이기때문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나오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는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다바쳐 일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당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무조건적인 옹호자이며 그들에게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모든 긍정적자질들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다.

특히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있는 오늘 당일군의 형상창조문제는 참으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전형과 함께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우리의 문학예술은 새시대의 인간전형-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전형을 통한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정당성, 작품의 사회교양적기능을 더욱 높일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시대적전형창조의 필수적요구인 동시에 또한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높이며 다른 긍정인물들의 형상창조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높은 정치성, 사상성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다. 높은 정치사상성을 보장하여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할수 있다.

그런데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성은 작가의 말로 강조되는것이 아니라 형상의 모든 고리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참으로 힘있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여기서 정치조직선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급의식에 눈떠서 투쟁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혁명투쟁을 벌리는 사람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의 생활과 운명은 모두 그들의 정치조직과 연결되어있다. 진실로 보람있게 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당의 령도를 받아야 자기의 목적과 리상을 달성할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정치조직을 떠나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수 없을뿐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어나갈수 없

다.

특히 오늘 우리의 혁명적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 정치조직선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는것만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정치조직의 지도와 영향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작품에서 당일군이나 정치조직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기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풀수 없으며 나아가서 생활을 외곡하게 된다.

당일군들과 정치조직은 사람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며 긍정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일군과 정치조직선을 옳게 설정하고 그의 역할을 잘 그리면 전개되는 사건과 인물들의 형상에서 당적 요구와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그 정치적의의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에서 당일군을 옳게 설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훌륭하게 그리는것은 현시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측면에서나 또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고 작품의 정치사상성을 더욱 높여야 할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나 매우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강화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거대한 변혁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에서는 응당 당일군의 형상창조에 더 많이 힘을 돌려야 하며 주체형의 당일군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는 문제는 그것이 성격의 전형화과정에서 볼 때 성격창조의 일반적인 원리와 공통성을 가지지만 당의 령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해가는 인물로서의 당일군 그리고 형상체계전반에서 당일군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놓고볼 때 거기에는 일련의 특성들이 존재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면 그에 맞는 사상미학적요구와 형상의 제 방도들을 깊이 연구파악하고 창작실천에서 잘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당일군으로서 가져야 할 사상정신적 특질과 품모를 성격발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지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간부의 기본표징입니다. 간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이 확고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당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 간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여야 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온몸에 리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정치적자기가 높고 능력이 있으며 당의 정책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간부의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교시에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고상한 품모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당일군의 기본표징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 여기에 당일군으로서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품모가 있다. 따라서 당일군의 형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그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끝없는 충성심을 심오하게 그려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어야 한다.

혁명적실천투쟁이야말로 사람들이 지닌 사상의식상태를 가늠할수 있는 기본분야이며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닌 충성의 열도를 남김없이 드러낼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형상에서는 그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사업과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깊이있게 그리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비롯하여 《로동가정》,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와 《불바람》 등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한 우리 소설문학의 중요한 성과도 바로 그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감명깊게 그려낸데 있다.

《평양시간》에서의 건설사업소 당위원장 탁준범, 《로동가정》에서의 광산당비서 김창민과 광구부문 당비서 한석, 《깊은 산속에서》의 군당위원장 김세진, 《불바람》에서의 연공작업반 세포비서 박진수 등은 일하는 분야와 말은 사업범위는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안고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려는 하나의 지향과 열정으로 숨쉬고 투쟁해나가는 인물들이다.

건설을 조립식방법으로 전환하여 건설에서 일

대혁신을 일으키는 투쟁이나 더 많은 쇄돌을 캐내기 위한 범산개발전투 그리고 산속에서 양을 키우는 문제며 야금기지건설장에 140톤전로지지 가락지를 설치하고 550톤 중량의 초대형탑식기중기를 옮기는 일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거둬되는 난관이 앞을 막아 나서는 매우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 숭고한 혁명사업이였으며 따라서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발휘한 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충성으로 받드는 당일군들에 의하여 선도되고 남김없이 표현된것이였다.

탁준범은 계급적원수들에 의하여 조립식건설이 일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조립식건설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상철이를 비롯한 제대군인청년들을 이끌어주며 김세진 역시 깊은 산속에서의 양방목이 더는 취설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양을 숲속에서 키울것을 가르치고있다고 하면서 축산반장 태창국을 비롯한 농장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떠밀어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는 이러한 열렬한 충성심은 김창민, 박진수의 성격형상에서도 깊이있게 천명되고있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그들 성격의 본질적특징으로 표현될뿐아니라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심장속에 심어지고 대중을 충성의 한길로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여야 참으로 값높고 의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당일군들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역할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당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만 당일군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어떻게 벌리며 광범한 군중을 당정책관철에 어떻게 조직하고 동원하여나가는가를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로동가정》에서 광산당비서인 김창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화교시를 받고 곧 교시관철을 위한 조직사업과 동원사업을 짜고들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충성의 불길을

지켜올릴 확고한 결심을 안고 끝없는 열정에 휩싸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온 집단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당일군의 숭고한 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당일군의 형상에서는 그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있게 그려내야 새시대 인간전형으로서의 사상정신적 특질과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잘 그려내야 그에 기초한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 혁명적원칙성과 높은 계급성,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등 당일군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도 깊이 있게 밝혀낼 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사상정신적 특질과 숭고한 풍모를 훌륭히 형상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일군들이 지닌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 겸손하고 검박하며 소탈한 품성을 감명깊게 그리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레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이다. 그러나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인간성도 있어야 하며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도 소유하여야 한다.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당의 경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문제도 당일군들이 어떠한 품성을 지니고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당일군을 형상하면서 그들이 지닌 높은 일관성과 문화성, 혁명적의리,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 등을 구체적으로 잘 그려내야 한다. 이것은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중요한 품성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문제인 동시에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일반적인 구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일군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의 사업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간성,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 등이 발현되게 된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각이한 계층, 각이한 연령, 각이한 직업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당일군들의 높은 인간성,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 등을 잘 그려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장편소설 《로동가정》에 나오는 광산당비서 김창민은 언제나 군중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간격없이 소탈하게 지내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

는 인간성도 있고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도 가진 당일군으로 잘 형상되였다. 광산마을의 좌상격인 춘보로인과의 담화는 사람들속에서 《새벽회담》으로 불리울만큼 일상적이고 진지한 것이었으며 여기에서는 일곱살짜리 철부지의 흠대닥질이 이야기로부터 새로 만들 침전못위치문제까지 상정되지 않는 이야기가 없다. 이것은 그가 당일군으로서 쇠물생산을 힘있게 떠밀어가면서도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대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가 하는 웅심깊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특히 김창민이 큰 광산의 당비서이지만 전화를 받을 때에는 상대를 마주 대하는 때처럼 모자를 벗고 받는다든가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강조함으로써 당일군으로서의 그의 겸손성, 소박성을 감명깊게 그려내었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의 군당위원장 김세진 역시 풍부한 인간성과 소박한 품성의 소유자로 잘 형상되였다. 산속방목에서 52마리의 양을 죽인것으로 하여 변상문제와 책벌문제가 제기된 한 작업 반장을 마주하고도 욕설과 추궁이 앞서는 대신 자신을 심각하게 뉘우치는 그를 믿어주고 당정책을 기어코 관철하도록 고무해주는 김세진 그리고 그 잘못은 잘 지도하지 못한 자기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 군당위원장 김세진의 숭고한 풍모는 참으로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당정책을 근기 있게 관철해나가기 위해 애쓰는 당일군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원숙한 사업작풍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있다. 바로 김세진은 높은 인간성과 겸손하고 허심하며 아량있는 풍모를 지닌 당일군이였기에 축산작업반장 태창국은 그한테서라면 그 어떤 쓰고 아픈 말이라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군당위원장이 준 엄한 비판을 그대로 새출발의 계기로 하여 당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해나갈 수 있었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김세진이가 오향로 하여 일시 《결렬》상태에 이르렀던 봄순이와 정우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하도록 도와주며 9.9절 명절에 자기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서도 창국의 가족들은 마을에 내려가 명절을 쇠도록 하는 장면 등을 통하여 자신보다 군중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적극 힘쓰는 당일군의 고상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당일군을 형상하면서 그들이 지닌 풍부한 인간성, 소박성과 겸손성 등을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잘 그려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참다운 모습을 뚜렷이 부각할 수 있다.

작품에서 당일군의 인간성,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그 인물을 그저 《호인》적으로 그려서는 안된다. 주체형의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높은 인간성, 겸손성과 소박성은 《호인》격의 성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다.

당적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모든것을 스쳐지나거나 《종계》만 보는 《호인》격의 인물은 우리 시대 당일군과 인연이 없으며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철저히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 당일군들이 지닌 높은 인간성, 소박성과 겸손성 등 고유한 품모는 어디까지나 당적원칙에 확고히 의거하고 혁명적원칙성과 결합된 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상관점의 표현인것으로 하여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시대 당일군들이 지닌 높은 인간성과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 등을 잘 그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당일군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특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숭고한 모습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대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입니다. 당일군들은 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아래에 내려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아래 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이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또한 당세도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등도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인연이 없다.

당사업은 오직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우리 시대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참다운 선전자, 교양자들이다. 당정책이 관철되어가는 그 모든곳에 당조직이 살아 움직이고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언

제나 당일군들이 서있다.

작품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아래에 내려가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당일군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건설사업소 당위원장 탁준범이 청년조립조를 못도록 상철이들을 깨우쳐 주고 이끌어주는것이라든가, 장편소설 《로동가정》에서 광산당비서 김창민이 침전못위치설정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평범한 한 로인과 토의하여 해결하는것이라든가 그리고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의 군당위원장 김세진이 9.9절 명절에도 쉬지 않고 하루를 깊은 산속에 들어가 양방목을 농장원들과 함께 하며 땀흘리는 모습 등은 다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 작품들에서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대한 형상이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다만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한다는것을 보여준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 극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그려내였다는데 있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들에서는 당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해나가는 생동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당의령도를 실천활동으로,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훌륭히 일반화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사업에서의 그 어떤 격식과 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자체가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정치선전사업과 경제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밀것을 요구하는것만큼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격식과 틀이 있을수 없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해나가는 일군들의 투쟁을 그럴 때에도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과 대상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당정책을 어떻게 선전하여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휘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파고들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해나가는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다양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성격형상에서 류사성을 극복하고 독창성을 잘 살려나갈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문제는 그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과 품모를 깊이있게 밝혀내는것과 함께 구체적인 작품창작에서 당일군을 옹계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그리는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는 그들의 사상 정신세계를 충분히 드러내는 동시에 작품의

형상체계전반에서 당일군을 예술적으로 전형화하여 잘 그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주체적문제이론은 작품에서 정치조직선을 말아나서는 정치일군은 주제를 푸는 주요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형상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일군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당일군에게 뚜렷한 형상과제를 주고 그들을 품위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매 인물에게 형상과제를 바로 주는것은 작품창작의 일반적요구이며 매 인물은 뚜렷한 형상과제를 받아안음으로써만 작품에서 존재가치를 가지며 종자해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형상과제를 바로 주는 문제가 당일군의 형상에서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생활에서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당일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작품의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는데서 그가 노는 역할과 관련되어있다.

당일군은 누구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알고 그것을 조직집행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기때문에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생활이 이러하듯만큼 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이러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매 당일군의 형상에는 뚜렷한 형상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당일군이라 하여 그의 사상정신적품모로부터 사업방법과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본새로 다 그릴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시도하여서는 작품에서 류사성과 평균주의를 면할수 없다.

작품에 심어진 종자와 그에 기초한 주체사상에 따라서 당일군의 형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방법과 작품문제가 창조될수도 있고 인간성, 문화성이 더 강조될수도 있다. 여기서 당일군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여 그리는가 하는것은 종자에 기초한 구체적인 형상과제가 뚜렷할 때에만 명확해질수 있다.

작품에서는 당일군의 형상이 많은 장면에 그려지는 경우는 물론 비교적 적게 그려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작품에 제기된 기본문제와 여러 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운명이 이렇게나 저렇게 당일군과의 깊은 련관속에서 그의 적극적인 영향밑에 해결되는것으로 그리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학예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여주는 면에서나 시대의 참다운 전형으로서의 당일군의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는 면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과 《로동가정》,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 등에 나오는 당일군의 형상

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 작품들에서 당일군들은 비록 기본주인공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은 장면들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품에서 제기한 기본문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을 당일군들의 구체적인 지도와 같이 련관시킴으로써 당정책관철에서의 당일군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놓고볼때 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는 문제는 결코 그들을 얼마나 많이 등장시키고 많은 사건에 관계하게 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비록 적게 등장시키더라도 당일군으로서의 사상정신적 품모와 지도적역할을 얼마나 깊이있게 그리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전반적인 사건체제와 인간관계설정의 특성에 맞게 당일군을 옹계 설정하고 그에게 뚜렷한 형상과제를 주어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

만일 당일군의 형상에 뚜렷한 형상과제가 없을 때에는 그가 한갓 《결론》이나 하는 인물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면서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인물로 되어버리고말것이다. 또한 뚜렷한 형상과제가 없으면 개성을 가진 산인간으로서의 당일군의 면모도 나타낼수 없다.

이것은 당일군을 훌륭하게 그릴데 대한 우리 문학예술의 본질적요구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당일군은 어디까지나 당일군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갖춘 인간으로 전형화하여야 하며 당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잘 보여줄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당일군의 형상이 가지는 사상미학적의의와 인식교양적기능과 역할이 더욱 커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은 장제산동무와 같이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끝없는 충성의 열정과 창조적힘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미더운 당일군들의 형상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일군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다양한 모습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주체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공산주의자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당일군의 빛나는 형상을!

변희근

통성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우리의 주체적문학 예술은 찬란히 개화만발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있습니다. 우리 문학은 자랑스런 전진의 길에서 또 한살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 역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창작의 나이를 한살 더 먹어 뜻깊은 감회속에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1980년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의 나라를 활짝 펴고 걸어온 지난 시기를 돌이켜볼 때마다 저는 마치도 높은 령마루에 올라 아득한 령망을 내려다보는 심정입니다.

지난 몇해는 저의 창작생활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해들이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혁명문학건설에서 우리가 해놓은 일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고 보람찬것입니다.

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은 모든 작가들의 성실한 공동적인 노력과 매개 작가들의 높은 창작성과에 의해서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

6차당대회를 맞는 뜻깊은 이해에 저는 한 제철소를 생활무대로 하여 주체형의 당일군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새 장편소설을 창작하려고 합니다.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창조는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와 함께 현시기 우리 소설문학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참다운 당일군을 형상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신심에 넘쳐 창작사업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이 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때문입니다.

모든것은 저의 탐구적노력과 창작적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의 작품을 쓴다는 높은 자각과 불타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저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반드시 주체형의 당일군의 새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조국과 혁명에 충직한 농민영웅의 형상을 창조하겠습니다

김규엽

지나간 두해는 저의 창작과 생활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뜻깊은 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의 장편소설 《새봄》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을 때 저는 창작가로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하여 가슴이 뛴뛰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적혁명문학을 창작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예와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지 오래지만 저는 이제 비로소 창작의 청춘기를 맞이한 심정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은 작가인 저에게 있어서 그대로 힘으로 되었고 창작의 샘으로, 지혜로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힘과 열정을 가지고 새 장편소설 창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해방전의 혁명투쟁에 대한것도 물론 계속 써야 하지만은 해방후의 혁명투쟁속에서 나온 수많은 영웅적사적들과 감동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독자들은 아마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훌륭

한 애국자로, 농민영웅으로 자라난 채령벌의 애국농민 김제원을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그의 빛나는 생애와 영웅적투쟁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간직되어있습니다.

저는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 이해에 애국농민 김제원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철없는 세 동생을 데리고 풀머슴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머슴살이 17년! 악귀같은 일제의 《동척》과 지주놈의 참을수 없는 학대와 착취속에서 그는 항거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반항과 폭동, 감옥살이 이것이 해방전에 그가 걸어온 고난의 행로였습니다.

김제원농민은 인간사회의 밑바닥에서 겪을수 있는 갖은 고초를 다 체험하였습니다. 나라 없고 땅 없이 한뼘를 가슴에 피멍을 덧지으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 김제원농민이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안겨주셨을 때 하늘같은 그 은덕에 눈물을 흘리며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

의 힘찬 투쟁이 벌어지던 시기 김제원농민은 애국미헌납운동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온 나라 농민들을 충성의 애국운동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제원농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천년잡을 자고있던 갈밭을 개간하여 더 많은 새 땅을 찾아냈고 벼농사에서 앞선 농법을 받아들여 풍년수확의 비결을 농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농촌에서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건설하는 등 해방된 조국의 새 농촌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심장의 마지막 피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여 견결히 싸운 자랑스러운 농민혁명가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당 제6차대회를 맞는 역사적인 이해에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훌륭히 싸운 농민혁명가의 충직성의 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주체시대의 작가대렬에 서있는 영예를 안고

정문향

영광의 새해 1980년이 밝아왔다.

위대한 조국의 력사우에 펼쳐진 거대한 전변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나는 다시금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아래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역사적 변혁과 함께 우리 문학이 달성한 새로운 경지와 높은 성과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이 걸어온 길은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져있으며 주체시대의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위에 울려 퍼진 인간의 존엄과 긍지와 다함없는 행복의 노래로 가득찬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막을수 없는 감정과 장엄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우리 시문학이 개척한 새로운 길이기도 한것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시문학에는 아직도 완성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나는 주체시대의 영광스러운 작가대렬에 선 시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의 시론적기초를 쌓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탐구를 기울이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위업을 노래한 서사시를 창작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렇게 하여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빛나는 창작의 해로 되게 하겠다.

당문예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영예를 지니고

장형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인류에게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약속해주는 1980년대의 새날이 밝아온다.

이 장엄한 력사의 새날을 맞으며 먼저 생각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할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과 함께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될 주체적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문학예술을 승리의 한길로 떠밀어주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어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문예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적극적인 선전

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는것은 우리 문예부문일꾼들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해에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문예정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학습하여 당문예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자질을 훌륭히 갖추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체적문예사상의 력사적지위와 특징, 문학예술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해설하는 론문을 집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이와 함께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적후과를 폭로단죄하는 평론도 써내려고 한다.

나는 당문예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영예를 지니고 력사적일 당 6차대회를 맞는 이해에 긴장하게 살며 일함으로써 주체적문예리론을 더욱 깊이있게 해설하고 문예리론의 선도적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을 굳게 결의한다.

끝없이 걷고싶은 길

김원종

그 길은 눈에 덮여있었다. 령마루를 향하여 구불구불 뻗어오른 길에는 깊은 눈우에 움푹 패인 두줄기의 차바퀴자리가 나있었다. 우리는 다져진 그 바퀴자리를 따라 생각에 잠겨 걸었다. 음산한 겨울날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으나 앙상한 숲에서는 이따금 눈가루가 날려 목덜미를 싸늘하게 스쳐갔다.

오가산령마루에 올라서니 우- 소리를 치며 눈보라가 달려들었다. 눈보라는 마치도 먼길을 걸어온 우리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시험이나 쳐보려고 이 높은 령마루에서 기다리고있었던듯싶었다.

《이제야 제맛이 나누만. 이걸 아마 저 압록강 건너에서 오는 바람일지도 몰라...》

일행중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여 후날에도 이 눈바람이 두고두고 인상적으로 추억되게 하였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눈바람에 등을 대고 돌아서서 먼곳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렸다.

눈에 덮인 산발들이 아득히 잇달려 걸어온 길이 어느곳에 뻗었는지 짐작할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먼길을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매우 귀중한 교과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네살 어린시절이었던 1925년 1월 22일에 력사적인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로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만경대고향집을 떠나 수많은 산들과 령을 넘어 강계에 들어섰다. 강계에서 또다시 행군을 시작하여 이제 오가산령에 올랐으니 앞길은 월탄에서 하루밤 자고 하산령을 넘어 두지동을 지나가면 포평나루터에 이르게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에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로정 그대로를 따라가는것이라고 했다. 너무도 뜻깊은 답사의 행군길이여서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감명깊은 이야기가 그칠새 없다. 길은 말그대로 천리길인데 걸음걸음이 너무도 값있고 소중하여 함부로 지나가기 아쉬워지는 길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끝없이 우러르며 따라배우던 우리들이기에 이 길을 직접 걸어보고싶은 생각을 늘 품어왔었다. 그래서 시인들은 꿈결에도 달려오는 길이라고 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의 정을 안고 걸어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여 흥분을 삭이지 못하던 일이 방금전 같은데 이제 이 령을 내리면 하루밤을 월탄에서 자고 래일에는 어둑기전에 포평나루에 닿게 된다니 앞길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뿐이다.

바람결을 타고 혁명가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돌려 보니 왼편으로 굽어든 길우에 붉은기발이 나타났다. 그 밑으로 두줄로 늘어선 행군대오가 활개짓을 하며 씩씩하게 걸어올라온다. 가까이 오는것을 보니 하나같이 량볼이 무르익는 사과알같은 열서너살 났음직한 아이들이 대견스럽게도 행전을 가쁘히 치고 백포를 펄럭이며

오는데 어깨에서 흘러내린 붉은 띠가 유난히도 눈에 띈다. 거기에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라고 자랑스레 써여있다. 왼쪽주머니우에도 가슴표를 달고 거기에도 그런 글을 써붙였다. 그 애들은 방금 어제 포평을 떠난뒤여서 기운들이 펄펄하고 지친 기색이란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 그러기에 령길을 톱아오르면서도 숲이 들썩하게 노래들을 부르지 않는가!

《어린 동무들 잘 가시오!》

우리가 길옆에 비켜서며 손을 흔들어보이자 그 애들은 쟁쟁한 목소리로 한꺼번에 대답을 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는 주먹을 쳐들고 구호를 부르듯이 《배움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하고 부르짖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그들은 저렇듯 용기 백배하고 희망에 넘쳐 험한 령 눈보라를 웃음

과 노래로 헤쳐넘으며 아버지원수님의 뒤를 따라
썩썩하게 나가는것이다. 그들의 등뒤를 바라보
니 배낭뒤에 혹은 백포에 구호들을 써붙인것이
뜨뜻이 보인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이렇게 아이들은 배움의 천리길을 따라 화평쪽
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광복의 천리길을 따라 월
탄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고오는
사람들이 그칠새없다. 사시장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은 이 길을 걷고 또 걷는다. 직접 오
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걸어볼것이다.
확실히 시인들이 쓴것이 적중하고 옳은 말이다.

걸음을 다그쳐 어둡기전에 월탄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한때 후창군소재지였던곳이여서 옛 우편
국도 있고 그전날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민
족해방운동의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
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
선생님의 거룩한 혁명활동의 사적들이 수많은
곳에 들어있는곳, 바로 이 유서깊은곳에 위대한 수령
님의 혁명사적비가 세워졌다. 사철 푸른 전나무
숲을 배경으로 언덕밑에 세워진 사적비문의 글발
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깊이깊이 아로새겨진다.
나라잃은 동포들이 피나리보짐을 지고 찬바람 불
어오는 오가산 령을 넘어 동천강에 피눈물을 뿌
리며 흘러가던 월란리! 그들은 이곳에서 하루밤
을 뜬눈으로 새우고는 그 다음날 압록강을 향하
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놓아야 했다. 일
제놈들의 구두발밑에 짓밟힌 조국을 떠나 이국땅
으로 가고 또 가던 그런 사람들의 피눈물자국이
언제면 마를 날이 있었던가!

월탄려인숙집에서 강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천
리길을 걸어오며 솟구치던 감회의 눈물이 울컥
치솟았다. 동기와를 인 세간짜리 토벽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조국에서의 첫밤을 쉬어가신곳이며 또 광복의 천
리길에 오르시여 포령나루로 가시기전에 하루밤
을 쉬어가신 집이라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지나실 때는 추운 계절이었다. 오실 때나
가실 때에나 그토록 위대하고 큰 뜻을 품으신 위
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마련되어있던것은 이처럼

허술한 려인숙의 온기조차 미미한 옷방이었다.
구름노전을 간 옷방은 빛도 잘 안들고 천정이 낮
았다. 벨것은 목침뿐이요 덮을것이란 눈에 보이
지도 않는다.

바로 이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밤
그칠새없이 울어대는 문풍지소리에서 조국의 신
음소리를 들으시며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시지
못하시였다.

강사의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
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뜨거운 파도가 이는 말이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부터 간직해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심려의 깊
이를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실
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때
로부터 헤쳐오신 혁명의 폭풍은 얼마나 거세찬것
이었으며 몸소 걸으신 간고한 로정은 몇천만리에
달하는가! ...

비문에 새겨진 구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것
은 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잊을수 없는 말이다.

광복의 천리길을 답사하는것은 이 력사의 길우
에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의 뜻을 깊
이 체득하여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키
우고 강의한 의지와 튼튼한 체력을 단련하는 혁
명적수양의 좋은 기회로 된다. 참으로 이 길을
걷는다는것은 우리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더 깊이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
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준비해나
가도록 한다.

포령에 오니 압록강은 눈에 덮이고 저녁노을이
곱게 비끼 그우로 노래소리가 흐르고있었다. 그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현대적인 거
리로,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장소로 된 포령거
리에서 울려오는 행복의 노래소리였다.

유서깊은 나루가에 선 나의 마음은 눈덮인 강
우로 발자국을 새기며 걷고 또 걷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이어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그 영광의 길, 그 길을 따라 끝없이 끝
없이 걷고싶다.

10 월의 대회장으로!

오영제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사는
불타는 가슴들아, 가자, 10 월의 대회장으로!
주체의 행군길에
또 하나 높이 솟을
혁명의 리정표가 빛나고있다

당의 호소를 안고
80 년대의 첫새벽에
총진군의 발구름소리 높이 울린다
이 나라 하늘에, 바다에, 땅속에

깊은 지하의 막장에서
강철의 이발을 더 깊이 물리며
채탄기를 틀어쥔 탄부의 눈빛
폭포처럼 흐르는 석탄의 물결도
10 월을 향하여

깊은 밤
별들이 빛나는 하늘밑에서
태양의 배길을 헤쳐가는
설레이는 가슴들도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인적 없는 골안에 메아리치는
저 기관차의 기적소리도
10 월을 향하여

영광의 리정표를 더 높이 피여올리고싶어
그날의 대회장에 울려퍼질
감격의 그 환호성에
자기의 목소리를 더 보태고싶어
달리는 심장의 발구름

반세기 수령님 따라 걸어온
우리의 길, 주체의 길이
그리도 세상에 보람차고 긍지높아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온 나라 주체사상화의 거세찬 불길이
세월과 함께 가슴에 뜨거워
혁명에 성수나고
투쟁에 기세높은 우리 인민

영광에 찬 10 년, 당의 부름에
넘어온 승리의 봉우리들
우리의 자랑으로 솟아
강대한 사회주의공업국 인민의
크나큰 영예를 빛내여온 기쁨이어

털어도 털어도 끝이 없던
지난해 대풍의 벼날가리처럼
어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시여
우리가 거둬들인 창조의 열매
온 나라는 은금의 재부로 차고 넘치거니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주고받는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숨은 영웅들을 찾아냈다는 소문
나라가 흥하니
이 해따라 3 태자도 많다는 이야기

가는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곳마다
자기들이 맡은 일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긴다는 이야기...

종구나 흥성이는 나라여
나날이 명절같은 땅이어
당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 하나의 사상으로 뭉치니
충성으로 티없이 맑아지는

사람들의 마음
 세상을 놀래우며 솟아나는 기적속에
 어려워도 힘겨운줄 모르는
 우리의 로동이며, 창조여, 혁명이며

이 마음들이
 사회주의공업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또다시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친다
 기술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이며
 더 많은 새땅과 알곡을 안고
 더 많은 물고기와 철,
 더 많은 협동생산품을 안고
 달려간다, 10 월의 대회장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

울렁이는 가슴들
 당과 함께 숨쉬며 고통치는
 불타는 가슴들아, 가자, 10 월의 대회장으로

누리에 우뢰치는 감격의 환호속에
 대회의 연단으로 걸어나오실
 혁명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가자, 인민이며
 혁명하는 사람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주신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를
 인민의 이 의지, 철석같은 이 단결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떨치기 위해

가자, 10 월의 대회장으로
 10 월의 대회장으로!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라떨하다	벌려놓다, 늘어놓다-
라자식물	걸씨식물
라지오드라마	방송극
라제타	덱히개, 식히개(자동차에서)
라체	알몸
라태하다	게으르다
락과	떨어진 열매, 열매떨어지기
락광량	떨군 광석량
락반	천반떨어지기
락차	높이자
락하	떨어지기, 떨구기

본래말

다듬은 말

락하높이	떨굼높이
락하하다	떨어지다
락화생	땅콩
락화생유	땅콩기름
락엽수	잎지는나무
락엽지다	잎이 지다, 잎이 떨어지다...
란	알
란류	막흐름
란발하다	막쏘다, 마구쏘다, 마구떼다
란벌하다	막베다, 망탕베다, 함부로
베다...	
란사하다	막쏘다, 마구쏘다

빛나는 천리길

송봉렬

눈덮인 산밭에
백포자락 날리며
답사대원들의 긴긴 대렬
걸음걸음 마음들은 뜨거워지고
걸음걸음 생각은 깊어만저라

지나온곳을 보아도
눈에 묻힌 발자욱들
걸어갈 길을 보아도 깊숙한 자욱들
끝없는 생각처럼 끝없이 이어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렬은
가고 또 오고

저기 앞서 붉은 기발을 날리며
령을 넘는 소년단원들의 가슴에도
뒤를 따라 배낭을 추של러 올리며
산굽이를 돌아가는 내 가슴에도
그날의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따라
하나의 뜨거운 마음이 굽이치고
하나의 불같은 맹세로 뚫어오르고

바로 이 길이어라
사슬에 묶이운
조국의 아픔
조국의 분노
찾아야 할 조국의 래일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
그 이르신 나이에 걸으신 천리길이

내려쑤인 눈이야 그날의 눈과 다름있으랴
걸어가는 길이야 그날의 길에 다름있으랴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 이 길을 걸으시며
다지신 맹세로 꽃핀 이 강산
즐거운 삶을 누리는 오늘에
이 길을 걷는 가슴가슴
눈도 길도 크나큰 뜻으로 안겨와라

사나운 눈밭에 덮인 하늘가
천리길 따라오며 울려오던
토성랑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들으시며
오막살이 좁은 방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두고

한숨 짓던 그 부은 얼굴들을 그려보시며
눈보라길 굽이굽이 신들메를 조이신곳은
어디더나

오,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자욱을 따라
옮기는 걸음걸음 가슴은 울렁이고
그날의 근엄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고개 넘어 산을 넘어 걸어가는 이 마음에
수령님 다지신 그날의 맹세가 안겨오고

아득한 하늘 저 멀리
떠나오신 만경대사립문밖에서
터갈리신 손으로 짚신을 안겨주시던
할아버님,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의병들, 독립군들이 화승대를 물어버린
조국의 산밭을 둘러보시며
기어이 해방된 조국을 안아오리라
크나큰 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길이여

눈덮인 산밭
천리길 걸음걸음
이 길을 걸으시여
백두산 줄기줄기 주름잡으시는 수령님 영상,
이 길을 이으시여
오늘도 그 어느 산촌길을 걸으실
수령님 우러러 뜨거운 생각속에 걷노라

아, 그날에 수령님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이 길이있어
우리의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
즐거운 발걸음들이 환희에 넘쳐 걷는것 아닌가
그날의 눈보라길에 안고떠나시던
눈물어린 얼굴들에 웃음이 피어난것 아닌가

길이여
력사의 천리길이어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다져지고 이어지며
위대한 수령님 따라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가는 우리의 앞길에
영원한 천리길, 만리길로 빛나라!

4 월에 사는 마음

리금녀

새해
하얀 바람벽에 달력을 붙이며
온 식구 모두 마음으로 짚어본다
꽃 피고 새 우짖는 달
향기 높고 바람 훈훈한 계절

출근길
눈에 덮인 나무를 보아도
애어린 잔디를 보아도
가슴속 간절한 소원
꽃나무 모두 그날에 피었으면
온갖 잎새 그 아침에 푸르렀으면

딸애의 붉은넥타이
4 월의 그 봄날에 매어주고싶고
작업반 우리 돌격대의 이름
4 월의 봄의 명절 이름으로
불리우고싶은 마음이어

아, 만경대
태양을 안아올린
4 월 15 일이어
고향집 트랙에서
이 강산에 빛발쳐흐른
조선의 봄이어

은혜로운 그 봄의 숨결로
삶을 누리기에
우리 인민들 언제나 젊음에 넘치는것인가
만경대 봄의 향기를 지녔기에
우리 어머니들 가슴
언제나 사랑으로 따사로운것인가

천을 짜도 쇠물을 부어도
4 월을 두고 맹세다지기에
설달 저무는 한해과제를
4 월로 앞당겨라
먼바다 배길도
구름길 기관차의 두 줄기 궤도도
4 월로만 닿아있는 나의 조국이어

사철 4 월을 안고 사는 심장들
찬서리 새벽에도
탐스러이 열매 무르익히고
온 나라 어린이를 꽃으로 피우며
이 땅의 한해는
4 월에서 시작되고
4 월으로 향하며
밝아오고 또 밝아오거니

남 모르는 소중한 다짐도
4 월에 바치며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소원도
4 월에 다하며
가장 빛나는 날로 찬란한 날로
조국의 년대기를 펼쳐가는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날이어

어버이수령님 계시어
태어난 보람도
미래의 꿈도 내려쳐는 인민이기에
아, 온 나라 마음
언제나 꽃피는 계절
4 월의 봄명절에 살아라

언 제 나

김휘조

산그늘도 깊은곳 험한 령마루
어버이수령님 넘어오신 그 아침엔,
더 많은 석탄을 위해
멀고멀어도 오신것만 같아
아, 넘어오신 저 령을 그 몇번 바라보며
이 가슴엔 사무치던, 사무치던 생각
(우리 쌓은 석탄산 좀 더 높았으면
높은 령 또다시 안넘으셨을것을...)
밤은 깊어 찬이슬 소리없이 내리는데
멀리 제철소를 찾으셨던 수령님
휴식도 미루시고 령 넘어오신 그 밤에도
더 많은 석탄을 위해 오신것만 같아
아, 이 마음 온밤 그이결을 못떠나

가슴엔 오로지 차오르던 생각
(우리 쌓은 석탄산 좀 더 높았으면
휴식을 미루시지 않아도 됐을것을...)

무엇을 위해 뜨거우나
내 피줄에 흐르는 피
무엇을 위해 불타느냐
이 몸에 붙는 불

아, 착암기소리 산부리를 흔들어가는 나날에
이 가슴엔 언제나 간절한 생각
(저탄장에 석탄산
오늘은 얼마나 더 높아졌을가)

막장의 《제비》

김재원

파
아란 불꽃 날리며
갯도길 날아예는 막장의 《제비》
모자속에 살짝 감춘 짧은 머리태
빨간 수건 나뭇기누나
귀엽다, 열여덟살 전차운전공
네 모습 아직은 애티어려도
보화를 실어내는 네가 하는 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다 보고계신단다
지금 네가 올라앉은 조그만 운전실
저기엔 《만능보배함》 쟁겨져있고
꼬마수첩도 걸려져있어
자검자수 무사고로 소문났는지
사랑스럽다, 나이에 비해 생각도 깊은 처녀야
언제나 슬기로 빛나더라, 너의 눈동자
언제나 정열로 끓더라, 너의 그 가슴
네 호각소리에 탄캐는 사람들 새힘 솟더라

그렇단다, 처녀야
호각소리 울리는곳에 네가 있고
너 있는곳에

탄부들의 기쁨 설레이는구나

먼 동해바다가 현지도의 길에서도
탄캐는 사람들을 못내 생각하시며
어버이수령님 친히 보내여주신
생선차 도착했다는 감격의 소식도
처녀야, 네가 선창 전해주지 않았더냐
아아, 탄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혜의 해빛
언제나 막장에 실고가는 너의 기쁨속에
석탄더미는 강물처럼 흘러만 가더라

보람차다, 처녀야
네가 가는 길
네가 달리는 갯도길 수십리에
기적소리 요란히 울리진 않아도
새 7개년의 주타격방향에서
전차를 몰아가는 너를 향해
온 나라의 기관차가 모두 달려온단다
막장의 《제비》-조국의 기쁨아!

기쁜날에는

김흥권

강편이 흐르는

대압연장구내를

가시고 또 오시며

걷고 또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

불꺼진 용광로

녹슨 철관 밑에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날에는

그렇게도 호탕하신 웃음으로 일으켜주시고

허허벌판에 일어설

첫 기둥앞에서

우리들이 망설이던 그날에는

그렇게도 대담하신 발기로

날개를 달아주시더니

기쁨을 드리자고

진정 수령님께 기쁨을 우리가 드리자고

달을 줄여 날자를 줄여

강필비단을 줄줄이 밀어내는

오늘에 오시여서는

처음이신듯

첫 길이신듯

걸음걸음 새롭게만 보시며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여기 북변땅에

세상에 부럼없는

철의 대기지를 펼쳐주시려

그 몇번이시던가

찬바람 눈비를 헤치며 찾아오시기는

도면앞에 잠 못이루시기는...

아, 어렵고 힘든 일은 몸소 풀어주시며

오늘에도 이 끌어주시더니

강편이 쏟아지는 이 기쁜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주체화의 모범

현대화 과학화의 모범이라고

전국의 지배인들을 불러

이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모든 영광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강편이 풍기는 열기도 잊으시고

압연장구내를

가시고 또 오시며

모든것 처음이신듯 새롭게만 보아주시는

그 걸음 그 발자욱에

쇠물의 력사가 담겨있어라

조선의 력일이 담겨있어라

고향의 다락발 외 2 편

권창일

돌이 많다 돌메틀
피만 심었다 뒤피재
알봉, 개자리 이름은 있어도
가봉, 채금터 이름은 있어도

흐르는 물결에 조약돌이 씻기듯이
제살림 꽃피는 행복의 날들에
꽃이름도 잊히고 봉이름도 잊히여

산이라고
그저 산이라고만 불리우던
고향의 뒤산

오늘은 거기 층층 높은
100 정보 다락발이 펼쳐져
내 고향 강동 하리틀
온 나라가 다 아네

불어나는 봄물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
저 넓은 앞벌에 넘치여 설레이는데
풀덤불만 엮혔던 저 언덕에서도
만풍년의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은덕
그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마음은 뜨거워

내 고향 사람들 산에 올라
돌을 캐고 비탈을 메우며
층층 높은 이랑을 지었네

행복을 엮어들 당반인듯
스물두층 높은 층계
발목이 시도록 걸어도 못다 걸을
연연 280 리 길고긴 사래

그래도 아직은 처음 맞는 봄이어서
아직은 첫모도 내지 못한 하늘우의
발이어서
사람들 가슴만 설레이던 때

어버이수령님 찾아오시여
당의 구상 여기서 꽃피었다 그리도 기뻐하실제
수령님 뜻을 받은 기쁨에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에
고향사람들 얼마나 목메었던가

걸음걸음 새겨주신 사랑의 자옥우에
축복의 자옥우에
오곡의 숲은 자라고 이삭은 영글고
땀을 쏟고 지성을 기울여
해마다 더 큰 풍년을 가꾸면서도
보답하고픈 마음은 더 커만지는데
수령님께서는 또 해마다 찾아오시여
풍요한 수확을 기뻐해주시고

아, 사연 많은 하리 100 정보 다락발은
수령님 대지우에 기울이신 사랑의 탑인가
당에 드리는 이고장 사람들 마음의 높이인가

지금은 벌써
그 언덕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탁아소를 나와 유치원에 가는데
지평선에서 시작된 황금의 파도
산으로 치달아 하늘끝에 설레네
하늘에서 시작된 이삭의 물결이
층층계단 기름진 물결로 흘러내려
지평선을 터치며 파도쳐가네

이제는 다락발으로 소문난 고장도 많고
온 나라 산허리를 감돌며
풍요한 다락은 끝없이 뻗어가는데
그래도 하리 100 정보 다락발은
전변의 첫기슭에 언제나 솟아있네

아, 보고 또 보아도 다시 보고픈
고향의 다락발
그것으로 더 아름다운 내 고향 강동 하리
행복이여 꽃피여라
보람이여 빛나라

둥근달이 떴네

달이 떴네

층층 다락밭 황금봉우에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떴네

달빛은 하얗아
하늘을 채우며
다락밭 가득히 쏟아져내리고
다락밭도 잠 못 들어
우거진 나무숲인양
달빛에 어우러져 고요히 설레는데

그 모습 보고파 마을에선
집집이 창들을 활 열어제꼈네
봄, 여름, 가을에 올라 살아도
내리면 보고파 이마에 손을 얹는
아, 저기 어버이수령님 오셨던 그 포전
달빛아래 흰히 내다보이네

온 마을이 하얗게 펼쳐나
수령님 맞이했던 기쁨의 명절
몸소 해마다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도
하리에서 큰일을 했다 손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치하에 목매어서
행복에 감격에 눈물짓던 그 발이랑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뒤에도
마을사람들 흠어질줄 모르던 포전길이네
수령님 몸소 시계를 보시며
내림시간 재어보시던 그 삭도로
그 밤부터 퇴비를 실어올리며

천둥 울고 비오던 여름날엔
돌담이 무너질까 걱정하시던
사랑의 그 심려를 덜어드리고저
온 마을이 산에 올라 가슴으로 돌담을 받들고
섰더니

정을 쏟고 땀을 쏟고
가슴에 불안아 키운 강냉이밭이
이제 알알이 영근 이삭을 품고서서
불어오는 바람에 설레이는데

아, 달
다락밭의 둥근달
하늘도 땅도
금빛으로 녹아흐르는 가을의 달밤

수령님 바라시는대로
만풍의 열매 가꾸어놓고
보고보아도 또 보고싶은
달도 그 마음 알아서인가

수령님께 오직 기쁨만을 드리고저
낮이라, 밤이라 마음에 불을 켜고 다락밭에 살던
달은 정녕 그 마음 그대로인가

달이 떴네
다락밭에 둥근달
가을도 풍년가을, 우리네 마음도
대보름처럼 흰히 밝네

다락밭의 선녀들

금강산엔 팔담이 있다지만
내 고향 다락밭엔 열두담이 있다오
수정천 맑은 물 3 단양수로 퍼올려
사철 푸른 물 피어있는 산상의 호수

굽이굽이 하늘에서 뻗어내린 길로

구름속을 에둘며
내 고향 처녀들 다락밭을 내릴 때면
그 모습 그대로 금강의 선녀라오

날개옷 흰 얼굴은 아니어도
로동으로 활짝 핀 밝은 모습들

가는 손 칠현금은 타지 않아도
구슬같은 목소리 맑은 그 노래
폴마다 봉이마다 산울림하오

아름다운 꿈을 다락밭에 엮고
봄에는 구름우에서 영양단지모 키웠소
여름에는 빨간 《전진》호 몰아
부식토며 농약이며 실어올리며
포기마다 구슬땀 쏟아부었다오

아, 어버이수령님 오셨던 그날엔
수령님 옷설에 어린애처럼 매달려

말 못하고 자꾸 눈물만 글썽이더니
이제 흐뭇한 만풍년 가꿔놓고
이삭을 쓰다듬는 그들의 눈에
이제꿈 또 맑은 이슬이 빛난다오
충성에 빛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열정에 타는 근면한 로동을
금강의 선녀들에 어찌 비기리

내 고향 다락밭엔 오늘의 선녀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며
락원의 새 건설을 꽃피워간다오

동맹소식

소설가들의 새해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로 하여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또하나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수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도 주체적혁명문학건설에서 전진의 큰 자욱을 내짚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장, 중편 소설창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마련한 소설가들이 새해 정초부터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를 창작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한 소설가 변희근은 용해공들을 찾아 제철소로 떠나갔고 장편소설 《새봄》을 내놓아 해방된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을 훌륭하게 보여준 소설가 김규엽은 펜을 버려두고 김제원농민이 살던 재령벌로 달려갔다.

소설가 박태원은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다

음권의 추고작업을 다그치고있으며 소설가 황건은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소설가 엄단웅은 장편소설 《마천령》을, 소설가 김원종은 장편소설 《광명을 찾은 사람들》을 마지막고비에서 다듬고있다.

한편 소설가 김재규는 의료일군들의 공산주의적풍모를 보여주는 장편소설 《행복》을, 소설가 백보흠은 공업의 척후병들인 지질탐사대원들의 랑만적생활과 투쟁을 그린 중편소설 《탐사대원의 수기》를 창작하는데 온갖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나와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는 오늘 많은 소설가들이 그들을 찾아 현지로 떠나갔으며 참된 당일군들과 훌륭한 로동계급들이 살며 일하는곳으로 찾아갔다.

이밖에도 소설가 고병삼, 류벽, 김문화 등이 새작품 창작을 위해 줄기찬 탐구와 정열을 기울이고 있다.

독자들은 이해에도 훌륭한 장, 중편 소설들을 더 많이 받아안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래일에 사는 청년

리광식

유치원이란 한참 부잡스러운 아이들이 사는 집이고보니 늘 쓸고닦고하는데도 뒤가 없다.

금산마을유치원 립철순교양원은 오늘도 아침일찍 출근하여 앞뒤마당은 물론 방안까지도 깨끗이 털어내고 물걸레를 놓기 시작하였다.

그가 방안청소를 거의 끝내가고있는데 탁아유치원 식모로 일하는 국실이가 우유통을 들고 들어 오다가 범석 떠들었다,

《고저 우리 책임자가 일군이다. 거, 마당에 떡을 굴려두 일없겠구나.》

아들딸 다섯남매를 키워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처럼 몸이 실하고, 몸이 실한 그만치 말도 또한 많아서 동네에선 《방송국》이란 별명으로 통하는 녀자다. 그는 지금 축산분조에 들려서 염소젖을 짜들고 내려오는 모양인지 아래도리가 이슬에 폭 젖었다.

이곳 농산작업반축산분조에선 다른 집집승들과 함께 종자염소 10여마리를 보유하고있으면서 해마다 봄이면 새끼를 내워 고기도 생산하고 젖을 짜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공급하기도 한다.

《오늘아침엔 젖이 꽤창게 난 모양이군요. 아주머니 기분이 이렇게 좋은걸 보니.》

철순이가 얼른 달려나가 우유통까지 받아들자 국실이는 더욱 기분이 유쾌해졌다.

《응, 젖은 뭐 얼마 더 나질 못했지만 그럴만한 일이 좀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글쎄 인제부터는 우리 염소관리를 배나무집 그 적은이가 하게 됐대.》

국실이의 말에 우유통을 들고 앞서가던 철순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배나무집이라니요. 현이 오빠말예요?》

《그래그래, 오늘아침에 젖을 짜면서 박령감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우습던지 원... 글쎄 자기는 인제부터 밤나무골에 들어가 부림소방목을 하게 되는데 날더러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가끔 돌리곤 하라는거야, 호호호... 아이구 원 내가 글쎄 염병을 했다고 그령감 찾아 밤나무골엘 가겠어?...》

국실이는 가뜰이나 넓은 얼굴이 더욱 환해져서 떠들었다.

그는 원래 박령감과 사이가 그닥 좋질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박령감은 염소방목을 한다는 게 언제봐야 그늘밑에 앉아 담배질이라는것이다.

생긴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이라면 입에 넣었던 것도 빼먹일만큼 그렇게 잔정이 깊고 극성스러운 국실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할리 없는것이다. 그래서 만나기만하면 늘 티각태각하곤하였는데 그가 부림소방목공으로 조동되었다니 앓던 이 뺨은 것만치나 시원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철순은 이미 그의 말을 듣고있지 않았다.

현이의 오빠란 며칠전에 군대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중석을 말한다. 그는 총명하고 재빠르며 참새처럼 다사한 현이와는 남남사이라고 할만큼 그렇게 어리무던하고 용한 소년이었었다.

그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 고향역두에선 환송모임이 있었는데 철순은 그때 현이네 오빠를 입대자들의 대렬속에서 발견하고 비로소 한마디 나누어 볼수 있었다.

《현이 오빠 건강하세요.》

《응 잘 있어.》

그들은 곧 차에 올라 떠나고 그후 철순은 한두번 현이에게서 오빠가 전연의 어느 초소에서 원쑤들과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뿐이었다.

그랬던 중석이가 체대되어 고향에 나타났다. 바위를 엎어도 끄떡할것 같지 않은 장대한 체격과 적동색의 열정적인 얼굴을 한 그를 철순은 처음 알아볼수조차 없었다.

.....

《아니 이게 누구예요, 글쎄 이게 얼마만이에요?》

잠시후에야 중석을 알아본 철순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쿵쿵 뛰었다.

《허허... 그동안 잘 있었소?》

《우리야 뭐 잘 있구말구요. 현이 오빠가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는 무슨... 와보니 오히려 고향사람들이 수고가 많았더군.》

중석은 그늘밑 의자우에 걸터앉아 군모를 벗고 땀을 씻었다. 몸가짐이 여간 의젓하고 림름하지 않다.

우렁우렁한 목소리도 목소리이지만 성격은 또 얼마나 탁 트이고 대범해졌는가. 어질고 침착한 눈빛만을 제외한다면 어디에서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대단한데? 이진 농장자체의 힘으로 지었소?》
잠시후에 중석은 유치원의 날아갈듯한 학각지
붕과 추녀굽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건설이야 물론 농장투력으로 했지요. 하지만
자금과 자재는 모두 국가투자예요. 농촌건설이
모두 그렇지요.》

《음...》

중석은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무언가 깊은 감
동에 젖은 표정이다.

하기야 오래간만에 다시보는 고향이니 변하긴
들 얼마나 변했으랴, 그동안 그림기는 또 얼마나
그리웠을 고향이라.

철순이도 중석이의 심정이 헤아려져서 작업반
마다에서 유치원과 탁아소를 새로 건설하고 리병
원화를 실현하던 이야기며 세개 농장을 통합해서
일만톤급농장을 만들던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
다. 중석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깊이 들었
다.

그러던 그가 별안간 텅 빈 유치원뜰안을 휘돌
러보며 이상한듯 물었다.

《한데 유치원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이들은
다 어딜 갔소?》

《오침시간이에요요. 모두 잠들었어요요.》

《그래?》

중석은 얼른 일어나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모
포를 차던진 험상궂은 다리를 남의 배우에 얹은
채 체법 드렁드렁 코까지 끌며 자는 사내애들,
누가 빼앗기라도 할가봐 겁을 내듯 놀이감들을
품에 안은 소녀애들... 세상 모르게 잠든 아이들
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중석의 눈빛은
한없이 빛났다.

《모두 몇이요?》

《예순두명이예요.》

《예순둘이라... 저게 우리 마을의 미래로군. 하
긴 저것들뿐이 아니지. 학교에도 있구 또 저기
벌렁 벌렁 기어다니는것들두 있지.》

중석은 창앞에서 물러나며 취한듯 중얼거리었
다. 그리고는 주먹을 꼭 쥐고 마당을 거닐었다.

《내가 복무하던 전연마을에도 유치원이 있었소.
이따금씩 들리곤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구
내 마음은 또 얼마나 맑아지구 든든해지던지...
그때부터는 마가울 찬비를 맞으며 지새우는 잠복
근무의 밤두 별로 힘든줄 몰랐구, 또 그때부터는
웬일인지 고향생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유치
원이 떠오르더군... 철순동문 정말 좋은 일을 하
구있소.》

철순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과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그처럼 깊은 이해를 가지
고 있는 중석이가 가슴 울렁거리도록 고마왔던것
이다.

그런데 이날 유치원을 돌아보던 중석이가 놀이
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미끄럼대가 왜 이리 초라하우?이 건물
엔 영 어울리질 않는데?》

그는 길반이나 되는 미끄럼대앞에 서서 아래우
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가름목을 쥐고 슬렁
슬렁 흔들어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뉘큼뉘큼 발
판을 털고 올라가 주르르 미끄럼을 타보았다.

《흠, 미끄럼판을 이렇게 직선으로 해놓으니까
눈깜박할 사이도 없이 떨어지는군.》

중석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데 놀이터란게 이것뿐이요?》

《왜요, 저기 철봉대두 있구, 회전그네두 있잖아
요. 그리구 이쪽엔 수영장이에요요.》

《수영장?》

중석은 부쩍 호기심이 동하는지 이쪽에 좀 떨
어져있는 수영장으로 걸어갔다.

《아니, 이게 수영장이란말이요? 목욕탕이 아니
구 수영장이야?》

《... ..》

철순은 그만 얼굴빛이 발갛해져서 웃었다. 그
러거나말거나 중석은 세멘콩크리트를 해서 둘러
막은 수영장을 우쭐 파헤쳐 놀구기라도 한듯 팔
소매를 걷어올리고 빙빙 주위를 돌았다. 미간엔
불만스러운 표정이 더욱 짙게 어렸다.

그러나 그는 더 어찌지를 못하고 허리를 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철순동무, 대성산유원지를 가봤소?》

《...?》

《유원지에 있는 관성열차를 타봤겠지? 그리구
거 뭐더라? 회전비행기, 빠트, 회전바구니 그런것
들을 다 타보았소?》

《타보지 않구요.》

《타봤다? 거 그럼 이상한데?》

《뭐가말이에요?》

《글쎄 그걸 타본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렇게 해
놨다는게 좀 이상하단말야. 물론 대성산유원지같
은 놀이터를 여기다 그대로 꾸려놓을수는 없지.
그래두 한번 본을 따보겠다는 욕심이라두 있어야
할거 아니요.》

《아이참.》

철순은 중석을 대하는 자기의 감정이 점점 더
거북스러워짐을 느끼었다. 도대체 농장마을 유치
원의 자그마한 놀이터설비를 평양대성산유원지에
비기려드는 그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단말인가.

그러나 중석은 정말로 여기에다 어떤 굉장한
유원지를 건설해볼 심산인지 보통사람 장딴지만
큼이나 실한 팔을 다부진 허리에 딱 얹고 생각에
잠겼다. 검붉은 얼굴은 더욱 시뻘겋게 상기되고
자기의 창조물을 눈앞에 그려보는듯한 그의 두

눈에서는 빙글빙글 광채가 돌았다.

《호호호...》

철순은 그만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현이 오빠 정말 많이두 변했어요.》

《...? 》

《말하는거랑, 생각하는거랑 온통 구름우에 떠 있는 사람같아요. 》

《내가...? 아니, 철순동문 내 심정을 몰라...》

중석은 무언가 말할듯하더니 이내 단념해버린 듯 입을 다물었다.

철순이도 그가 자꾸 뜬소리를 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머리를 돌렸다.

《참 현이 오빠 이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아직 배치는 못받으셨지요?》

철순이의 이 물음은 대번에 중석이의 기분을 전환시켰다. 얼굴에 비졌던 그들은 씻은듯이 사라지고 어떤 새로운 희망과 신념으로 눈빛이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래 아직 배치를 못받았소. 관리위원장동문 뭐 한 열흘 쯤 쉬라나? 허허허... 어쨌든 우리같은것들이 어려운 모퉁이를 한도 막아야지.

한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직 결심이 서질 않는구만. 어디 철순동무가 말 좀 해보우.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적당하겠는지...》

《아이참, 거야 뭐 제가 어떻게...》

철순이의 가슴속에서는 중석이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기대가 되살아올랐다.

오래동안 조국의 초소를 지켜 성실히 복무해온 중석이와 같은 청년을 그 어디에선들 마다하랴. 희망만 하였더라면 그는 대학에도 갈수 있었을 것이고 변화한 도시생활의 한복판에 뛰어들수도 있었으리라.

아직은 어렵고 힘든 육체로동이 많이 남아있으며 문화수준 역시 도시에 비하면 펍 뒤떨어져있는 고향이었다. 하지만 중석은 그 고향을 가꾸자고 제대배낭 하나를 메고 달려온것이다.

철순은 중석이의 그 마음을 값높이 샀고 농장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선 빛나는 성과가 이룩될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았다.

한데 그랬던 중석이가 늙은이나 녀자들도 할수 있는 염소방목을 맡았다는것이다.

농장사업을 두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고향사람들의 크나큰 기대를 두고 것처럼 열렬하게 이야기하던 중석이가 아닌가. 더우기 지금 농장엔 젊은이들이 떠메고 나서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중석이가 그것을 외면하고 한개 농산반 축산분조에 속해있는 염소들을 방목하는것과 같은 일을 맡아안았다는 사실을 철순은 도무지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는지 알수 없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아마 국실아주머니가 잘못 들었을거야.)

애써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다시 걷는 철순이었으나 마음속은 간데없이 허전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오후였다,

철순이가 유치원뜰안에서 아이들에게 춤동작을 가르치고있는데 별안간 어디선가 《매애-》하는 염소의 코멘 울음소리가 날아와다.

《염소다!》-

원을 짓고 돌아가던 아이들이 담장너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바람에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 큰길쪽을 살펴보면 철순은 그만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염소떼를 몰고 지나가는 중석이의 모습이 가로수들 사이로 바라보였던것이다.

물날은 군복바지에 면내의를 입고 그우에 군복 옷웃을 벗어걸친 중석이가 제법 채찍을 휘두르며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른다. 그러다가 유치원 아이들을 보고 그러는지 철순이를 보고 그러는지 꺼떡 꺼떡 손을 흔들여보이기까지 한다.

철순은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고말았다. 모닥불을 들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중석이란 인간이 저런 사람이었던말인가?

《자, 여기 보세요.》

철순은 손뼉을 울려서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다시 춤동작을 익혀보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한결같은 어조로 구령을 반복하는 철순이었으나 가슴속에서는 무언지 모르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서려오르고있었다. 꼭 그 누구에게선가 까닭없이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제대군인 김중석이가 농산반축산분조에 있는 염소들을 맡아보고있다는 소문은 며칠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다.

그가 농산작업반에 속해있는 축산분조를 발전시키는 일에 한몫 단단히 하자는 결심을 품고 제석산골짜기로 들어간것이라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태반은 중석이의 소행을 좋지 않게 평가했다. 농장에 젊은이들이 몸적서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구태여 염소관리와 같은 일을 맡았다는것은 누가 시켰거나 자청했거나 간에 그 사람의 됴됨이를 짐작할수 있게 하는것이라고들 했다.

오직 국실이만이 그 모든 비난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서 시종 완강하게 중석을 두둔하였다. 국실이의 이런 비호속에는 물론 김중석이가 젖공급을 원만히 보장해주리라는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석이에 대한 국

실이의 이 소박한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박령감이 방목을 할 때보다 젖량이 높아지기는 커녕 점점 줄어만 드는것 같다고 머리를 기웃거리던 국실이 어느날 저녁엔 빈 우유통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어이구, 열길 물속은 알아두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이게 글썽 무슨 일이야?》

그는 철순이앞에 와서 실망에 젖은 목소리로 녀두리를 시작하였는데 알고보니 오늘은 젖짚시간이 한시간이나 지나도록 염소가 나타나지부터 않는다는것이다.

철순은 잠깐 생각해보다가 국실이의 손에서 우유통을 받아들었다.

《제가 좀 찾아보겠어요. 늦어두 젖이야 짜와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젖도 젖이지만 이 순간 철순은 중석을 한번 조용히 만나볼 결심이 섰다. 중석이가 염소 방목과 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자체도 여적 풀리지 않고있는데 그 일마저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하니 도무지 가만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중석이가 동네사람들의 말밖에 오르내릴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피로운 철순이었다. 어떤 땐 그런 자신에게 발끈 화를 내며 다시는 중석이의 일에 관심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다지곤하는 그였지만 그 결심은 다질 때뿐이고 누가 중석이의 말을 입에 올리지만 하면 저도모르게 신경을 도사리고 귀를 기울이며 헛되이 리해점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자신이였다.

지금도 염소우리가 울려다보이는 제석산밑에 이르자 철순이의 발걸음은 점점 떠졌다.

젖으로 말하면 국실아주머니더러 좀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짜가지고 내려오라고 일렸으면 그만 일것이다. 무엇때문에 내가 구태여 우유통을 들고 나섰더란말인가. 중석을 만나서 내가 할 얘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 일을 내가 중뿔나게 나서서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는것도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지만 인제 예까지 왔다가 돌아서 내려간다는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아니야, 알아봐야 해, 알아보는것이 뭐가 나빠? 중석동무도 중석동무이지만 현이를 위해서도 내가 그러는것이 옳아.)

그는 애매한 현이까지 여기에 걸어놓고나서야 조금 용기를 얻어 걸음을 내디디었다.

과연 산기슭에 이르러보니 기다랗게 늘어지는 우리안은 텅 비어있었다.

우리앞에 우유통을 놓고 난 철순은 발뼘발뼘 산 기슭을 톱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서해바다쪽을 등지고 남북으로 길게 앉은 제석산 이쪽 기슭은

벌써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오는데 인기척에 놀란 새가 가끔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를뿐 숲속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그런데 샘터를 지난 철순이가 한참이나 더 걸어 마을쪽으로 뻗은 룡선우에 올라섰을 때였다. 룡선말기에 자리잡고있는 집채같은 제석바위밑에서 뜻밖에도 절렁절렁하는 삽질소리가 들려왔다. 가독 나무숲을 헤치며 얼른 다가가 보던 철순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서는 지금 런닝샤쓰바람인 김중석이가 땀을 철철 흘리며 열심히 바위밑을 후벼파고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럴테지. 무슨 곡절이 있었구나.)

철순은 널뛰듯하는 가슴을 붙안고 선채 기쁨에 차서 중얼거렸다.

과연 중석이가 염소방목이나 하자고 이 산속에 들어왔을것인가?

아직 공개는 안했지만 그는 확실히 무언가 크고도 중요한 일을 남몰래 하고있는것이다. 하다면 일시적으로 못사람들의 오해를 산다거나 염소 젖짜는 시간쯤 조금 어긴것이 무슨 대수랴. 오히려 그것은 차후 중석이가 한 일을 더욱 빛나게 깊은 감동을 가지고 돌이켜보게 해줄것이다.

철순은 여적 막연하게나마 마음속으로 바라오던 중석이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오름을 느꼈다.

《중석동무!》

철순이가 소리쳐 부르며 달려올라가자 중석이 흠칫 놀라며 돌아다보았다.

《아니, 이게 철순동무가 아니요?》

《그래요. 한데, 여기서 뭘 하세요?》

중석이가 놀라거나말거나 철순은 또 이렇게 불으며 긴장한 시선으로 구덩이속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야 거기에는 철순이의 눈에 들만한 물건이라곤 없었다. 팔뚝같이 굵은 칩 한뿌리가 뻗은 옷몸을 드러낸채 깊이를 모르게 박혔는데 거기서 뻗은 줄기들이 바줄처럼 타래를 지으며 이끼푸른 제석바위우로 기여올라갔을뿐이다.

중석이가 저 칩뿌리때문에 해가 저물도록 삽질을 하고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의문과 호기심으로 뒤엉킨 철순이의 표정을 읽었던지 중석은 빙그레 웃었다.

《칩이요, 부식토를 좀 물어주자구...》

《네?!》

《이놈을 잘 키우면 아마 이 제석바위를 온통 뒤덮게 될거요. 염소 몇마리가 해종일 먹어두 못다 먹을수 있지.》

중석은 장한 일이거나 한듯 빙글거리며 구덩이안의 흙을 말끔히 걷어내고는 곁에 무저놓았던 꺼먼 부식토를 밀어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무독해진 부식토우에 흙을 덮고 공공 힘주어 밟

았다.

중석이의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철순은 그만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동문 정말... 정신이 있어요? 젓쌀시간이 언제 데 여기서 이러구있어요.》

철순이의 이 부르짖음은 중석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차...》

그는 삽자루를 내동댕이치며 팔목을 들어올리었으나 거기엔 시계가 없었다. 하지만 저 소나무 가지에 벗어진 옷주머니에서 언제 시계를 꺼내보며 꺼내본들 인제와서 그것이 무슨 소용에 낄으랴. 그는 제석바위밑에서 발견한 참치 한뿌리에 반해서 넋을 잃고있던 자신에게 화를 내며 산머리로 달려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우리에 내려가 있소- 내 염소를 물구 내려갈게.》

그는 등뒤에 이 토막난 말 몇마디를 남기었을 뿐이다.

철순은 억이 막혔던 중에도 모르는 사이 옷음이 나왔다. 처음에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다가 중석이가 산너머로 사라지자 마음놓고 한바탕 웃었다. 눈에 눈물이 찢끔거리도록 웃고나니 그래도 가슴속이 좀 후련해지는것 같아서 철순은 땅우에 덩구는 삽이며 소나무가지에 걸린 중석이의 옷웃을 벗겨들고 염소우리를 향해 걸어들어왔다.

뒤미처 염소떼를 앞세운 중석이가 내려오자 그들은 우리안으로 들어가서 젓을 짜기 시작하였다.

쿵쿵 마루를 구르는 발통소리, 새김을 뎀 짐승들의 어석어석하는 입아귀질소리와 기다렸다는듯이 앵앵거리며 날치는 모기소리들사이로 짹짹 젓을 짜는 소리가 울리었다.

《야, 그것 참, 언제봐야 그 냄새가 고수하단말야. 이걸 슬쩍 뿜어서 한모금 마셨으면 괜찮겠는걸...》

젓을 짜기 시작하자 중석은 아까처럼 급한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는지 발판우에 궁둥이를 댄 붙이고 앉아 중얼거리었다. 그는 아직 젓짜는 솜씨가 철순이만 못하다. 가뜩이나 손놀림이 굼뜨데다가 한손으로는 우유통을 댄 붙들듯하고보니 외손으로 젓을 짜는데 어떻게 하는지 시종 보슬비같이 가는 젓줄기가 끊으락 이으락한다.

대신 그는 입을 쉬지 않았다.

《철순동무나 나나 이런건 못먹구 자랐지. 전쟁이 끝나자 우리 부모들은 빈터우에서 복구건설을 해야 했구, 협동조합을 무어야 했을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못먹은 벌충을 인제라도 해야지.

이 좋은걸 왜 탁아소, 유치원에만 공급하겠소? 우리 급산마을에 있는 학교 학생들두 먹이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한테두 대접을 해야지.

야, 이놈 다리깅일 좀 가만 건사하구있어!》

염소가 다리질을 하는 모양인지 중석은 손바닥으로 놈의 엉덩판을 갈기였다. 그러나 엉덩판을 갈기는 그 철썹소리에서도 화를 내는듯한 그 목소리에서도 미련한 짐승에 대한 중석이의 다함없는 애무가 느껴진다.

철순은 잠자코 젓을 짜다. 도무지 대꾸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말로만 들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정작 염소우리안에 퍼더버리고앉아 병글거리는 중석을 보니 어찌면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다. 글썽 저처럼 젊음이 넘치는 사람이 어찌 이 산속에서 염소를 먹이며 툇뿌리에 부식토는 또 무슨 부식토란말인가.

말하는걸 들어봐도 그렇다. 분조에서 나는 것으로 학교 학생들에게도 더 먹이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도 대접을 하면 좋은줄이야 누가 모를텐가. 하지만 염소 여러문마리를 겨울내자해도 톤단위를 헤아리는 먹이가 있어야 한다. 작업반에서 철순이네가 직접 먹이던 젓짜는 염소를 축산분조의 비육용 염소무리에 편입시키고 거기서 젓을 공급받게 조치를 취한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중석은 그런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부쩍 열을 올려 한술 더 뜨는판이다.

《왜 젓뿐이겠소? 고기두 좀 더 넉넉히 생산해서 먹여야지. 그러자면 축산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해선 안돼겠소. 소와 돼지두 더 많이 기르구 양, 염소, 토끼와 닭, 오리두 대대적으로 길러야지.》

난 인제 우리 축산분조의 돼지우리를 한 50칸 더 늘일 작정이요. 그럼 모두 80칸인데 여기서선 년간 4백여마리를 살찌워낼수 있소.

그리구 돼지우리결엔 오리사를 짓구 오리사아래엔 양어장을 팔테요. 그렇게 해야 먹이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거던. 돼지가 먹다남긴건 오리가 먹을수 있구, 오리구유했을 양어장에 씻으면 물고긴 그저 자랄수 있단말이요.

중석이의 꿈은 바닥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인제는 젓짜 생각도 잊었는지 아예 철순이쪽으로 돌아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판을 벌리려 드는데 어둡시그레한 우리안에서도 그의 두눈은 열정을 담고 번쩍거리었다. 꼭 유치원놀이터앞에서 대성산 유원지를 그려보던 그 눈빛이다.

철순이도 잠시 넋을 잃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농장에 있는 축산작업반두 아니구 농산반에 속해있는 축산분조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릴수가 있어요?》

《아니 농장에는 마을이나 농산반들이 사방에 널려있구 그 농산반마다 축산분조를 갖고있는데 그대 고기생산에서는 축산작업반만 건너다봐야겠소? 까놓고 말해 우리 축산분조들에서까지 더 대대적으로 고기나 젖을 내면 우리 농장은 알곡뿐 아니라 축산에서두 단연 군적으루 엄지손가락에 꼽힐거요. 이게 뭐 어려운 일갈소? 난 별루 어려울것두 없다구 보우. 먹이 기지만 든든히 마련해 놓으면…》

《글쎄, 그게 문제지요. 먹이만 있으면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는걸 누가 모르나요?》

《그래서 난 우리 분조에서두 최을 가꾸자는거요. 축산작업반에서 최산들을 꾸려놓은것 맞잡이 루말이요.》

《네? 분조에두 최산을 꾸려요?》

철순은 아까 최뿌리에 부식토를 물어주던 일어 생각나서 은근히 놀래었다.

《그럼 제석산이 통채루 최녕쿨을 뒤집어쓴다구 생각해보우. 이제 면적이 근 천정보나 되는데 여기서만두 최년출을 얼마나 수확할수 있는가 하먼…》

중석은 나무꼬챙이를 얻어들고 땅바닥에 계산을 시작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한참후에 그는 이 제석산에서만도 수천마리의 집짐승을 길러 낼수 있다는 결론을 끄집어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우? 제석산이 돌산이라구 해서? 어떻게 하겠소. 우리 금산마을엔 제일 가깝다는게 돌산밖에 없는걸. 하지만 뿌리만 내리면 그 최이란놈이 오히려 돌산에서 더 본때있게 자라는것만 보우. 그래 이렇게 온 제석산을 최산으루 만들어두 먹이가 없어서 집짐승을 못기른다구 할수 있소?》

중석은 싸움이라도 걸듯이 잔뜩 흥분해서 땅바닥을 두드리었다.

《호…호호》

철순은 그만 입을 싸고 웃었다.

《호호호… 현이 오빠 정말 공상가예요.》

《공상가?》

중석은 픽 웃었다.

《말하는걸 보니 동무두 관리위원장과 같은 사람이로군.》

《네?》

《내가 돌산을 최산으루 만들어버릴 계획을 설명했더니 관리위원장동무두 날더러 공상가라구 함디다. 그래서 그때 한참 언쟁을 했지만 그제 글쎄 왜 공상이란말이요?》

중석은 화가 난듯 돌아앉아 젖을 짜기 시작했다. 쭈르륵, 쭈르륵, 젖짜는 소리만이 간단없이 울릴뿐, 중석은 더는 아무 말도 없었다.

《중석동무, 성났어요?》

젖을 다 짜고 밖으로 나오자 철순이가 물었다.

《아니, 성까지야 뭐…》

《좋아요, 그럼 여기 좀 앉으세요. 전 중석동무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이는 나란히 풀판에 앉았다.

《먼저 하나 물겠어요. 중석동문 구체적으로 최산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예요?》

《글쎄 그건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겠소, 우선 정보당 2천포기씩만 심자고 해도 뿌리가 문제거든. 통채루 축산작업반에서 도움을 받을수는 없구…》

《그것보세요. 당장 그런 문제부터 걸리는데 중석동무의 그 계획을 공상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전 중석동무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구 권고하고싶어요.》

《………》

《지금 우리 동네는 말할것두 없구 농장의 많은 사람들이 중석동무를 주시하고있잖아요. 터놓고 말해서 사람들은 중석동무가 이렇게 산에 올라와 염소나 물고 다니는걸 좋게 평가하구있지 않아요.》

물론 중석동무가 당장 최산을 만들구 여기서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게 된다면 오해는 인차 풀리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중석동무자신의 꿈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 그들의 오해는 오해가 아니라 가장 정당한 평가로 되고말거예요.》

《그러니까 날더러 일찌감치 물려서는것이 좋겠다는 소리군.》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현실적가능성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거예요.》

《글쎄, 그런건 따져볼 필요두 없단말이요. 하자고 달라붙으면 하는거지 못할게 어디 있소.》

철순은 입을 다물고 앉아서 잠시 중석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중석에게 자기의 심정을 납득시킬수 있을는지 알수가 없다.

《정 그렇다면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저두 중석동무의 그 꿈이 꿈으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철순은 간신히 이 한마디를 하고나서 얼른 일어났다. 머리에 우유통을 들어 이고 산길을 내리는 철순이의 눈에는 웬일인지 눈물이 솟을것만 같았다.

한여름에 접어들자 들은 들대로 청록색 비단에 싸이고 산에는 골짜기마다 구름처럼 우거진 숲으로 하여 으스스히 깊어져갔다. 그속에서 록음이 그대로 무르녹아 흐르듯 수정같이 맑은 물이

옥돌을 씻으며 구울러내리고 액체처럼 진하고도 청신한 대기가 개울가에서 피여오른 물안개를 떠 싣고 무겁게 흐느적거리었다.

철순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과 들로 야유회를 떠나곤 했다. 요즘 아이들의 교양과 건강관리에 새로운 열성을 가지고 대하게 된 철순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얼마전에 관리위원회에서 계획하고있는 금산마을 유치원놀이터 전망설계도안을 보았던것이다. 농장에서는 철순이가 책임지고있는 유치원을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놀이터건설을 새롭게 계획하였는데 어느날 수리작업반 반장이 철공, 목공 기술자들과 함께 설계도안을 가지고 들어와 놀이터의 부지며 개별적기구들이 설 위치 등을 확정하였었다. 그때 도안을 들여다본 철순은 환성을 올렸다.

…능수버들이 우거진 자그마한 섬을 중심으로 뿔뿔이 이루어지고 못가에서 뻗은 경쾌한 무지개 다리는 휘우듬히 섬에 뿌리를 내렸다. 못에서는 고기들이 꼬리를 치고, 그 못둘레로는 회전그네며 비행기, 철봉과 목봉, 수영장 등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았다…

이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가 정녕 눈앞에 현실로 펼쳐 지게 된단말인가.

《반장동무, 우리 농장 힘으로 이런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철순은 아무래도 미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반장이 기쁜 얼굴을 쳐들고 껄껄 웃었다.

《허허… 동무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군. 베풀지 왜 힘들지 않겠소.

하지만 리당비서동무의 말마따나 우리가 이런걸 만들지 않으면 뭘 만들겠소? 애써 농사를 짓구 건설을 하는것두 저것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꼭 만들어내야 하겠다는 결심뿐이요.》

《아이!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

철순은 반장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서 부르짖었다.

모두 우리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는 숭고한 하나의 리념으로 살며 일한다. 이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어린이들인가…

철순의 가슴속에서는 자기사업에 대한 새로운 긍지와 열정이 샘솟아올랐다. 그는 전보다 더 유치원을 알뜰히 꾸리고 아이들의 교육교양에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영양관리를 잘해보자고 결의하고 돼지도 한마리 더 가져다넣고 토끼새끼도 50여마리로 불렀다.

그러고보니 일은 갑절로 힘겨워졌지만 철순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바쁘면 바쁠수록 국일을 비롯한 다른 교양원들과 함께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날도 철순은 제석산기슭으로 산놀이를 떠나면서 바구니 몇개와 낫 한가락을 준비하게 했다. 개울물 흘러내리는 편편한 공지에서 철순은 아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며 숨바꼭질도 하고 토끼풀도 뜯으면서 오후 몇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해가 설핏해져서 내려가자고보니 토끼풀 바구니 몇개가 곱았다. 그는 함께 올라왔던 다른 교양원에게 아이들을 맡겨 내려보내면서 바구니 하나를 내들고 잠깐 개울섬을 더듬으며 산골짜기로 올라갔다. 키가 멀썩한 사라구며 껌플대, 씹바퀴, 찌리순같은것을 뜯어넣으며 한참 올라가던 철순은 문득 땅바닥을 훑으며 기여나간 칙년출을 발견하였다. 손가락처럼 굵은 칙년출은 쟁반같은 일사귀들을 떠이고 대여섯발 잘 되게 뻗었다.

철순은 반색을 하며 달려가 우선 만문한 순과 잎을 따넣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줄기는 그 하나가 아니고 여라문개 잘 되는데 제각기 산지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철순은 잎을 따넣고 어찌고 할것없이 아예 넝쿨채 걷어넣자는 생각으로 급히 낫을 꺼내 줄기 밑을 잘랐다. 그런데 정작 들어올리자니 땅바닥에 들어 붙은 년출이 떨어지질 않는다. 손바투있는 마디에서 우드득 소리를 내며 하얀 잔뿌리들이 검은 흙을 떠들고 일어난다.

《…?》

철순은 불현듯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줄기의 마디마디에 떠있혀진 흙밥들에서 어딘가모르게 사람의 손길이 느껴진다.

(혹시 중석동무가 가꾸는 칙이 아닐가?)

휘이 사방으로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철순은 몇걸음앞에 파헤쳐진 뿔건 흙구덩이를 발견하였다. 한데 거기에는 반나마 꺼낸 부식토가 차있는것이 아닌가.

철순은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 보았다. 과연 흙구덩이는 몇걸음사이에 하나씩 건 너편 룡선까지 펼쳐졌다. 이꼴리듯 룡선기슭을 톱아오르던 철순은 자그마한 바위우에 벗어놓은 낫 익은 군복저고리를 발견하고 멈칫 섰다.

모가나게 포개진 군복우에는 두툼하게 접힌 흰종이가 성냥갑만한 돌에 지질리여 이따금씩 스쳐지나는 바람결에 펄럭이고있었다.

얼른 펼쳐보니 그것은 책상웃판만한 넓이의 제도지우에 그린 지형도였다. 골짜기며 샘물터며 제석바위, 그리고 낫익은 오솔길이며 동물들을 통해 철순은 이것이 다름아닌 제석산지형도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지형도는 그외에도 산릉선과 골짜기들에 의하여 몇개의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철순이가 서있는 샘골구역에는 연필로 그려넣은 동그라미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아마도 그것은 구덩이를 파놓은 면적인것 같다.

그런데 띠엄띠엄 널려있는 빨간빛 동그라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한밤중의 불빛같은 그 동그라미들은 언젠가 중석을 만났던 제석바위 밑에도 있고 방금 철순이가 걸어올라온 개울설에도 몇군데 있었다.

순간 철순은 가슴이 뜨끔해지도록 놀랐다. 그것은 틀림없이 자연성장하는 칙포기들의 위치였던것이다. 줄기의 마디마다에 얹혀있던 흙밥들이며 넉출을 걸어올릴 때 땅을 물고 늘어졌던 하얀 잔뿌리들이 떠올랐다.

철순은 새 뿌리를 자래워 흙을 번식시키려는 중석이의 의도를 깨닫고 은근히 감심하였다. 그는 벌써 온 산관을 칙냉쿨로 뒤덮으리라던 자기의 꿈을 실천에 옮기는데 착수하고있는것이 였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단말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제석산을 통채로 집짐승들의 먹이더미로 만들수 있단말인가?

문득 숲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결을 타고 어디선가 쿵쿵 땅을 울리는 둔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순은 어떤 예감으로 하여 후둑거리는 가슴을 안은채 통선우로 뛰어올라갔다.

저멀리 수평선가까이에서 불타는 저녁해빛이 통선너머의 경사진 산기슭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속에서는 웃웃을 벗어제긴 웬사람이 맹렬한 기세로 곡괭이를 휘휘 두르고있었다. 중석이었다. 어깨와 목덜미에서는 땀이 흐르는 모양인지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 해빛을 발산한다. 그러나 그는 순간의 멈춤도 없이 땅을 찍고 또 찍는다.

그것은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지와 무서운 인내력을 지닌 한 인간의 처절한 격투이며 돌진이었다.

철순은 저도모르게 찌르르해진 가슴을 불안고선채 닭알같은것을 목구멍너머로 삼켰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멀리서 어렴풋이 들려오는것만 같던 프락프락의 발동소리가 귀청을 때리며 지척에서 울리더니 채석장이 있는 오른쪽 둔덕밑에서 불쑥 뻗진 차머리가 솟아올랐다. 《전진》호였다. 차체를 기울거리며 길도 없는 산기슭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그뒤를 수십명의 청년들이 적재함을 밀며 따라 올라왔다. 차가 멈추어서자 그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질척질척 적재함을 따던지고 실고온 꺼먼 부식토를 활활 땅바닥에 퍼

제킨다.

땅을 파는 사람, 목도를 해서 부식토를 메어나르는 사람... 골안은 별안간 청년들의 기세로 법석 끊기 시작하였다.

철순은 비로소 중석이의 열렬한 주장이 청년들의 가슴속에 끝수 없는 불을 지펴올렸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온 농장 청년들이 이 금산마을 농산반 축산분조의 일을 한결같이 도와나선것이 아닌가.

저처럼 온 농장 젊은이들이 펼쳐나설진대 중석이의 그 꿈이 어찌 꿈으로만 남아있으랴.

또 한패의 청년들이 프락프락을 앞세우고 올라오는것이 저 아래에 내려다보인다.

철순은 그만 쫓기듯 돌아서서 통선기슭을 뛰어 내려갔다. 아까 자기가 끊어던진 칙넉출이 생각났던것이다.

칙넉출은 벌써 잎이며 마디에서 돌아난 뿌리들이 시들시들해진것 같았다.

철순은 서둘러 줄기를 바로펴고 떠들린 마디의 뿌리들을 꼼꼼히 묻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잘리운 줄기밑등엔 벌써 맑은 진액이 방울방울 눈물처럼 내솟았다.

철순은 얼른 개울설에 자란 물버들가지를 꺾어서 껌질을 벗겨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마주낸 결단부위를 톱 톱 동여맸다.

그도 물론 그렇게 해서 칙줄기가 다시 이어지리라곤 생각할수 없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성실한 노력에 칼질을 한것만 같은 자책감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 했던것이다.

그런데 이날 산에서 내려오던 철순은 숲속길에서 웬 종이마리를 쥐고 마주올라오는 수리작업반 반장을 만났다.

《교양원동무, 산에서 중석동물 못봤소?》

반장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철순을 만나자 대뜸 이렇게 불었다. 그바람에 철순은 저도모르게 긴장해졌다.

《저, 샘터 맞은편 통선너머에 평지골이 있잖아요. 방금 거기서 봤어요.》

《그렇소? 마침 잘됐군...거 요전에 가지구 갔던 놀이터설계때문에 그러질 않소. 정작 만들자니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로군.》

반장은 철순이엿을 지나쳐 올라가며 중얼거리었다. 그 소리에 철순은 못박힌듯 굳어졌다. 놀이터 설계란 말이 웬 일인지 가슴에 푹 마쳐왔던것이다. 놀이터설계에서 제기된 문제가 도대체 중석동무와 무슨 관련이 있단말인가?

《반장동무!》

철순은 벌써 저만치 걸어간 반장을 소리쳐 불러 세웠다.

《그게 그럼 우리 유치원 놀이터설계예요?》

《그렇소.》

《한데 그걸 중석동무와 토론해요?》

《아니, 그럼 설계자와 토론하지 않으면 누구와 하겠소?》

반장은 오히려 이상하다는듯 눈이 휘둥그래서 내려다본다.

《네?!》

철순은 그만 머리속이 멍해졌다.

(설계자라니? 그럼 것처럼 훌륭한 놀이터설계를 중석동무가 만들어 냈단말인가?)

순간 그의 눈앞에는 도면에서 보았던 새 놀이터 전경과 함께 유치원을 찾아왔던 그날의 중석이의 열정적인 얼굴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결코 공상가가 아니다.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에 기초한 엄청나게 크고 숭고한 지향을 가진 인간이다...

반장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철순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인제야 내려오나?》

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앞을 막아서며 이러는바람에 고개를 들어보니 우유통을 든 국실이였다. 벌써 젓쌀시간이 된 모양이였다.

《참 염소는 다 내려다 댔던가?》

《아니요, 아직...》

그러자 국실이가 펄쩍 뛰었다.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이라던가 젓짜는 시간두 모르구?》

...좋아, 내 오늘은 말마디나 좀 해야겠어.》

국실이는 성이 났을 때 하는 버릇대로 치마귀를 걷어지르며 씩하니 철순이였을 지나쳤다.

철순은 뿌리가 내린듯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중석은 지금 수리반장과 함께 놀이터설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론하고있을것이 아닌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텐데...

잠간 생각에 잠겼던 철순은 국실을 불러세우고 달려갔다.

《아주머니, 지금 그를 방해해선 안되겠어요. 제가 후에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으니 지금은 내려가세요. 젓은 제가 짜오겠어요.》

철순은 국실이가 더 무어라고 할 사이도 없이 바구니를 안겨준 대신 우유통을 받아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제석바위뒤쪽에서 찾아낸 염소무리를 몰고내려와 한참 젓을 짜고있을 때에야 숨을 헐떡거리며 중석이가 나타났다.

《제길, 그놈들이 사람을 놀래우는군.》

염소무리가 우리안에 있음을 확인하자 중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는 염소떼가 없어진줄 알고 어지간히 놀랐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우리안에서 짹짹 젓짜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다시금 소스라치듯 놀랐다.

《아니, 이거 벌써 젓을 짜는게 안야?》

중석이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기웃이 우리안을 들여다보다가 희여스름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빌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저 수리반장동무와 토론할 문제가 있어서...》

아니, 글썽 토론할게 있으면 낮에 올라올것이 지 다 어두운 뒤에 찾아와서 성화가 아닙니까...》

《호호...》

철순은 그만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우리안의 발판우에 주저앉으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리무던 하고 용하던 소년시절의 중석을 다시 보는것 같았다. 저런 사람의 진속을 순간이나마 잘못 이해하였던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감으로 눈에는 눈물이 솟을것만 같다.

《아니, 그게 누구요, 철순동무 아니요? 그런걸 난 또...》

중석은 그제야 철순을 알아보고 제판에도 멧적었던지 껄껄 웃었다.

철순이가 젓을 마저 짜가지고 나오자 그들은 잠간 풀밭에 나란히 앉았다.

《어때? 철순동문 내가 이런 일을 하는게 못마땅스럽지? 어디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해보우.》

중석은 연기 자욱한 마을쪽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철순은 얼른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어딘가 깊은 고민에 젖은 표정이다.

하기야 중석인들 어찌 일부 사람들속에서 돌아가는 뒤소리를 모를수 있으며 마음 괴롭지 않을수 있으랴. 일에 달라붙었을 때에는 모르다가도 이렇게 호젓한 기회가 오면 불쑥 어린애처럼 마음이 연해지는 모양이였다.

《철순동무, 이해하랴구. 물론 난 염소방목을 언제까지나 말아보지는 않을거요. 하지만 우리 금산마을이나 우리 농장에 대한 내 꿈만은 앞으로 변함이 없을거야. 난 언제까지나 농장에 남아있겠어. 그리면서 내 쪽...》

《알고있어요. 저두 인젠 현이 오빠가 하자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란걸 알고있어요.》

철순은 울먹거리며 속삭이였다.

《그래?!》

중석이의 얼굴빛이 대뜸 환해졌다. 그는 구태여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세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던것이다.

중석은 벗어들었던 웃웃안살을 더듬더니 무언가 허연 물건을 철순이앞에 꺼내놓았다.

《아참, 깜빡 잊었뎡군.》

《아이, 이걸 산딸기가 안예요?》

철순이가 종이고깔을 헤쳐보다가 그안에 무드기 담겨진 탐스러운 딸기송이를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다.

새해결의

어린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작품을!

새해라 하면 시작이라는 말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하지 못한 일과 해야 할 일을 두고 새롭게 결심을 다지는것입니다.

저와 같이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작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 제6차대회를 맞는 보람찬 이해에 저는 어린 독자들을 위하여 중편소설 《잣나무동산》을 쓰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저는 소설에서 주인공 청삼이를 비롯한 소년단원들이 소문없이 고향의 잣나무동산을 무성하게

《그래, 벌써 익기 시작했더군.》

소리없이 떠오른 보름달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병글거리고있었다.

최병환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원수님께 바치는 리없이 깨끗한 충성심과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잡지 《아동문학》 300호에 실게 될 단편소설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 어린 독자들의 사상, 정서 교양에 이바지하려 합니다. 또한 저는 아동문학작가들이 어린이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 답사대에 편입되어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포령으로부터 만경대에 이르는 영광의 길을 걸으면서 진지한 현실생활체험을 하려 합니다.

부단히 쓰고 사색하며 들끓는 생활에 뛰어들어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인 참된 당의 아동문학작가로 자신을 더욱더 준비하겠다는것을 굳게 굳게 결의다집니다.

동심이 흘러넘치도록

림금단

어렸을 때는 나이 한살 더 먹는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좋았던지...

설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천진한 동심시절을 회고하면서 나는 지금 아이들과 벌여줄가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나이를 세여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동문학작가인 저에게 있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말입니까.

영원히 시대의 아이속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호홉하고 뛰놀고 창작적열정으로 끓어번진다면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똑똑히 인식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도록 교육교양하여야 합니다.》

저는 올해에 이역땅 일본에서 눈을 잃고 암흑속에 헤매이던 한 소녀가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안기여 광명을 찾고 세상만복을 다 누리게 된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서사시를 완성하여 어린 독자들에게 안겨주렵니다.

어린이들의 사상, 정서 교양의 친근한 벗이 되도록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아이가 흘러넘치는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어 가는 자동화의 기수

정철옥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는 철의 도시 송림시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었다. 경축관과 경축등 구호들이 제철소구내와 시내 곳곳에 세워지고 사람들은 명절옷차림으로 운동장으로, 문화회관으로 몰밀듯 밀려가고있었다.

노래와 춤, 체육으로 흥겹던 하루도 저물고 공장구내에 경축등들이 커질무렵이었다.

자동화직장 기술준비조장 변룡일은 머리를 수긋하고 구내를 나섰다.

그는 한걸음한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전에 본 규석직장내화벽돌 배합기의 육중한 동체가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그걸 자동화해야 한다.)

이미 한달전부터 모색해오나 뚜렷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평로천정 내화벽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던것이다.

배합기의 자동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보람찬 일이며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드는, 더는 미룰수 없는 기술혁신이였다.

그는 사색을 모으며 건다가 불현듯 사람들이 몰 밀듯 문화회관으로 밀려가기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그는 오늘저녁만은 휴식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쉬는 날에도 도면과 씨름하느라 변변히 구경도 하지 않은 그에게 있어서 문화회관은 못견디게 그의 마음을 유혹했으나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나에겐 아직 휴식할 권리가 없다. 매순간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만이 일생을 보람있게 살수 있지 않는가. 헛되이 흘러보낸 시간으로 하여 먼 후날 가슴아픈 자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매 분초를 충성으로 수놓아야 한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과 함께 새로 온 화보를 보던 안해는 나들이옷에 기름칠한 남편을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세 아이가 한꺼번에 그의 팔에 매달렸다.

《아버지, 어디 갔다와? 아버지 없어 기념사진을 못찍었다.》

《영철이아버지가 방금전에 아버지 데리러 왔다.》

아이들은 연신 그에게 말을 걸었으나 변룡일은 조용히 옷방에 올라가 책상에 마주앉았다.

안해가 조용히 그에게 권고했다.

《여보, 오늘만은 좀 쉬세요.》

변룡일은 수척해진 얼굴에 애써 웃음을 담고 안해를 보았다.

《할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겠소. 규석직장 자동화나 한 다음에 쉬지.》

《소결로 자동화를 한 다음에, 쉬겠다 하시더니 인젠 또 규석직장이예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이날 이때까지 배려만 받고 살았는데 보답해야 할게 아니요.》

안해가 아래방에 내려가자 변룡일은 책상에다가 앉았다. 책상우에는 새로 나온 기술잡지와 부피두터운 기술서적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이미 수없이 읽어보아 보풀이 일었지만 그는 사색에 잠겨 한장한장 번져나갔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가, 골똥히 책을 보던 그는 책상에서 물러앉으면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프락에 서있는 수양버들이 바람에 가지들 와수수 설레이고 문앞으로부터 펼쳐진 넓은 논밭, 다정한 들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피어난 들꽃향기가 반쯤 열려진 문으로 스며들었다.

벽시계는 어느새 두시를 가리켰다

누구에게나 휴식할 권리가 차례진 명절날밤을 그는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밝혔다.

그는 대학 전기설비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지만 정밀성과 현대과학이 집대성된 자동화부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생산규모와 공정이 복잡하고 거창한 야금공장의 자동화를 실현하기엔 지식이 빈약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와 당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전면적인 자동화의 봉화가 더욱 세차게 타오르자 변룡일은 주저없이 자동화기수들의 대오속에 뛰어들었다. 짹짹이 그는 자동화부문 책들을 탐독했다.

그때부터 그는 몹시 즐기던 구경도 뒤로 미루

었다.

당조직은 그에게 기술준비조장의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현장료해, 도면작성, 작업지시... 조장의 임무는 무거웠으나 그는 당조직의 위임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고 애썼다.

어느날이었다.

변룡일은 초급당비서로부터 격동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에서 황철을 자동화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침을 주고 귀중한 자동화설비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

아직 금속공장 자동화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나 변룡일은 당의 방침을 자로 하여 강철직장 자동화에 달라붙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때마다 당에서는 유능한 전문가들을 보내주어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었고 나아갈 길을 하나 하나 가르쳐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을 없애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점차 원격조종으로 넘어가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힘든 일과 고열로동에서 해방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는데 나는 기술자로서 무엇 한일이 있단말인가?)

그는 마음이 초조했다. 자기의 노력이 부족하여 아직 강철직장 자동화를 완성하지 못하는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그는 집을 지척에 두고도 평로 동음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현장 휴게실에서 밤을 새우곤했다. 현장휴게실은 강철직장 자동화를 힘있게 내미는 《참모부》가 되었다.

거기서 변룡일은 120여권의 기술서적을 탐독했고 수십매에 달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도면을 그렸다.

일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동화를 책임지다보니 작업배치와 작업총화를 해야 했고 기술협의회를 조직해야 했다. 그 과정에 그는 피로할대로 피로했으나 커다란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가면서 당의 방침대로 강철직장 자동화를 추진시켜나갔다.

이런속에서 그는 자동화의 진미를 알게 되었고 복잡하고 오묘한 자동화의 원리와 리치를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은혜로운 사랑은 빛나는 결실을 낳기 마련이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자동화기술자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두달만에 드디어 강철직장의 자동화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장입기의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간단없이 들려오는 열풍소리를 뚫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지령원의 갈린 목소리는 사라지고 장입과 출강, 로상태를 알리는 전파가 대기를 가르며 오고갔다. 하나 저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빈틈없는 준비밑에 운수통신의 현대화를 끝낸 저녁이었다.

현장을 돌아보던 운수종합직장의 한 책임 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겨 계단을 내리는 변룡일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갑니까? 쉬지 않고...》

《사별장에...》

《?...》

책임일군은 영문을 몰라 얼머름했다. ,

사별장 자동화를 위해 현장을 료해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 일군은 모든것을 깨달았다.

《오늘밤만이라도 쉬어야지요. 오늘이야 기사동무에게 제일 기쁜 날이 아닙니까, 》

《기쁜 날이자 새 대상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날이지요.》

《그렇기야 하지만 그러다 앓아눕겠소.》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그 일군은 말했으나 그런데는 아랑곳없이 변룡일은 사별장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기슭을 철썩철썩 치는 물결소리, 쉼- 밤대기를 찢는 열풍소리,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구내기관차의 목갈린 기적소리...

그가 현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뜻밖에도 초급당비서가 와있었다. 현장을 돌아본 모양으로 옷에 기름이 발린 초급당비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변동무가 여기로 올줄을 알았소.》

《어떻게 알았습니까?》

《매 순간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만이 일생을 보람있게 산다는게 변동무의 생활신조가 아니요.》

두사람은 마주앉았다.

대동강물결도 그들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가봐 조용히 방파제를 때리고 먼 하늘가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듯 쉬임없이 깜박거렸다.

《비서동무, 난 요즈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하루가 스물네시간이 아니라 마흔여덟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야 글썄 어떻게 하겠소. 자연의 리친절...》

그들이 사별장에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잠든줄로 았았던 기술자들이 달려왔다.

그리하여 현장에서는 당의 방침대로 사별장을 자동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기술과제가 작성되고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밑에 사별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자동화가 마지막단계에 이른 어느날이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변룡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무들이 달려와서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다.

그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변룡일은 간청했다.

《날 피롭히지 말아주오. 지휘관이 전투시에 대오를 리탈할수 없다는게야 나보다 동무들이 더 잘 알지 았소.》

모두 뜨거운것을 삼키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달려왔다.

처치실로 가자는 그들의 팔을 잡고 변룡일은 애원했다,

《30분후에 치료받읍시다. 그때엔 설비조립이 끝날테니까...》

마지막 조립단계에 들어선 설비를 지켜보며 변룡일은 불사신처럼 서있었다.

그는 아픈 사람같지 았게 줄곧 동무들의 일손을 지켜보며 작업지시를 주었다. 자력경쟁의 혁명정신과 헌신적로력으로 드디어 사별장의 자동화가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변룡일은 이에 결코 만족함이 았이 5.14직장, 환원단광직장, 소결로직장, 규석직장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에 착수하였다.

× ×

기술개조사업이란 팽혹한것이여서 한 개인의 피타는 노력과는 관계았이 전진도상에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할 때가 있다는것을 변룡일은 규석직장의 자동화를 위해 일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도면이 완성되여 설비를 제작하자니 애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는 높은 정밀성을 가진 평량장치와 평량에서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새 공급기의 제작이였

다.

전문 기계공장도 았인 제철소에서 그것을 만든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만은 기계공장에 의뢰하자거니, 어찌자거니 하면서 뒤에서 구구한 소리를 했다. 그렇게 되는 날엔 설비제작만 해도 몇달이 걸릴지 모른다.

그가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 모대기고있을 때였다.

초급당비서가 유능한 기계기술이며 당원인 구자길동무를 데리고 그의 방에 불쑥 들어섰다.

《변동무, 내가 구동무와 토론해봤는데 규석직장 자동화설비를 우리 직장에서 만들수 있다는만》

《?!》

변룡일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평량장치와 공급기를 정밀한 기계설비도 많지 았은 우리 직장에서 만들다니?)

그의 말이 쉬이 믿어지지 았았다.

의아해하는 그를 바라보며 구자길은 설비를 제작할 방법과 방도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럴듯했다.

변룡일은 그날따라 당조직의 방조를 뜨겁게 느끼면서 가슴이 몽클했다.

그날밤부터 자동화직장 한쪽구석 새로 꾸린 단조장에서는 밤새도록 마치소리가 그칠새았었다.

변룡일에게 있어서 그 소리는 백두밀림의 험준한 골안에서 작탄을 만들던 마치소리처럼 들려왔다.

× ×

변룡일은 황철을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다.

그는 지난 기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가르침에 충직했던것처럼 오늘도 충성의 한길을 드팀았이 걸어가고있다.

얼마전에 그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서 금속공장 구내철길작업에서 애로로 느끼던것을 자동화하였다.

바로 이런 당원, 숨은 노력가들이 있음으로 하여 대동강반 적재장에는 날에날마다 조국의 대들보를 더욱 튼튼히 할 강괴더미들이 높아가고있는 것이다.

그들이 가는길

안선옥

두메오리나무숲에 묻혀버린 산속 오솔길로 한 처녀가 가고있었다. 이름은 진연희, 나이는 스물 다섯, 호리호리한 몸매에 잘 익은 복숭아빛 얼굴의 처녀였다. 넥타이처럼 목에 두른 꽃수건이 처녀의 뒤통수에 함박꽃 세송이를 활짝 피워놓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푸른 나무잎새들새로 그 함박꽃이 잦아들기도 하고 불쑥 솟아올라 뚝뚝 떨어지기도 했다. 기쁨에 못이겨 종걸음을 놓는 연희의 마음도 그 꽃처럼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처녀연구사, 얼마 있으면 빛을 보게 될 논문을 원고지에 올리고있는 처녀, 그때문에 먼 산골원림연구소 본원에까지 찾아와 나무모를 가지고가는 처녀, 그것이면 그의 작은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게다가 그의 논문심사를 연구소에서도 실력가들 중의 한사람이라고 일컫는 오빠가 담당했다.

그는 행복했다. 어쩌면 자기들 오누이는 원림학이라는 높고 큰 대문을 향해 곧추 뻗은 큰길로만 사람의 선망에 찬 눈길을 받으면서 활개치며 걸어가는듯싶었다. 연희의 즐거움은 어느덧 코로 변했다.

볼타라 나의 희망 청춘의 열정이여...

언젠가 오빠가 배워준 노래였다.

즐거움에 노래도 하고 래일의 찬란한 꽃언덕에 자신을 세워도 보며 령길을 오르는 연희는 그러는새에 벌써 변덕 많은 산골하늘이 머리우에서 자글 대던 해빛을 말끔히 거두어버리고 납덩이같은 구름을 무겁게 그려안고있는줄 알지 못했다. 끝내 하늘은 요란한 우뢰소리와 함께 처녀의 아름다운 공상을 깨뜨려놓고야말았다. 그 우뢰소리는 차갑고 시원한 물화살로 변하여 머리우에 퍼붓기 시작했다. 비바람에 태질하는 숲은 동굴속같이 캄캄했다. 우우우- 어데선가 맹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연희는 번쩍하는것이 금방 뺨을 후려칠것만 같아 얼굴을 싸쥐었다. 그제야 그는 가방귀에 손전지를 찢어주면서도 래일 떠나라고 하던 연구사들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지름길로 접어든것이 여간만 후회되지 않았다.

(아, 이젠 어찌하나?)

흐느낌이 터지려하는것을 간신히 참고 크고 겁에 질린 눈을 딱 감은채 주위의 동정에 바짝 귀를

강구던 그는 그만 갑자기 몸서리를 쳤다. 바로 앞에서 와그르-돌사태가 일고 돌맹이들이 발치에까지 떼굴떼굴 굴러왔던것이다.

뒤이어 《어마나!》하는 녀자의 비명이 들렸다.

그 비명소리는 자기와 같은 길손이 곁에 있다는것으로 하여 연희의 마음에 어느정도 안정을 회복시켰다. 떨기나무가지를 휘어잡으며 그쪽을 향해 긴장한 걸음을 내딛던 연희는 전지불앞에 나타난 모습때문에 아연실색을 했다. 웬 처녀가 돌사태와 함께 비탈에서 떠밀리운 몸에 중심을 잡지못하고 가느다란 찌리나무에 의지해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순간 불빛을 느낀 앞의 사람이 필사의 힘을 경주했다. 나무가지를 끝내 분지르며 그는 소스라쳐 놀라 튀겨 일어섰다.

《누구세요?》

처녀는 주먹을 다잡으며 머리를 높이 들고 무척 태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도고한 기상과는 달리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는것이였다. 그는 공포에 몸서리치고있었다.

연희는 자기가 산짐승도 결코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것을 빨리 납득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상스레 가슴만 방망이질하고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다시금 맹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 《저... 저예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처녀를 공포에서 해방시켜주었다.

《아이, 그런걸 호...》

처녀는 마치 잃어버린 그 무엇을 도로 찾거나 한듯 기쁨에 겨운 소리를 내며 긴장이 풀려진 나른한 팔로 이마의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물참봉이된 처녀의 나이는 쉽게 대중할수 없었으나 연희보다 서너살 우인듯도 하고 어찌보면 그보다 더한듯도 싶었다.

《저...이쪽이 ...길인데요.》

연희는 처녀에게 길쪽을 가리켰다.

《아니 그저 좀...》

처녀는 조용히 웃으며 돌아섰다. 그제야 연희는 처녀가 금방 곤경을 치른곳을 보았다. 크지 않은 돌들이 산락을 따라 귀를 맞추어 쌓여졌는데 아직도 한쪽귀가 빈것으로 보아 채 쌓지 못한

모양이었다. 연희는 처녀가 길을 헛갈린것이 아니라 무더기비때문에 날수 있는 사태를 미리 막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처녀는 불빛의 혜택이 응당한것인듯 발치에서 돌들을 골라 재빠르게 마저 쌓기 시작했다. 연희는 자석에 끌리는 쇠볼이처럼 처녀의 손더듬을 따라 전지불방향을 바꾸기까지 했다. 알수 없는 힘이 연희를 꼼짝 못하게 끄당겼다. 마지막으로 쌓은곳을 흔들어보고서야 처녀는 연희쪽을 알은채했다.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방금전까지만도 날이 선 칼날갈던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연희는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려다 말고 빙그레 웃고말았다. 무슨 일때문인지 모르나 이 산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돌뚝을 쌓고있는 처녀에 비하면 어쩐지 자기의 생활은 혼향이 싱그러운 오월의 꽃언덕을 걷고있는듯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연희는 자신에 대해서는 린색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후하게 알고싶었다. 그에게는 이 깊은 산속 끝없는 고요와 몸서리나도록 음침한 수림속에서 사람이 살고있다는것조차가 신기하고 의심스러웠다.

삼시에 녀성이라는 공통성이 그들을 어깨나란히 하여 길가에 내세웠다.

언제 그랬느냐싶게 떼구름은 사라지고 총총한 못벌들이 머리우에 한가득 널렸다. 산골날씨는 또 한번 번덕을 부렸던것이다. 한줄금 바람이 스쳐지날때면 나무잎새들에 맺혔던 비방울들이 그들의 어깨우에 후둑후둑 휘뿌려졌다. 어데선가 잠들지 못한 밤새가 조용히 울었다.

처녀는 연희가 군으로 새벽차를 타러 간다니 마침 뻘뻘했다고 기뻐했다. 자기와 함께 더운데서 폭 쉬다가 새벽에 군에서 나무모 실으러 오는 차를 타면 된다는것이다. 안기고싶도록 따스한 인정미가 폭배인 처녀의 말은 연희를 무척 고맙게 했다. 어쩔 이런 언니가 이 험한 산속에 살수 있으랴. 연희는 속삭이듯 물었다.

《언니, 정말 이 산속에 살아요?》

《왜요, 못살것 같아요?》

《아니, 그저 호…》

처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세요?》

처녀의 대답보다먼저 전지불빛에 《자연보호구》라고 쓴 표쪽이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처녀는 추곡원림사업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는 도에 회의갔다 오던길에 비를 만났다는것이다.

한참이나 걸었는데도 길은 끝없이 뻗어만갔다. 그의 초초한 마음을 룽감으로 느꼈던지 처녀는 방싯 웃으며 연희의 팔을 이끌었다.

《저길 좀 보세요!》

처녀의 손끝 멀리 어둠이 짙 들어찬 검은 바다

같은 저쪽에서 반짝이는 한점의 불빛이 보여왔다. 그 불빛은 그들을 향해 마주오는것 같기도 하고 어디론가 쫓겨 달아나는듯도 했다.

《어마나, 이 산속에 웬 불빛이예요?》

《왜요, 놀라와요?》

《아니 그저…》

《그게 바로 우리 집이예요.》

《네-에?》

연희는 오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처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구머니나…》

(이런데서 정말 사람이 살아요?)

연희의 손은 이런 말을 대신하고있었다.

《자, 가자요. 왜 그러고있어요?》

우두커니 섰던 연희는 그가 손을 이끄는대로 경황없이 뒤따랐다. 그는 마치 꿈속길을 걸어가는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단발머리시절에 할머니의 무르팍에 앉아 모기를 쫓는 향기로운 쑥내를 맡으며 《옛날옛적 어느한 깊은 산속에…》 하는 옛말을 듣는것만 같았다. 처녀는 마치 그 옛말의 주인공 같고.

아니, 그것은 옛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연희는 꿈을 꾸는지 동화속을 걷는지 어리둥절한채 말없이 뒤따르기만 했다.

×

×

순녀가 내주는 옷을 갈아입고 추위와 피곤에 물려 깊은 잠에 빠졌던 연희는 문가에서 무엇이 웅 웅 울어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깬다. 그는 소름이 끼쳐움을 느끼며 옆자리부터 보았다. 함께 뜨끈한 아래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던 순녀는 온데간데없고 격자무늬이불만이 몽그러져있었다. 또다시 웅 웅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긴장하여 바깥동정에 귀를 모았다. 알고보니 문풍지소리였다. 제깎에 놀라난것이 우스웠다.

그는 무심결에 전등불이 환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천반의 도배며 장판이며 그리고 엄나무로 무은 창문틀에 이르기까지 은근한 중간색들로 조화를 이룬 집은 창턱에 꽃혀있는 산국화마저도 보라빛을 띠고있어 모든것이 순녀라는 이름처럼 착하고 부드러운가 하면 다정하고 따스하기까지 했다. 천정 한칸구석으로 방울나무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씨앗주머니들이며 지어 크고작은 책들이 빼곡한 책장 유리문에 종이그림을 따서 붙인 두마리의 사슴까지도 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어서 오세요, 이 산골에까지 와주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는것 같았다. 책장 맞은켠으로는 난쟁이저울이며 천평이 있고 그에 련달려 쥐면 바스러질것만 같은 시험관들과 옛가락같이 구부러진 갖가지 실험설비들이 주렁했는데 불빛에 그것들이 신비스런 광채를 뽐냈다. 집안이 온통 도서관

이나 실험실 같기만 하고 처녀의 애용품이나 맵시있는 옷가지들이 든 트렁크따위들은 보이지조차 않았다.

한참이나 일없이 도간도간 끊기는 문풍지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연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피씩- 웃음이 나왔다. 산골은 산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그러문요, 그러문요.》

그 문풍지소리가 이렇게 대답하는듯했다.

그러던 연희는 책상우에 깔린 두터운 유리아래 연한 풀색바탕을 배경으로 끼워놓은 사진을 보았다. 무심히 사진에 눈길을 주던 연희는 가뜩이나 큰 눈이 울롱해졌다.

(오빠가?)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둘이라 싶어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았다. 대학생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러명의 학생들이 찍은것인데 가운데 앉은 사람이 오빠였던것이다. 눈에 익은 사진이었다. 연희는 오빠의 사진첩에서 이 사진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놀랐다. 오빠결에 나란히 앉은 처녀대학생이 바로 순녀였기때문이다. 설마하는 생각에 다시 보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동실한 코 그리고 약간 두터울사한 입술, 쌍거풀이 없는 작은 눈, 어딘가 뽀얀해보이는 표정... 틀림없는 순녀였다. 흔히 사람들이 《곰다》는 느낌의 표상속에 들여세울만한 녀자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순녀는 《곰게 생긴 처녀》는 아니었다. 집에서는 늘 사진을 스쳐보면서도 짐체사진을 대할 때 항용 그러듯 오빠의 얼굴만 찾아보곤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일에 부닥칠줄이야 그가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그런데 어떻게 이 산골에까지?

연희는 가늠할수 없는 수수께끼를 안은채 끝내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데 갔는지 알수 없는 순녀를 만나고싶었다.

연희는 발끝걸음으로 마당가를 나섰다.

밤껏 다져졌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며 동녘이 푸르끼레해지고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있었다. 이따금 하늘을 배경으로 우중충한 성곽처럼 보이는 산 저쪽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숲이 미풍을 안은 바다처럼 조용히 설레군했다. 그것도 순간이고 다시금 교묘가 깃들면 숲은 자기의 존재를 잊고 단잠에 드는듯했다. 아직은 잠을 갠 산새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맑고 상쾌한 대기가 폐부속으로 흘러들었다. 연희는 삽시에 피곤이 사라지고 온몸이 날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였다. 연희는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있는것을 보았다. 웬일인지 거기에

는 순녀가 있을것 같았다. 만나고싶은 마음이 앞서 모닥불로 다가가던 연희는 그만 굳어졌다. 모닥불옆에는 갓 지은듯 나무가지들이 아직도 심심한 초막이 있었는데 바로 그 초막기둥에 몸을 엮비스듬히 기댄 순녀가 잠들어있었다. 물날은 국방색 겹옷을 걸친 순녀의 손에는 자그마한 삽이 쥐여져있었다. 밤새 구슬땀을 흘렸을 순녀의 수고를 말해주듯 모닥불 저편으로 부식토더미가 무두룩했다. 불빛때문에 감빰으로 보이는 순녀의 얼굴에는 그 랭정한 표정은 간데 없고 조용히 미소가 일고있었다. 새벽이슬인지 비방울인지 모를것이 이따금 순녀의 얼굴에서 구슬알처럼 반짝이 다가는 없어지곤 했다.

연희는 무엇인가 후더운것이 목구멍을 메우는듯 했다. 결코 고운 처녀는 아니라고만 생각했던 순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만 보여왔다. 순녀라는 그 이름속에는 착하고 부드러운 그것에는 비길수도 없는 무엇인가 숭엄하고 뜨거운것이 꼭 차있는듯했다. 그러한 생각이 강렬해질수록 순녀의 전부를 알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연희는 모닥불더미에서 벌건 불덩이들을 골라 순녀가까이로 옮겨놓고나서 겹옷을 벗었다. 순녀 몸에 그것을 씌우던 연희는 그만 미안하여 얼굴을 붉혔다. 순녀의 잠을 지켜준다는것이 오히려 깨워버리고말았던것이다. 와플 놀라 손에 쥔 자그마한 삽을 떨구어버린 순녀는 연희임을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불가로 이끌었다.

《왜 자지 않구... 이쪽에 와앉아요. 거긴 바람이 불면 춥다니까...》

그러며 순녀는 얼른 겹옷을 벗었다.

《아마 지금쯤 도시에선 사이다를 먹겠지만 여기선 이게 필요해요.》

한사코 사양하는 연희의 잔등에 겹옷을 씌운 순녀는 또다시 손삽을 들고 부식토에 미량비료를 섞기 시작했다.

《언니, 쉬지두 않구. 그런데 왜 이렇게 한지에서...》

《응, 나무모발에 짐승이 들가봐...》

그러던 순녀는 자기 일을 거침없이 도와주는 연희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아니, 그건 언제 배운거예요.》

연희는 더는 자기를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잊을수 없는 학창의 추억이 깃든 모교의 하급생이며 같은 학부 같은 과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자기의 짧은 이야기를 듣고 순녀가 그렇게 기뻐하리라고는 연희로서도 미처 생각지 못하였었다.

순녀는 자기가 지금 비료를 섞고있다는것도 잊은듯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감작한것, 왜 진작 말하지 않구!》

순녀는 단숨에 대학의 일들이며 여러 선생님들의 안부를 물었다. 연희는 아는것 대답을 했다. 순녀의 즐거움이 까닭 없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러던 연희는 이젠 자기 차례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꼭지를 떼기 힘들던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

《언니, 한가지 물어봐도 좋아요?》

《그럼.》

《언니, 대학을 졸업한지두 퍼그나 오래됐겠는데 어떻게 되어 여기로 왔는데요?》

《어떻게 왔는가구?》

순녀는 웃음을 거두었다. 연희는 그의 얼굴에서 그 무슨 잊지 못할 추억을 헤쳐가는 마음의 번거로움을 힘들지 않게 읽을수 있었다. 가늘게 쪼프린 순녀의 눈길 이 모닥불에서 튕겨난 불씨에 멎었다.

《언니,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요.》

순녀는 속눈썹을 조용히 치켜들고 연희를 바라보며 서글프게 웃었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너무나도 하는일없이 단조로운 반생을 지나왔는데… 호…》

물끄러미 불씨를 바라보는 순녀의 눈에 추억의 그늘이 비졌다.

호수같이 그윽한 그 눈이 불빛에 반사되어 황탕타는것만 같았다.

한동안 모닥불주위엔 정적이 깃들었다.

초막안 어데선가 도간도간 끊기우던 풀벌레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수림은 죽은듯 고요했다.

순녀는 좀처럼 열리지 지 않을듯 꼭 다물었던 입술을 조용히 열며 미소를 머금었다. 가슴속에 자기만 아는 비밀을 묻고있는것이 처녀들이라하면 또 그 비밀을 필요한 순간에 헤쳐놓고싶어하는것도 처녀들이랄가 그것으로 위안이 되고 자기를 다듬어 세울수 있다면 지금 순녀의 경우가 그러했다.

《연희두 사랑을 해본적이 있겠지?》

무엇인가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을줄로만 생각하던 연희는 뜻밖의 물음에 얼굴이 빨개졌다.

《아마나, 난 그런것 몰라요.》

연희는 긴 나무가지로 불을 헤집으며 밍지 않은 눈길로 순녀쪽을 흘겼다.

《지금은 부끄러울테지… 그러나 그것이 더없이 숭고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추억이란 아름답다고들 하는지도 모르지…》

《언니…》

연희는 웬일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몇삽 비료를 떠던 순녀는 조용히 말을 이

었다.

《지금 연희는 미래에 대한 환희와 랑만의 꿈속에만 묻혀있을테지. 얼마나 좋은 시절이야. 나는 그것이 부러워.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난 내가 택한 이 길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 사랑마저도 미루구 택한 길이지만…》

《네?》

연희는 순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눈길을 떨구었다. 그 얼굴은 어찌도 심각하고 근엄 했던지 감히 마주할수조차 없었다. 연희는 짜릿한 그 무엇을 온몸으로 느끼며 머리를 숙였다.

《그것은 내가 연구소에서 한해세월을 보낸 어느 여름날에 있던 일이었어. 우리 실에는 나와 가까운 한 동무가 있었어. 그 동무의 이름은 진명수라고 했어.》

《네-에 ? 진명수라니요?》

연희는 놀랐다. 오빠의 이름이었다.

《왜 그래?》

《네… 아… 아니…》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듣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걱정스러웠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성 있게 마지막까지 들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때문이었다.

순녀의 목소리는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물처럼 잔잔하기도 하고 조약돌을 굴리듯 돌돌 구울기도 하며 연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명수동무는 먼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나를 마중해서 역에까지 나왔더랬어. 우리 둘이 함께 준비하고있는 학위논문때문에 먼 산골길을 다녀온 나의 수고를 그는 아낌없이 치하해주며 논문이 불원간 해빛을 보게 됐다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어. 그 논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학시절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온것이였으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합숙으로가 아니라 강변으로 옮겨졌어. 물새들이 배전에 물을 차며 날구 서늘한 강바람이 낮동안 더위에 시달린 자연의 밤을 조용히 씻어주는 아름다운 밤이었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이 강변길에 정 들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것 같애. 그 이야기들의 중심은 언제나 학계에서 이름을 날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것들이었어. 바로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는데 명수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니.》

연희는 순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강변길에 정 들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것 같애. 그 이야기들의 중심은 언제나 학계에서 이름을 날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것들이었어. 바로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는데 명수동무는 얼마나 기뻐했니.

여느날같으면 나는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그의 말을 황홀하게 들었을게야. 그러나 그날은 그렇지 못했어. 그날 꼭 명수 동무에게만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슴이 설레기만 하고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어. 묵묵히 따르기만 하는 나를 의아쩍게 여긴

명수동무는 오늘은 왜 그리 심각한가고 웃으며 물었어. 정말 그의 말처럼 난 심각해있었던것 같애. 난 대답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 내 결심은 이미 준비된것이였기때문이였어. 다만 근심스러운것은 그 결심을 명수동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것뿐이였어...》

연희의 가슴은 또다시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순간 한번도 자신은 꺾어보지 못했으나 책에서도 읽어보고 또 많이 들어오군하던 청춘 남녀들에게만 있을수 있는 그 어떤 귀중한 문제가 상정되고있다는것을 예감했다. 그 대상이 바로 혈육인 오빠라는데 방점이 찍혀지자 연희는 자신이 금방 그 일을 겪는것처럼 가슴이 빠근해졌다. 그러나 연희는 이내 자기의 생각을 고쳐야 했다. 순녀는 그와 정반대의 말을 했던것이다. 《...난 마음을 겨우 진정하며 명수동무를 바라보았어. 부드럽고 따스한 그의 눈길이 내 온몸을 어루만지고있었어. 저런 명수동무라면 나의 제의를 쾌히 승낙할것 같았어. 나는 용기가 생겼어. 〈명수동무, 난 래일 연구소에 제기해서 추곡으로 가겠어요.〉

〈아니, 이제 금방 다녀오구두 그 산골엔 뭇하러 또 간단말요? 그러잖아두 동무가 약속된 날자에 돌아오지 않아 난 속을 태웠더랬소. 혹 산속에서 길이라두 잃을가봐...〉

그는 웃으려다 말고 정색해졌어. 여느때같으면 그쫄한것은 톱담으로 받아들일수 있었던 내 얼굴 표정이 하도 심각하였던것 같애.

〈명수동무, 출장정도가 아니예요. 아주가겠어요.〉

그는 달빛에 비낀 나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던지 흠칫 놀라기까지 했어.

〈아니, 동무 정신있소?... 거기가 어디라구?〉

나는 그때 명수동무에게 내가 왜 이처럼 바라던 연구소를 마다하구 이 깊은 산골로 조국의 지도에도 행정구역명칭조차 밝혀지지 않은이 산골루 갈 결심을 하게 되였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였어...》

어데선가 딱따닥딱 나무쫓는 소리가 들렸다. 딱따구리가 밤벌레 사냥을 나온 모양이였다. 초막안에서 울어대던 풀벌레가 자리를 옮겼는지 저쪽 나무가리속에서 다시금 쓰룩쓰룩 소리가 들렸다. 잠시후 딱따구리도 풀벌레도 조용해졌다.

순녀는 긴 숨을 모두더니 연희의 손을 가까이 꼬당기며 말을 이었다.

...순녀가 론문에 필요한 나무모를 가지러 추곡의 산판으로 올라왔을 때는 울창한 나무가지들 새로 스며든 해살이 땅우에 금실처럼 늘어지던 한낮이였다. 하늘을 들어올리며 봉우리들을 솟군 협한 산세는 들은것보다 더 어마어마했다. 숲속

에 들어서면 그렇게 넓다는 하늘도 거울쫓각만 했다.

이곳의 주인은 구례수염이 난 아바이였다. 이미 년로보장나이가 지났어도 원림사업소와 자식들의 강경한 요구를 뿌리치고 산을 지키고있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인지 로인은 첫순간에 순녀와 친숙해졌다. 사람이 그리운 산중에서 홀로 있는 아바이는 순녀가 온것을 마치도 오랜 장마뒤의 해빛 만치나 좋아했다. 필요한 나무모부터 마련한 순녀는 산판을 구경하려고 다리쉽도 없이 아바이를 따라나섰다. 저녁때는 내려가야 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고산지대의 중요식물들뿐만아니라 약초들까지 수천종이나 옮겨다심은 산판은 완전히 하나의 큰 식물원을 련상시켰다. 아바이의 극성스런 손길에 잘다스려진 산림은 질서정연한 위병대의 서렬을 방불케 했다. 이제라도 《앞으로 갓!》하고 구령을 내리면 착착 발을 맞추며 순녀를 향해 온 수림이 움쉴움쉴 다가올것만 같았다.

바늘잎같은 잎새들을 금방 꼭꼭 찌를듯 펼치고선 가문비나무, 종비나무숲을 지나니 잣나무밭이 펼쳐졌다. 그사이로 다래덩굴이 엇가락처럼 뱅뱅 꼬이며 올리뻤었는가 하면 머루넉출과 오미자가들이 엇섞여 푸르고 붉은 열매들로 꽃수를 놓았다. 누운 측백, 곱향나무들도 어디 한번 겨뤄보자는듯 키돋음을 했다.

순녀는 한포전 한포전 넘어설 때마다 두툼한 사전을 한장씩 번지는것만 같았다. 아니 그것은 사전의 짧은 설명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했다.

순녀는 시간이 너무 제한된것이 안타까웠다. 그 귀중한 보물들을 단숨에 들이키지 못해 속이 달았다.

그 다음은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밭이 펼쳐졌다. 악수를 청하듯 넓은 잎사귀들을 펼치고선 두메오리나무며 산오리나무들이 렬을 지었다. 비행기활주로같이 편편한 등판에는 노전잎같은 규격포전들이 펼쳐졌는데 거기에도 갖가지 여러해살이 풀이며 약초들이 심어져있었다. 산중의 온갖 식물들이 달음박질내기를 해서 여기에 다 모인것만 같았다.

아바이는 자못 흥에 겨웠다. 자기의 성실한 손끝에서 키돋음하는 그 모든것을 바라보는 가슴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푸른 잎새들이 생명을 가진 물건처럼 아바이를 반겨 미소하며 설레는듯했다.

누구도 보는 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땀방울로 조국땅을 갈구어가고있는 로인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순녀의 가슴에 진하디진하게 새겨졌다. 그러나 이직 순녀로서는 그 모든것이 감동에 지나지 않았다

다. 그는 전문가다운 섬세한 눈으로 이 산판에 전문지식이 손을 대야 할 빈구석이 많다는것을 느꼈으나 자신은 원림사업소 로동자가 아니라 연구사라고 생각했다.

순녀는 아무래도 저녁전에 산밑까지 올라오는 자동차편으로 내려가야 했으므로 징검다리 건느듯하지 않을수 없었다. 출장기간을 야박하게 정해가지고 온것이 여간만 섭섭하지 않았다.

어느덧 저녁녘이 되었다. 쫓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해빛이 온 산판에 불그스레한 노을을 던지며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다. 이때 산아래에서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수림의 고요를 헤치고 간간이 들려왔다. 순녀를 찾는 목소리도 가까와졌다. 순녀는 떠나야 했다. 그는 한번 기회를 마련해 다시와서 오늘 못다본것들을 마저 보리라 생각하며 아바이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다가갔다.

《아바이, 오늘 정말 많은걸 배웠어요.》

방그레 웃던 순녀는 급기야 얼굴이 굳어졌다.

수림 저쪽 어딘가에 초점없는 눈길을 박고있는 아바이의 눈에서 물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전 이제 가보려구...》

순녀는 신코승이로 땅바닥을 갑작이며 까닭없이 송구스러워져 말했다.

《가봐야지, 가봐야 하지 않구...》

가래쪽으로 만든 고물통에 일당배를 무드기 님아 두어모금 풀썩풀썩 태우던 로인은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자도 이 산판에 나들이를 왔다가 가는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가보라구, 어서!...》

《아니, 아바이 무슨 노여운 일이라도 혹시...》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이 늙은게 까막눈이 돼서 산중보물속에 살면서두 나라에 보령을 주지 못하니 안이 달아서 하는 소릴세...》

《아바이, 그럼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구 제기하시면...》

《왔다가는 모두 가버리지. 전도문제니 뭐니 하면서... 하긴 이 산꼴이 아늑한 실험실이나 불밝은 아파트에야 비기겠나? 내 이 산속에 사는 까닭이 산이 좋아 그렇기두 하네만 이 땅에 지은 죄가 있어 그러이. 일본놈들때에 글썽 그 목숨이 아까와 산판에서 나무를 마구 찍어냈지. 악귀같은놈들때문에 비단에 수를 놓은 우리 나라 산들이 번대머리가 됐지. 내 평생에 그 죄를 씻기전엔 눈에 흙을 덮을수가 없어서... 이 산에서 삼십년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도 나이구 쉬라는이도 적지 않네만 이 산을 떠나지 못하구있다니. 내 우리 나라 산들이 죄다 두툼한 푸른 옷을 입기전엔 죽지두 않으려네...》

순녀는 가슴이 뭉클하여 어찌지 못하고 서있기

만 했다. 두툼한 못이 박힌 울퉁불퉁한 손으로 아바이가 곰방대를 털 때마다 손마디들이 가락지를 낀듯이 불겨져올랐다. 순녀는 우유티잇 도는 자기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을 재빨리 좁안에 움켰다.

《이 주책없는 늙은것의 말을 섭섭히 생각 말라구. 와서는 모두들 보물산이라구 칭찬도 하구 놀라와는 하면서두 이 보물산에 몸을 잠구어 보물을 지키구 꽃피울 생각들은 안한다니. 모두들 결집에 마실을 나온 사람들이야. 마실을 마치고 밤이 깊으면 이제 자야겠다고 다들 떠나지, 다들. 안타까운 일일세... 내가 좀 젊기만 했어두...》

순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보니 자기 역시 마실군이였다. 손님인 자기는 주인이 차려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인사나 한후 떠나가는것이였다.

순녀는 그대로 떠날수 없었다. 한없이 송고한 랑심앞에서 그의 발걸음은 얼어붙은듯했다.

순녀는 말없이 돌아서 전정가위를 들고 산판으로 향했다. 랑심에 화살이 박힌듯하여 진정할수가 없었다. 자동차는 떠나고 순녀는 남았다. 아바이가 그러지 말라고 등을 떠밀수록 이 산판에 쏟고 싶은 자기의 열정이 더 강렬해지는것을 순녀는 느꼈다.

그날 저녁 아바이는 30여년세월 자기의 짜거운 땀방울과 성실한 노력의 열매로 맺힌 각종 나무의 특성을 기록한 두툼한 책을 여러권 내놓았다. 언제부터 연구기관들에 보내고싶었으나 무식한 늙은게 적은 글이 무슨 보령이 되랴싶어 망설이고있었다면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가지고 가라고 했다

연필로 또박또박 쪼아박은 글발들을 바라보는 순녀는 눈굽이 뜨거워졌다. 획들은 서툴게 그어졌어도 아바이의 뜨거운 입김이 책장마다에서 뿜기는듯했다.

《이름, 보리장구채, 여러해살이풀, 성긴 털이 뽁뽁이 있다. 풀기는 곧추 서고 가지를 치며 높이는 세뽕안팎이다. 잎은 마주 붙고 잎꼭지는 없다. 잎몸은 버들잎모양인데 끝이 뾰족하다. 7~8월에 꽃이 핀다...》

《이름, 백리향, 잎이 지는 작은 떨기나무다. 높이는 반뽕부터 한뽕, 가지를 많이 치고 향기가 있다. 잎몸은...》

순녀는 눈앞이 자꾸만 흐려와 책을 덮고야말았다. 그는 눈물을 책뚜껑에 떨구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바이의 깊숙한 눈길이 순녀를 바라보고있었다. 그 눈길은 불타고있었다.

로인은 마치 자기 일생의 총화를 순녀에게 넘겨 주기라도 하듯 여러 식물을 벗삼아 자식삼아 살아 오며 세월의 눈비속에서 그것들을 죽여본

슬픔과 살려낸 기쁨까지 이야기했다. 그럴 때면 로인의 검스레한 얼굴에 가로세로 늘어진 주름살들을 타고넘으면서 굵은 눈물줄기들이 옷자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그 주름살들이 다린듯 퍼지기도 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바이의 석직한 목소리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처럼 떨리기도 하고 손자를 본 할머니의 기쁨처럼 흥분에 뜨기도 했다.

눈물에 아롱거리는 글자들을 더듬던 순녀는 설명서대신 나무와 잎 모양을 그려놓은곳에 눈길을 멈추었다. 로인은 그옆에 《이름은 모름》이라고 덧쓰기까지 했다. 순녀는 그것이 이미 우리 나라 산림대에서 사멸된것으로 간주되었었고 몇몇 연구자들의 말밥에 오르다가 원종까지 잃었다고 하던 한 경제식물인것을 알았다.

《아바이, 이 나무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이, 나두 뭔지 몰라서 적어만 냈지. 얼마전에 저기 옷팔짜기 숲속에 들어갔다가 얻어냈지. 그 나무때문에 하마트면 호랑이밥이 될번했다니...》

로인은 껄껄 웃었다. .

《내 생각엔 그 나무 목질이 다른것과 달라봐는데 누가 강심을 먹고 달라붙으면 퍼뜨릴수 있을지한데...》

순녀는 목이 베였다. 이름모를 나무 한대를 두고도 제일처럼 원심을 쓰는 로인의 구김살 없는 마음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여직껏 연구사라는 명예의 외피속에 묻혀 조국땅에 뿌리내린 산을 보지 못하고 책에 썩여진 나무만 보아온 자신이 야속스러웠다. 조국에 보탬을 줄 연구에 필요한 땅을 찾은것이 아니라 명예에 가깝고 생활에 편리한 땅만을 골라디디며 살아온 자신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과 이 아바이와 함께 자기의 심장이 하나로 이어지고있는것을 느꼈다. 자기만은 결코 이 땅과 이 숭고한 세계를 버리고 떠날수 없다는 자각이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지식이 아바이의 열정에 합쳐져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히고 아지칠 앞날을 내다보았다.

그 다음날 아침 나무모를 실려 온 자동차편으로 그는 가야 했다. 정작 떠나야 한다니 그 순간이 올라봐 벌써부터 마음조이며 두려워하고있는 자신을 그는 느꼈다.

이른아침 순녀는 마당가에서 피나무껍질로 잘 엮은 바구니에 담겨져있는 이름없는 나무모를 보았다. 그 나무모때문에 밤새 호랑이가 나든다는 골짜기를 다녀왔을 로인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헤아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 나무모를 안가져가도 되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나무모를 가지려 오는 일이 없을것이다. 가지려 오기에 앞서 그는

자기의 량심을 조국이라는 크고 밝은 거울앞에 비추어 보았던것이다.

순녀의 결심을 알길 없는 아바이는 그 자리에 나무모를 심어놓는 그를 서운스레 바라보았다. 순녀는 아바이앞에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그럴라치면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 그 만두었다. 그에겐 보다 좋은 태일이 있는것이다.

멀리 산아래까지 순녀를 배웅하러 따라내려온 아바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모으고모은 심산속의 희귀한 식물표본집과 이제는 보풀이 일고 꺼멓게 때가 오른 기록장을 순녀에게 내밀었다.

순녀는 그것을 아바이가 넘겨주는 성스런 한생의 경주봉처럼 받아안았다. 그는 결코 그 경주봉을 손에서 놓지 않으리라 속다짐했다.

《좋은 세상에 사는 값을 해야 하네.》

잘 가라는 인사말도 없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맺는 아바이의 눈귀엔 다시 잔주름발이 모여들었다. 순녀는 더는 그대로 섰을수 없어 몸을 뒹 돌려 줄달음쳤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무거운것이 아니었다. 그는 벌써 아바이의 더운 심장이 자기의 걸음발을 지켜주는것을 느꼈다. 그는 가슴에 조용히 굳어진채 움직일줄 모르는 결심을 확고히 바라보았을 때 이 조국땅에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섰던것만 같던 어제날의 그 치욕감이 자기의 심장에서 물러나 멀리 달음박질쳐 달아나는 소리를 들었다.

...연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순녀의 얼굴에 구르는 이슬같은것만 아니였더라면 모든것은 전과 같아보였을것이다. 불무지도 초막도 제자리에 있었으며 수림의 정적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연회는 그 이슬같은것이 자기 얼굴에도 굴러내리고있음을 의식하는 순간 전과 다른, 무어라 딱히 짚을수 없는 크나큰 감동의 물결이 자기의 좁은 가슴을 향해 발뼉발뼉 다가서고있는것을 느꼈다. 그는 머지않아 그 물결이 가슴을 짹 채우고도 남으리라것을 알았다. 순녀는 귀밑머리카락을 정히 쓸어넘기면서 굵어졌던 말허리를 이었다.

《연회, 그날부터 나는 학우들이 사랑하던 노래 <불타라 나의 희망 청춘의 열정이여...>를 부르지 않았어. 희망, 청춘, 열정... 그것은 노래속에 있는것이 아니었어, 심장속에 있는것이였어. 나는 청춘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때늦은 아바이에게서 그 열정을 보았어. 그리고 청춘인 내 가슴은 모래불처럼 메말랐다는것도 보았어. 나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환멸을 느꼈어.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가. 여직껏 나도 그 훌륭한 사람들중의 하나라고만 생각하고있었거던. 그러나 나는 오산했어. 그날 저녁 나는 명수동무에게 말했어.

<명수동무, 우리 과학자들은 인민경제적의의를 가지는 연구과제들을 더 많이 해결해야 할거예요. 현실은 우리의 풍부한 지식을 요구하고있어요. 난 우리 두사람의 지식을 아바이것과 합쳐 그 나무모를 기어이 번식시켰으면 해요. 난 그것이 소원이예요.>

나의 말을 마지막까지 참을성있게 듣고난 명수동무는 오히려 소리내여 웃었어.

<참 천진한 정열가요. 순녀동무, 선배들이 우리 만큼 두뇌가 모자라 그것을 도중에서 그만두었겠소? 세상에 우리보다 권위있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것을 동문 전혀 고려에 넣지도 않는구만. 그런 파악도 없는것을 붙들고있다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지날지 모른단말요.>

<조국의 산림자원을 풍부히 가꾸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그것이 20년이 아니라 한생이 걸린다 해도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고 우리까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아요?>

명수동무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어. 달빛에 번들거리는 강물에는 화려한 밤도시가 비끼구 무궤도전자의 가벼운 경적이 노래처럼 들려왔어. 가까이 있는 무지개다리의 아름다운 란간에서는 청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강변으로 퍼져 흐르고 멀리 보이는 화려한 극장의 넓은 문으로 밤구경을 마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었어.

<순녀동무, 물론 동무의 말이 옳소. 그러나 생활은 리론과는 다르오. 나는 동무가 지나치게 자기의 랑만에 매혹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근심되오. 이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을거요.>

그의 심각한 말에 나는 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았어.

그러나 나는 내가 택한 이 길이 성공없이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

<저는 후회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코...>

나의 결심이 것처럼 확고하다는것을 알자 명수동무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어.

우리들은 오래동안 말없이 강변길을 걸기만 하였어. 나는 그에게 할말이 많았지만 그가 굳이 침묵을 지키는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말았어. 묵묵히 걸고있던 그가 먼저 입을 열더구나.

<순녀동무, 나는 대학시절처럼 우리가 함께 탐구의 날들에 이어 조국앞에 떳떳한 이름 석자를 선물로 바치고 자기의 생을 총화할가 하는 꿈을 꾸었소. 그래서 이번 논문도 동무와 함께 기어이 완성하려고 했었소. 그런데... 아...>

그는 머리를 싸쥐었어.

<명수동무, 고마와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활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할 길은 따로 있는가봐요. 전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섭섭하군요.>

웬일인지 조금만 더 있으면 참고참았던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았어. 그러자 명수동무가 무겁게 입을 열더구나.

<다시 말하지만 생활은 리론이 아니요.>

허리를 구부정하고 밤바람에 푸른잎들이 한들대는 강역 백양나무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명수동무의 손엔 금방 역에서 것처럼 기쁘게 받아안았던 나무모 대신 구겨진 모자가 쥐여져있었어.

정작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때에야 명수동무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였는가를 새삼스레 느끼며 나는 놀랐어. 그는 걸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있었어. 그가 없는 내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것인가를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게구나 하고 생각했어. 나는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 <명수동무!>하고 부르고는 손으로 입을 싸쥐고야 말았어. 나는 명수동무와 함께 가고싶었어. 그러나 불려서는 안되었어. 사랑보다 나는 이 땅과 이 땅에 바치고픈 나의 사랑이 더 귀중하였어. 결심을 하고나니 오히려 마음은 평온해졌어. 사람이란 결심하기까지가 괴로운가봐. 나는 몸을 돌리었어. 그러나 한숨을 짓지는 않았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명수동무와 반대편 강둑이 있었어...

그때로부터 얼마후 나는 북행열차에 몸을 실었어.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 농촌마을에서 살고있는 어머니도 역으로 나오시었어.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얼굴에선 나이찬 자식에게 어머니로서 베풀수 있는 마지막 환대마저 마다하고 떠나는 딸에 대한 원망과 불안이 가득했어. 그러나 어머니의 그런 얼굴보다도 명수동무가 보이지 않는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알수 없었어. 기차가 그 누구를 부르듯 세번씩이나 기적을 울리고 서서히 역구내를 빠져 나갈 때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가슴에서 무너져내리는 첫 사랑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배낭에서 책을 꺼내들었어. 그러나 여느때는 것처럼 변함없고 다정한 동무인 책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어.

기차가 다음역에 섰을 때였어. 웬 손님이 내앞에 버티고서는게 아니겠어? 자리를 찾는 길손인가 하고 옆에 있는 빈자리로 옮겨앉으려던 나는 낮익은 쥐색바지와 새끼붕어모양의 구멍이 숭숭한 하얀 여름신발을 눈아래로 보게 되었어. 나에겐 너무나도 다정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었어. 그는 늘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런 차림

으로 나타나곤했었으니까. 그가 명수동무임을 느끼는 순간 나는 눈물이 펄 돌아 머리를 외로 둘리었어.

그가 꼭 이렇게 나를 따라나섰을줄 믿었던것이었어.

<명수동무, 그런걸 전 모르구... 용서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 나는 청춘의 피가 온몸을 불처럼 뜨겁히는것을 느꼈어.

<순녀동무, 나도 함께 가겠소.>

그러나 내가 기다렸던 그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었어. 나는 곧 잘못 생각했다는것을 알았어. 그는 한 역구간을 내내 내 뒤의자에 앉아오면서 나를 설복시킬 방도를 짜냈던거야.

<순녀동무, 가서 후회하게 된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겠지.>

그제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볼수 있었어. 나의 눈에 어렸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물론이지요.>

나의 쌀쌀한 대답이었어.

<그러지 마오. 웅고집은 소용없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 어서 내립시다.>

아, 이런 사람을 내가 것처럼 가슴때우며 기다렸던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것처럼 사랑한 명수동무였던단인가?

나의 가슴에선 싸늘한 얼음장이 내리고있었어.

불과 한발자국앞의 그가 아득한 지평선 한끝에 있듯이 멀게만 느껴졌어. 나는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어. 결국 나는 사람을 잘못보았지. 기차는 떠나고 그는 내렸어. 그러나 나는 전처럼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차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어...>

순녀는 조용히 깊은 숨을 모았다. 그러나 눈에 는 후회의 빛이 없었다.

연희의 마음은 팽팽하게 조인 가야금줄처럼 헝기워졌다. 그는 뛰다 못해 툭 떨어선듯만싶은 자기 심장의 고동을 간신히 가늠하며 귀를 기울였 다.

...순녀가 이 산속으로 온지 세해가 지났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순녀가 연구소에서 신고왔던 뒤축 높은 구두를 실내화로 변화시켰고 여벌 모직 바지들에도 송송한 구멍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수목의 번식은 순녀의 힘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것이었다. 이 소식을 받은 많은 연구사들이 머리를 가로저었고 어느한 가는 그것을 번식시키려다 원종까지 잃었다는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때 순녀는 명수를 생각했다. 어려울 때를 두

고 동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녀는 이내 그 믿음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되 었다. 영수의 회답속에 담긴 몇자의 글발이 너무나 아프게 순녀의 가슴을 찢었던것이다.

《동무보다 더 유능한 실력가들도 하다 못한》, 《아직 책상물림인 우리 경우 시기상조》, 《빨리 학위를 얻을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받으러 올라 올...》

순녀는 실망했다. 그 실망은 자기가 목적인 사업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그 처럼 가깝게만 생각했던 한 인간에 대한 환멸이 가져온 실망이었다. 그는 곧 자기의 미련을 단념했다. 그는 제힘으로 기어이 걸어갈 앞을 내다 보았다. 그 길은 아득하고 멀었다. 발자국을 저거 딛기 어렵게 좁은가 하면 가시덤불이 엉킨 길이 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헤치리라 마음다졌다.

순녀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은 명수가 아니었다. 며칠후 여러 도서관들에서는 한 연구사의 도서신청서를 받게 되었다...

그다음 명수에게서 또 몇장의 편지가 왔다. 그것은 연구소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탁의 편지였다.

그러나 순녀는 회답을 쓸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자신보다 더 귀중한 이 길에서 결코 물러설수 없었다. 그는 명수의 호소가 열렬할수록 명수로부터 더욱더 멀어져가는 자기 심장의 속삭임을 들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는 그 심장의 목소리에 대답을 했다.

(그러문요. 난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훌륭한 실험실들과 아늑한 서재보다도 순녀에게는 이 땅이 소중했다. 명수의 절절한 사랑의 노래보다도 순녀에게는 이 땅에 쏟고싶은 자기 심장의 사랑이 더 소중했다.

그래서 순녀는 행복했다. 순녀는 그 행복을 안겨준 사랑이란 어떤것인가를 여기서 않았다. 땅처럼 훈훈하고 부드럽고 푸근한 사람들속에 싸인 순녀의 생활은 즐거웠다. 남들이 매끈하게 닦은 길로가 아니라 황무지우로 큰 자욱을 내며 가는 그 길이 어려워도 순녀에게는 좋았다.

이 산속엔 온갖 새들의 노래가 있고 그 누구의 입김으로도 흐려본 일 없는 깨끗한 샘물과 사철 푸른 숲이 있었다. 그리고 아늑한 보금자리와 사랑할줄 아는 정든 사람들이 있었다. 모든것이 땀해야 땀수 없고 허물해야 허물수 없는 유기체의 한 부분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바로 며칠전에 있는 일이었다.

드디어 연구해낸 새로운 수목의 번식방법을 실천으로써 검증해야 했다. 그에 필요한 몇가지 기술적문제때문에 순녀는 여러번 바뀌는 봄 가을과

함께 찌꺼운 땀방울이 습배인 《연구일지》를 《을밀대》가 새겨진 팔쪽색 가방에 넣고 산을 내렸다.

순녀가 한 연구소 현관에 들어섰을 때는 거리의 네온등이 불시에 확 켜지는 순간이었다. 눈부신 무리등불빛을 이마우에 얹으며 점수구 피창앞으로 다가서던 순녀는 돋보기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경비원로인과 마주섰다.

순녀가 도시에서 수백리나 떨어진곳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로인은 돋보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양미간을 여덟팔자로 모으며 근심어린 소리로 말했다.

《어 참, 안됐소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려관에서 꼭 쉬시구 래일 만나보셔야겠수다. 오늘은 휴일이 돼서...》

《아니, 휴일이라니요?》

순녀는 땀을 씻으며 창구에서 허리를 폈다. 땀줄기가 등골로 흘러 선드선드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까운곳의 다른 연구소로 갈걸 그랬다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명수동무가 있는곳이었다. 웬일인지 그리로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아 단념했던것이다.

《아바이, 오늘 밤차로 내려가야했는데 누구든 좀 만나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실은 오늘 밤차로 내려갈 걸음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아까 전차안에서 중앙기상대의 일기예보를 듣게 되었다. 래일부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갑자기 서리와 눈이 내릴것으로 예견되니 산간지대들에서는 해당한 준비를 갖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이 저녁으로 해당분야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만나 제기된 일련의 문제들에 방조를 받고 밤급행차로 내려갈 속구구를 미리 했던것이다.

순녀의 이야기들 귀담아들던 로인은 하도 사정이 딱했던지 그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사네 집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락도를 그려주었다.

도시의 퇴근길에 묻혀 아빠트마울에 이른 순녀는 50호실이라고 패쪽을 단 문앞에 이르렀다. 집안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피피했다. 그는 가볍게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파쇠를 채운 문이었다.

이때 아래계단쪽에서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순녀는 얼핏 그쪽에 눈길을 돌렸다.

웬 녀인이 한손에는 통줄임통들을 넣은 구력을 들고 다른 팔에는 어린애를 안고 사뿐사뿐 올라오고있었다. 품에 안은 어린것도 좋다고 엄마의 팔우에서 엉덩방아를 찧는데 애가 입은 하늘색 매미옷에 무늬로 돌힌 금실들이 복도 천정우에 매달린 전등빛에 유난스레 반짝거렸다.

《저 말씀 줍...》

순녀가 채 말끝을 맺기도 전이었다.

아래쪽에서 먼저 《아이구, 이게 누구냐, 영 ?》 하면서 달려왔다. 녀인의 손에서 풀려난 구력에 서 통줄임통들이 데굴데굴 아래로 굴러내렸다.

《아니, 네가 순녀가 아니냐? 왔구나. 끝내 왔어.》

《아니?!》

그제야 순녀도 반색을 했다. 대학때 학부는 달랐어도 동창이였던 홍금이였다.

불이 류별나게 빨강다고 동무들이 《홍금, 능금》 하고 놀려대면 소설책이건 필통뚜껑이건 가리지 않고 집어들고 따라오던 그다. 그가 벌써 《어머니》가 되다니? 순녀는 신기하고 놀라움과 반갑기도 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살색이 희맑은 홍금의 얼굴과 해별에 그슬린 순녀의 구리빛 얼굴이 순간 음영처럼 하나의 대조를 이루었다.

《난 네가 꼭 올줄 알았어...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구...》

수다스레 순녀의 팔을 잡아 50호실쪽으로 이끌던 홍금은 쇠가 잠가있는것을 보고는 다시 그 옆집으로 끄당졌다.

《어서 들어가. 허물이 있니. 이게 우리 집이야! 이제 기다리면 오겠지. 명수동문 이제껏 있었는 데?!》

순녀는 홍금의 팔에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자기 귀를 의심했다.

(명수동무라니?)

홍금은 어린애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는다, 통줄임통들을 걸어들인다 한참 부산을 피웠다. 그 서슬에 어머니의 보호에서 벗어난 애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순녀는 어린애를 안고 가볍게 추어주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럴수록 아이는 허리를 뒤로 젖히고 엇가락처럼 늘어져 투정질을 했다.

《홍금아, 애가 울어, 어찌니?》

순녀가 당황해하자 홍금은 간드러지게 웃었다.

《얼려봐. 뭐, 실습이라구 생각하구... 호호...》

《엔 무슨 말을?》

《에이, 요 새침데기야. 아직도 꼬리를 사리면서?》

홍금의 능청스런 눈빛을 온몸에 받으면서도 순녀는 영문을 몰라 잠자코있었다. 홍금의 나긋나긋한 손에 이끌려 순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홍금의 말에 의하면 손님방이라고 했다. 홍금은 대학때 무용수로 인기있던 그때처럼 잦은 걸음으로 오락가락하며 국화꽃무늬가 돌힌 방석을 살랑살랑 털어 의자우에 깔면서 앉으라고 했다. 잠시후 빨간 도마도를 넘치게 담은 쟁반이 순녀앞에 놓여졌다.

《호호, 어서 들어, 응? 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굉장한 논문감을 준비한다면서? 그러잖아두 명수동문 네가 훌륭한 발견을 했는데 왜 논문쓰는것만은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많더구나.》

순녀는 명수라는 이름에 또다시 의심스러워져 《아니, 넌 무슨 말을 하니?》 하고 되물었다.

《호호, 요 꼭쟁이야!》

홍금은 순녀의 잔등을 가볍게 건드리며 그의 옆에 앉았다.

순녀는 데굴데굴 굴러오는 복을 왜 차버리느냐고 언젠가 꾸념비슷한 편지를 보내왔던 홍금이가 생각났으나 영문을 알수 없었다. 홍금은 그중 크고 먹음직스러워보이는 도마도 한알을 골라들고 은빛 칼로 네쪽으로 만들더니 그우에 눈같은 사랑가루를 듬뿍 뿌렸다. 도마도에서 흘러내린 주홍빛 물이 쟁반에 고이기 시작했다. 홍금은 걸죽한 단물이 줄줄 흐르는 그 한쪽을 떼내어 순녀의 입에 살며시 넣어주고는 자기도 한쪽 물었다.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도마도의 특유한 싱그러움과 함께 순녀의 온몸에 전류처럼 짜릿하니 퍼졌다. 홍금의 말에 의하면 이 아빠트는 연구사들의 주택인데 그는 작년에 상급연구사와 결혼하여 이리로 왔다고 했다. 남편은 지금 큰 학위론문을 준비하고있는데 매우 순진한 사람이며 아이의 뽀머리는 홍금이 자기를 닮았다고 했다. 희망이고 뭐고 자기는 이제 가마뚜쟁운전수가 돼서 하루 세끼 밥이나 짓고 어린애나 기른다고 했다. 한참 설새없이 이야기를 번지던 홍금은 선뜻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가봐야겠어, 명수동무 어머니가 왔는지.》

순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넌 명수동무 어머니라는건 또 뭐니?》

《순녀, 아직도 날 속일래? 호호, 저 눈을 좀 봐, 어디라구... 호호, 그래 넌 명수동물 만나러 오구두 아직 시치미 떼려니. 명수동무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라구.》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명수동무네가 어디 있게 ?》

《어디 있긴, 바로 우리 옆집 50호실에 있지.》

《뭐?!...》

순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녀의 놀라움이 홍금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느껴졌던지 홍금이쪽에서 더 놀라는듯했다.

《아니, 넌 그럼 아무것도 모르니?》

그는 명수네가 며칠전에 이곳으로 이사해왔다고 덧붙였다.

홍금은 정색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순녀, 넌 정말 너무해. 명수동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지 아니? 그 집 어머니까지도 날보구 생

야단이다. 우리 녀자들의 꿈이란 다 한때야. 시집을 가면 그만이지. 녀자들은 정말 시집을 잘 가는게 발전이라고 볼수 있어. 그 산골에 가서 무슨 사서 고생이니?》

《홍금이, 넌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아이참, 넌 아직 스무살때로구나. 허영의 시절은 지나갔어. 그것은 다 돌개바람과 같은것이야. 이 생활은 또 이 생활로서 향기가 있단다. 우리 녀자들이란게 그저 남편들이 잘되면 그만이지 뭐. 영영 처녀로 살수야 없지 않니?》

순녀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 늘 학창때 가깝게만 지내던 홍금이, 이제는 아득히 멀리에서 자기를 보고 웃으며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드는것만 같았다. (순녀야, 여기에 행복이 있단다. 어서 오나라!) 그 손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거기에는 꽃들이 피고 나비가 날고있었다. 그런데 순녀의 눈엔 홍금이가 보이지 않고 그 손길만 보인다. 그는 자기로서도 의심스러워 몸을 일으키며 홍금이 쪽을 바라보았다. 홍금의 해사한 얼굴이 눈앞에서 방글거리고있었다. 순녀는 더 무슨 말을 할수가 없었다. 홍금에게 할 자기의 이야기는 준비되어있지 못했다. 아니, 그런 대답을 일생의 어느 순간엔가 해야 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이제 또 그 대답을 골라서 할 여유도 없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잠재우는 홍금의 얼굴엔 어머니들만이 가질수 있는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홍금이, 이제 난 가봐야겠어.》

《아니, 가다니?》

홍금이라도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온통 도마도 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날밤으로 순녀는 해발 몇천을 헤아린다는 자기의 정든 일터로, 금붕어도 원탁도 없으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자기의 정든 집으로 돌아왔다.

.....

《언니, 야 참, 왜 논문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두...》

연희는 진정에 겨워 순녀의 어깨우에 한팔을 얹었다.

《참, 언니두. 그 연구사가 언니의 일이라면 더 잘 도와주겠는데...》

《글쎄... 물론 그럴거야. 그렇지만 난 그것을 뒤로 미루기로 결심했어. 왜 그것을 미루었는가? 그걸 너한테 한두마디로 설명할수는 없어. 그 대답은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온 생활속에 있다고 할가? 물론 이름이며 명예를 얻는데서 느끼는 행복도 있겠지. 그렇지만 난 참다운 행복은 자기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이 조국땅에 바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화려한 꽃밭을 보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그 꽃밭을 가꾸는데 바친다면 우리 조국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다와 지겠어. 연희, 사랑이란 심장이 하는 일이야.

난 조국땅에 나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심고 싶어. 뜨거운 심장속에서 뿜기는 그런 사랑을 말아야.》

홍분한 순녀는 눈을 가늘게 좁히고 또다시 우등불에서 튕겨난 불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 눈에는 린광같은것이 번쩍이었다. 연희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이름 못할 거대한것이 머리를 쳐들고 밀려오다가 푹 떨어버렸다. 그것은 가슴을 한가득 메우고도 남아 흥벽밖으로 막 쏟아져나오는것 같았다. 연희는 삼시에 가슴이 뿌듯해지고 벽차오르는 그것이 순녀에게서 받은 크나큰 격동때문이라는것을 알았다. 순녀의 불같은 호소가 오빠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겨누어 화살처럼 여겨졌다. 그것은 꿈속에 잠겼던 연희를 세차게 흔들며 깨워놓고 시원스레 머리를 씻어주는것이였다. 연희는 물기가 줄줄 흐르는 그 머리를 툭툭 털고 어텐가 땅속 깊은곳에서 기여나오는것 같은 쾌감과 즐거움을 느꼈다. 그 쾌감을 어떤 결심으로 바꾼 연희의 마음은 금시에 숨처럼 가벼워졌다.

오빠와 나는 무엇이 다르단말인가,

한저울에 올려도 기울것 같지 않았다.

나를 낳아 걸음마를 배워주고 유치원의 미끄럼대와 소년단야영지의 높은 전망대우에서 나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 이 조국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것을 받아안았으며 아무 수고도 들이지 않고 가지기만 했던가. 그런데 나는 이 조국에, 이 고마운 조국에 무엇을 바쳤던가.

연희는 얼굴이 뜨거워났다. 한생을 바쳐 헌신적인 복무를 다한다 해도 모자라는데 아직도 조국앞에 빈손을 내밀고 받으려고만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얼른 그 손을 움츠려 치마뒤로 감추어버렸다. 그제야 연희는 허영의 탑속에, 창문도 나들문도 없는 캄캄한 허영의 탑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무모나 얻으려 나들이길을 다녀서는 종당에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그는 느꼈다.

연희는 이 땅을 자기의 순결한 가슴에 꼭 싸안

아 일으키고싶었다. 성실한 로동과 보석보다 고운 구슬땀으로 이 땅에 사랑을 주고싶었다. 구리빛 얼굴의 순녀처럼...

《연희, 무슨 생각을 해?》

순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울렸다.

연희는 대답을 못했다. 눈에 안개같은것이 가득 끼였다. 어느새 두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곧 자기도 심장을 통채로 바쳐야 할 거대한 사업에 착수하리라는 기쁨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순녀의 집쪽을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휘뿜히 밝아오는 새벽빛에 집은 어슴푸레한 룰팍으로 알릴뿐이었으나 세상에 더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스한것만이 깃든 이 집은 연희의 눈앞에 산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아득한 옛날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으로 되었다는 그런 기이한 지각의 변동같은것이 없이는 결코 이 작고도 큰 집의 대들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것을 연희는 알았다. 연희는 머지 않아 자기도 순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는것을 확신했다.

× ×

그로부터 며칠후 복행하는 렬차의 승강대우에는 두 처녀가 서있었다. 한 처녀의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빛이고 키가 좀 클사한 다른 처녀는 감실감실한 얼굴빛이 다.

《오빠, 이전 들어가보세요!》

아까부터 줄창 역구내에 선 청년을 향해 웃고있던 처녀의 말이다. 그러나 청년은 그의 말은 듣지 못한듯 그옆의 처녀쪽을 바라보며 어줍게 웃었다

《순녀동무, 이번 경험토론회에서 정말 많은것 배웠소. 난 동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소.》

그 말에 감실감실한 얼굴빛의 처녀가 귀밑까지 빨개지며 방그레 웃었다. 그의 미소어린 눈길은 청년이 신은 하얀 여름신발결에 널린 성냥가치들과 끝내 불을 붙이지 못한채 그 청년의 왼손에 들려진대로 있는 러파담배를 바라볼뿐이였다.

렬차가 세번째 기적을 울렸다. 역구내는 갑자기 봄비가 시작했다. 그날따라 류다르게 길손이 많았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속에 두 처녀가 어찌하여 나란히 이 렬차에 몸을 실었는지,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있는 사람은 몇이 안되였다.

옛 속담에 대한 생각

한웅빈

우리 나라에는 도회지소식은 시골에 가서 들으라는 속담이 있다. 어느 옛날엔가 시골을 다녀온 도회지나그네의 어처구니 없이하는 경탄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풍자적인 속담이다. 속담의 생명력이란 대체로 몹시 검질긴것이지만 어떤 속담은 시대와 함께 남아지며 우리 생활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에서 말한 속담은 아직도 퍼그나 낙낙한 여생을 가지고있는듯싶다. 우리는 때때로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을 다니다가 제가 살면서도 모르고있었던 평양의 어느 한 수역에서 있는 비상한 일화를 듣고는 새삼스레 놀래는 일이 종종 있기때문이다. 러행뒤끝이면 때로 《평양소식은 먼 지방에서 더 잘 압데 원 참.》

하는 감탄의 말을 듣곤한다. 하지만 사실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린애의 입에서 뜻밖에 튀어나온 엉뚱한 진실에 부딪쳤을 때와 같은 감탄이다. 또한 과장이 섞인 일부러 지어보이는 해학적인 놀렘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얼마전 동해안을 지나는 열차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한 일이 있다. 한 크지 않은 바다가역에서 할머니와 손자, 더 정확히는 70객의 할머니와 예닐곱살쯤 된 사내애가 올랐다. 그들은 물론 다른 자리가 아닌 내 앞 자리에 앉았다. 그리하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열차여행에서 흔히 하는 식으로 어대까지 가는가, 나는 평양에서 온다는 등의 인사말을 주고받는데 사내애가 평양이라는 말을 듣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두만강하구 독로강하구 어느게 더 세나요?》

《어느게 더 쎈가구?》

두만강과 독로강이 바줄당기기라도 하는듯한 물음이었다. 아마 어느강이 더 큰가 하는 물음을 언어미천이 받아서 더 쎈가고 표현했을것이다.

《거야 두만강이 더 크지.》

《더 크면 더 쎈건가요?》 바로놓으나 거꾸로 놓으나 오이는 오이대로 있기마련이다.

《그럼!》

하고 단언하는데 종잡을수 없는 그녀석의 물음을 할머니가 《통역》 해주었다.

《이녀석이 축구차는 애길거라우.》

《오- 축구!》

그때에야 나는 묻는 뜻을 알아차렸다. 어제 떠나기전에 거리에서 《두만강》 팀과 《독로강》 팀이 대전한다는 소개판을 본것이 기억났다. 경기한다는 소식을 벌써 바다가에 사는 조무래기까지 알고있는데 나는 웃고말았다. 평양소식은 지방에 가서 들으라, 더 잘 알테니!...

그런데 사내애의 물음은 끝난것이 아니였다. 겨우 시작이였다.

《더 세면 이겨야잖아요?》

《거야 이제 경기를 해봐야 알지.》

《독로강이 이겼는데두요?》

《뭐?》

《어제 했어요. 팡팡 차면서...》

《어제? 네가 어떻게 아니?》

《봤지요뭐.》

《네가?》

《예!》

할머니는 우쭐대느라고 훌쩍훌쩍소리가 복잡하게 나는 사내애의 코밀을 닦아주며 말하였다.

《어제저녁 텔레비에서 나왔라우.》

그러고보니 지방에서 평양소식을 잘 아는것이 신비할것 없었다. 웅당한 일이였다. 그러자 차간에는 어제 텔레비존을 본 이야기로 하여 술한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나타났고 국제정세에 박식한 《론평원》들과 평양 어느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다량 생산되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런던에 나타났다. 결국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모르고있던 평양소식을 보충받을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의 그 여대를 가나 그 누구를 만나거나 마찬가지로 일것이다. 수백리 무인지경속의 작은 산간마을에서도 나는 지붕우에 솟아있는 텔레비존 안테나를 발견하곤한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신기한것으로 여겨지던 텔레비존이였다. 국제경기소식을 라디오로 들으며 환성을 올리던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벌써 텔레비존이 아니면 전혀 못보는것으로 알고있다. 신기하게 여기던 우리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사라지기도전에 텔레비존은 벌써 생활에서 필수불가결의 한 요소로 가장 평범한것으로 되어버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존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는 나라의 텔레비존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텔레비존화면은 누구에게나 낮익혀지고 친근해진것이다.

나는 평양의 어느한 영화관에서 어머니의 치마 자락에 말려들어왔음직한 너덧살짜리 어린애가 영화화면을 보고 감탄하던것을 기억한다.

《야- 텔레비 크다!》

어머니는 그에게 텔레비존이 아니라 영화라고 가르쳐주었으나 그 애는 늘쌍 보아온 텔레비존화면과 다름없는걸 영화라고 하는 어머니의 견해에 찬성할수 없는듯 또한번 감탄하였었다.

《정말 크다!》

영화관에 드나들 나이가 못되다보니 태어나서 밤낮 본것이 텔레비존화면일것이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서 텔레비존은 누구에게나 가장 평범한것으로 되어버렸다.

나는 언젠가 대동강텔레비존수상기공장을 찾아가본 일이 있다. 이 공장 조립직장의 노동자들은 거의 전부가 열아홉, 스무살의 단발머리처녀들이 있는데 흐름식조립대앞에 앉아 책상에서 글이라도 쓰듯이 수상기를 조립하고있었다.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듯이 침착하고 재빨리 일하였다. 조립직장장은 손기가 류달리 빠른 한 처녀를 보며 내가 감탄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잘합니다. 학교때엔 최우등생이었지요.》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수상기쯤이야! 하는듯한 어조였다.

나는 텔레비존조립대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텔레비존화면앞에 앉아 웃고있는 사람들이나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습관되어버린데 놀라군한다. 나 자신도 너무나 빨리 습관되어버리고 웅당한것으로 치부해버리는것이 놀랍다! 이렇게 되기가

지에는 얼마나 많은 뜨거운 이야기들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는 텔레비존수상기공장 초급당비서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을 적으려 한다. 그는 공장이 일어서기까지의 로정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오래전에 텔레비존수상기공장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의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였으며 매 단계마다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수십차례의 강력적교시를 주시였다. 당에서는 공장건설에 청년돌격대를 파견해주었고 건설자재를 풀어주어 건설기일을 다그칠수 있게 해주었다.

첫 텔레비존수상기가 나왔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텔레비존수상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이렇게 우리의 텔레비존은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태여났다. 매 수상기마다에는 우리 인민은 한시바삐 세계적인 현대문명의 높은곳에 세워주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텔레비존수상기화면앞에 앉을 때면 나는 렬차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손자, 지방사투리가 심한 길손들을 회상하며 온 나라 그 어데서나 이 화면을 보고있으리라라는것을 생각한다.

도회지소식은 시골에서 먼저 안다는 속담은 이제 조금도 신기하거나 과장이 없는 웅당한 말로 되어버렸다. 아마도 도시소식은 농촌에서도, 깊은 산골에서도 같이 안다고 조그마한 과장기도 없이 말하는것이 옳을것이다...

온 나라가 평양과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하늘을 보며 모든 사변을 한시에 알고 들으며 살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생활이다.

수필

숲을 가꾸는 마음

리의남

나는 숲을 사랑한다. 나는 숲에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경한다.

나는 산판에서 현지생활, 현실체험을 하면서부터 숲을 잘 알게 되었고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

해발 2천여메터의 밀림이라면 누구나 다 험악한 산악, 장엄한 메부리를 련상할것이다. 그러나

천고의 밀림, 수림의 바다는 험준하고 장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백무고원 북쪽에 자리잡고있는 백리평만 해도 그렇다. 골짜기를 따라 메부리 솟고 점차적으로 지세가 높아진 백리평, 그가운데 우뚝 솟은 투구봉은 해발 2,300미터나 되어도 손을 쳐들면 그 메부리를 만질듯싶은데 그것은 역센 산악이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며 황홀하게 빛난다.

투구봉은 멀리서 보면 거룩한 장수가 커다란 투구를 쓰고 굳세게 서있는듯한 모습이지만 이곳에 들어서면 천년이끼 긴 거목들에 드리운 송라,

버섯 냄새가 코를 찌르는 녹록한 숲- 이런 태고연한 자연으로 하여 사람의 마음을 신비스러운 정취에로 이끈다. 백리평의 아침풍경은 또 얼마나 멋이 있는가. 빨간 딸기, 생열귀, 마가목 등 갖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숲, 연록색 잎사귀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는데 그것은 무지개색으로 빛난다. 빨간 구슬처럼 빛나는 이슬, 꽃밭속으로 수월수월 흐르는 맑고 청신한 물, 고운 새들의 청아한 노래소리, 그것은 말그대로 황홀경이다.

그러나 내가 숲을 좋아함은 태고연한 밀림, 아름다운 숲때문만은 아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숲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모른다.

나는 산관사람들을 두고 새롭게 느끼는바가 있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나는 벌목공이라면 산악처럼 역세고 완강하고 투박하며 역척스럽게 일어나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사실 역센 산악, 장엄한 밀림인 이곳 산천의 고유한 기질을 물려받은듯 모든 벌목공들이 담차고 씩씩하고 두려움을 모른다.

그들은 애정이 폭폭 쏟아지는 부드럽고 애교있는 말은 모른다. 보며 통명스러우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라 할가.

백리평에서 이름난 벌목공인 림장수아바이만 해도 그렇다. 그의 꼭 다문 입술엔 언제나 굳은 의지가 어려있고 항시 입이 무겁다. 하나 어찌다 입을 열면 산판을 찌렁찌렁 울리는 박력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의 수염터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년간의 벌목공력사를 말해주듯 뒤덜미에는 주먹같은 썩살이 붙어있고 손바닥에는 장알이 지고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줄줄이 일어섰다.

더우기 그의 찡겨붙은 검은 눈썹이 인상이 안겨온다.

마치 그의 모습은 령험한 장수가 큰 검을 짊고 숲에 불호령을 내려 험악한 밀림을 가뭇없이 휘여잡을듯한 기상이다.

한갑이 멀지 않았으나 기계톱을 놓지 않고 사

나운 밀림을 민첩하게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과연 훌륭하다. 그런 탓인지 사람들은 림아바이를 가리켜 《투구봉의 장수》라고 부른다.

그는 지난해에도 연간계획을 200%로 시원스럽게 해제겼다. 그리하여 지난기간 나는 그의 일소씨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썼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림아바이와 같은 벌목공들을 알고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누구보다도 그들 벌목공들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다.

하나 나는 최근에 와서는 그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리해한것으로 하여 지난기간의 자기를 질책하고있다.

《지칠 줄 모르는 벌목공》, 《이런 벌목공들을 자랑한다》라는 제목의 나의 기사들과 몇편의 단편소설들은 이곳 벌목공들이란 소박하고 근면한 사람, 투박하고 일만 아는 사람이라는 표상밖에 독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했던것이다.

나는 지금 현지체험을 하면서 벌목공들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있는 열정과 희망,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읽고있다.

내가 그들과 같이 한합숙에서 자면서 생활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다. 나는 숲속에서 풍기는 향기롭고 달착지근한 냄새를 가슴속깊이 들이키며 벌목공 림아바이와 함께 산관으로 올랐다. 벌목장에 도착하자 어깨에서 기계톱을 벗어놓은 림아바이는 호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끄집어냈다. 나는 그에게 담배 한대를 권했으나 그는 마다했다.

《그런 〈차렷!〉 담배는 성차지 않데.》

림아바이는 종이를 거의 수첩장만하게 찢어서 잎담배를 한줌이나 두고는 나팔같은 담배를 말았다.

그가 뿜어올리는 담배연기는 숲속으로 구름처럼 퍼져갔다.

담배를 다 태우고난 그는 말없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일에 착수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계톱은 그냥 두고 숲으로 들어가는게 의문스러워 나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해서야 그는 숲속에서 불쑥 빠져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난데없는 물통이 쥐여져있었다.

그 물통이란 마개가 빨강고 통은 새과란것으로서 유치원아이들의것 같은 비닐물통이었다.

나는 점점 더 의아해졌다. 도대체 추운 새벽에 무슨 물부터 마시는것인가. 사실 9월초순이면 이곳 고산지대에서는 양털내의를 생각케 하는것이다. 그런데 찬물을 마실리는 만무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물통에 막걸리라든가 들어있단말인가.

《왜? 나무등걸같은 손에 이런 장난감같은것을 쥔것이 어울리지 않는단말이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림아바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그는 뚜껑에 물을 쭉쭉 쏟아붓더니 나에게 쑥 내밀었다.

《그게 뭐니까?》 나는 점점 더 눈이 커졌다.

《보약이야! 어서 꼭 마시게.》

나는 열결에 그것을 받아마셨다. 차거운 맹물도 아니고 시큼한 막걸리도 아니었다. 달콤한 꿀물이었다.

《꿀물이군요.》 나는 만족해서 말했다.

《그저 꿀물이 아니네. 며칠전에 구새먹은 피나무를 베다가 톱이 안돌아가기에 자세히 보니 산청이 한동이나 있단말이야. 그래서 병원환자들에게 내려보내주고 조금 남겨뒀던걸 이슬에다 탄거네. 우리 숲사람들이 감기 한번 안걸리는게 무엇때문인지 아냐? 이런 산청이 돌려주는 혜택을 받기때문이네. 어서 한고뿌 더 들이키게.》

나는 목구멍이 뜨거워났다. 무뚝뚝해만 보이는 림아바이에게 이런 인정이 있었단말인가.

나의 눈앞에는 지난 여름 한 밀대공에게 《메주》를 먹이던 림아바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벌방지에서 전직되어 온 젊은 밀대공이 첫날 작업에 착수한 날이었다.

림아바이는 그가 깎은 가느다란 도끼자루를 보더니 《그런 아이들 장난감같은것으로 뭘하겠나!》하고 말하고는 숲으로 뺨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팔뚝만한 도끼자루를 깎아서 맞추었다.

사실 도시사람들이 벌목공의 도끼자루를 전보대에 비긴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너무나 요란하게 깎은 도끼자루였다. 그보다도 나는 젊은 밀대공이 알심을 넣어 깎은 성의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림아바이가 너무 매정한것 같았다.

그런때문인지 품을 들어 풀잎에 맺힌 이슬을 털어서 산청을 타가지고 온 림아바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

...이날 점심때였다.

림아바이는 기계톱을 손질하다 말고 노란 단풍이 물든 백리평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이 백리평에는 70여종의 약초가 있는데 그중 절반은 보약으로 쓰는 약초네. 하지만 그것이 많은것은 못돼.》

이렇게 허두를 뻔 그는 기계톱을 놓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나무를 베고 잣나무와 같은 기름나무, 다래나무와 같은 산과일나무를 심겠네. 그리고 그가운데다 오미자, 마가목, 오갈피, 황기, 구기자 등 꽃과 열매가 아름다우면서도 사람의 건강에 좋은 약초들을 심어서 이 백리평을 약초기지, 특수과원으로 꾸리면 얼마나 좋겠나.》

림아바이는 머지 않아 반드시 여기 백리평에 세계적규모의 약초기지, 과원이 생기게 될것이라

고 하면서 늙은이답지 않게 열을 내어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 늙은 《랑만가》의 강의에 훌쩍 반해버리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림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17만정보이상의 섬유제지림과 34만정보이상의 기름나무림을 더 조성할것이다.》

림아바이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말없이 묵묵히 벌목공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일하는것이다.

입이 무겁고 심지어 감때사나와보이기까지 하는 이 림아바이에게 소년다운 량만과 푸른 꿈이 간직되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는 흥분을 누르고 림아바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메부리에는 건축용재, 그밑으로는 기름나무림, 산기슭에는 화초와 각종 약초를 심어기르면 말그대로 보물산이 될거네.》

림아바이는 말을 끊고 눈썹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백리평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뚝뚝하고 과묵한 로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탓인지 아니면 량만적이며 서정적인 고원풍경에 매혹된 탓인지 나의 눈앞에는 벌목공의 소박성과 근면한 노력으로 창조된 거창하고도 아름다운 숲의 화폭이 금시 펼쳐지는듯싶었다.

림아바이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조국의 번영과 나라의 숲에 대한 넓고 심원한 마음으로 하여 나의 코등은 찡해왔다.

《그렇다! 그는 랑만가이며 시인이다!》

나는 이렇게 웨치고싶었다.

그런데 나를 더욱 감동시키는 일은 다음에 있었다.

언제나 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합숙마당을 쓸군하던 림아바이가 한밤중에 었어졌다. 그는 아침식사를 할 때에야 바지가랭이가 후줄근히 젖어가지고 들어서군했다.

《아바이, 어데 가셨됐습니까?》

나는 물었다.

《산판을 돌아보았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며칠동안 반복되였다. 나는 잠을 자지 않고 그의 거동을 주시했다.

그가 뭘하러 가는지 살피던 나는 가마니에 나무모를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림아바이의 뒤를 살그머니 따랐다.

공지에 도착한 림아바이는 달밤을 리용하여 벌목한 뒤자리에 종비나무를 심고있었다. (종비나무

는 삼송보다 3배나 빨리 자라는 나무다.)

나를 발견한 림아바이는 《임자는 옳지 않네.》하고 악의 없이 질책하는 것이었다.

《아바인 너무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혼자 합니까?》 나는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러자 림아바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타이르듯 말했다.

《사실은 이 나무를 가을에 심어서는 살지 않는다고 하기에 시험해보는 거데.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나무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으라고 가르치시었는데 봄에만 심어 가지고야 되겠나.》

그제야 나는 전번날 밤늦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신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고있던 림아바이의 모습을 상기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요, 더구나 나무 심는 일을 맡은 조림작업소가 따로 있는데 자진하여 나무모를 길러서 나무를 심는 아바이의 행동에 감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데 있으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작업소의 모든 로동자들이 떨쳐나서 나무를 심었다.

조국의 숲을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심었다. 이런 사람들이 심은 나무가 살지 않을리가 없는 것이다.

림아바이와 같이 뜨거운 열정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 심은 나무가 풍만하게 자라지 않을 수 있으랴. 실로 벌목공은 나무를 베기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심고 자래우는 사람들이다.

나는 림아바이가 자기 터밭에 감자나 남새를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나무모를 심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현지생활을 하는 과정에 림아바이가 나무를 심고 자래울 뿐 아니라 어린나무 한대라도 못쓰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전 어느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프락포르 운전수가 된 윤동무가 프락포르를 몰고 내려오다가 어린 분비나무 한대를 깔아뭉갠 일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림아바이는 벽력같은 소리를 질

렀다.

《이게 뭐가... 일하는 본세가 이게 뭐가말이야. 틀러먹었네.》

어린 운전수는 얼떨떨해서 있었다.

산판에 온통 나무천지인데 어린 분비나무 한대쯤 깔아뭉갠 것을 가지고 그렇게도 성이 나서 고향을 지르는 림아바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나에게도 어린 운전수에게 하는 그의 욕설이 너무 호된 것 같았다. 어린 운전수는 일을 많이 하자고 나무를 열두대나 끌고 내려오다가 길옆에 선 나무들 깔았던 것이다.

어린 운전수는 《길이 좁은데 방법이 있습니까?》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림아바이의 검은 눈썹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는 성이 독같이 올라서 주먹을 들어 어린 운전수의 머리를 꼭 찌르며 말했다.

《이건 모자결개가 아니야, 쓰라고 낸 머리지. 저쪽 진대나무를 치우면 어린 나무는 깔지 않아도 될게 아닌가. 이너석아!》

그리고는 넘어진 어린 나무를 애기 다루듯 일궈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큰 충격을 느끼며 그의 일손을 도왔다. 이 아바이야말로 온 조국을 안고 사는 애국자가 아닌가. 어찌 그뿐이겠는가.

얼굴은 감때사나와보이면서도 마음은 어질고 순박한 벌목공 김창선동무, 몸집은 호리호리하고 얼굴은 처녀처럼 곱게 생겼어도 일단 일에 들어서면 아름답리 나무를 막대기 다루듯하는 상차공 청년 김규정동무, 몸은 뚱뚱하고 늘어져보여도 숲에 들어서면 날새처럼 동작이 빠른 림도공 량순복동무, 그들모두는 아침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처럼. 바위썸에서 솟구치는 샘물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안고 자기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숲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가꾸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숲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숲의 미래를 위하여, 나라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지향과 념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숲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일하고있기 때문이다.

수필

전변의 나날에

신리섭

당신들중에 혹시 조국의 북쪽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하게 된다면 차창밖으로 웅장하게 일떠선

탑들과 굴뚝, 우람찬 제품탱크들과 공정과 공정 사이를 혈맥처럼 이으며 뻗어간 각종 배관들을

보게 될것이다.

여기가 바로 창조와 비약속에 날이 밝고 해가 저무는 주체시대에 새로 일떠선 대화학공업기지이다.

달리는 렬차의 차창밖으로 저쪽 공장 한끝에서 불길이 너울너울 타오르는 신비로운 굴뚝이 나타날 때면 당신들은 경탄을 금치 못할것이다.

처음보는 사람들이 차창에서 경탄의 눈길을 떼지 못할 때 대화학공업기지 건설자의 한사람인 나는 남모르는 궁지와 자부심 속에 일떠세운 공장을 흐뭇이 바라본다.

나는 금방 기적소리를 울리며 저쪽 산모퉁이로 사라지는 렬차를 바라주었다.

그 렬차의 세번째칸에는 전변의 나날 나의 기억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준 설비조립직장의 젊은 청년 운동무와 숙보원처녀 김동무가 탔는데 그들은 지금 결혼식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길이였다.

새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듯 서쪽하늘가에 노을이 불게 타고르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변의 나날에 맺어졌고 이루어지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꽃피기를 바라면서 물황철나무가 줄지어선 제방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생각은 몇년사이에 이룩된 고향땅의 전변을 두고 깊어만간다.

유년시절, 짬만 있으면 엉덩퀴풀에 발목을 할퀴우며 개구리를 잡으러 뛰어다니던 벌판에 오를은 대화학공업기지가 들어섰으니 이것이야말로 경이적인 전변이 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활기찬 공장정경을 바라보고 섰노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봉화화학공장 2계단공사를 빨리 다그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들끓던 그 격동적인 나날들이 눈앞에 안겨온다.

그 나날이였다. 어느날 불일이 있어 직장사무실에 들렀던 나는 운동무에게 온 전보를 읽게 되었다. 전보는 집에서 온것이였는데 결혼식준비를 다 해냈으니 래일모레까지 도착하라는 내용이었다.

(결혼식이라... 그런데 이 친구가 가겠다고 할가. 전변에처럼 또 미루면 어쩐다?)

운동무의 결혼식을 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걷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탁 친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피득 돌아보니 설계기사 박동무였다. 나는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운동무에게 결혼식전보가 왔는데 못봤는가고 물었다.

《결혼식전보? 그런데 그 동무가 가겠다고 할

가?》

그역시 의문이 실린 눈길로 나를 바라본다.

《전변에도 미루었는데 이번에야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지. 약혼만 해놓고 세월을 보내겠나.》

《하긴 그렇다마는, 그 친구가 요즘 작업능률이 높은 자동식우산골조를 창안하고있다네. 그것만 도입되면 탱크조립을 종전보다 몇배로 앞당길수 있을거네.》

《아니 그게 사실인가?!》

나는 놀람을 금할수 없었다.

《이자 금방 기술협회의회를 하고 오는길이네. 난 운동무가 창안한 도면을 놓고 많은것을 자책했네.》

《자책이라니?》

나는 박기사의 말이 얼른 리해되지 않았다.

운동무란 건설장에 온지 불과 1년이 남짓한 세대군인이였다. 그는 얼마전에 탱크조립을 다그치기 위해 회전식비행기발판을 창안했던것이다.

콩크리트혼합물을 실은 자동차들이 먼지를 말아 울리며 달리는통에 우리는 길옆으로 비켜섰다.

먼지가 걷히자 박기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운동무가 처음 창안한것은 창의고안이라기보다 환상에 불과한것이였네. 현대기술은 환상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지. 나도 그렇구 모두 반대했지. 그런데 황기사가 그를 지지해나섰네. 그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후에야 잘 알게 됐네. 그날밤부터 황기사는 밤 밝히며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더군. 며칠후에 그는 운동무의 창의고안이라고 하면서 회전식비행대발판도면을 제출했네. 누구에게나 그 도면이 황기사가 밤 밝히며 그린 도면이라는것이 명백했지. 그때 난 많은것을 느꼈네. 나는 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로동계급의 충성심에서 싹튼 첫싹을 귀중히 여기고 키워주지 못했는가구말이네.》

박기사는 땀배를 몇모금 거쳐 들이빨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첫 창의고안에서 신심을 얻은 운동무는 두번째 창의고안을 훌륭히 완성하였네. 기발한 착상이야. 하기에 난 2계단공사가 아무리 방대해두 이런 참다운 우리 시대 인간들에 의해 어김없이 제기일안에 끝날거라구 장담하네.》

자네 운동무에게 가지도 말게. 그는 전보를 읽어보지도 않을 사람이네.》

우리들은 탱크장에 거의 이르러 갈라졌다. 나는 운동무를 찾아다니면서 오래도록 박기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데로 2계단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운동무의 고심 어린 탐구의 나날이며 그의 생각에서 새싹을 발견하고 키워줌으로써 훌륭한 창고안명수로 이끌어 준 황기사의 숨은 노력이 눈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장마철이면 개구리울음소리만이 드높던 황량한 벌판에 대화학공업기지가 불과 3~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설 수 있었던 놀라운 전변의 힘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그이의 교시라면 무조건성만을 알고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계단조업을 끝내셨을 때 우리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봉화화학공장 2계단 공사의 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2계단공사를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되는 자재와 로력, 설비들을 원만히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있는 우리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단순한 건설자로 생각해본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 제끼는 척후대의 임무와 영예를 안고 싸우는 것이 우리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다.

가슴후터워지는 생각에 잠겨 서있는데 얼마쯤 떨어진 파라핀공정건설장에서 처녀의 되알진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중기… 기중기를 좀 세워줘요. 글썽 방금 속보를 내다볼이는데 냉큼 들어옮기니…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는 돌격대장의 팔을 붙잡고 자초지종 이야기한다. 방금 《특보》를 정성들여 써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철문에 붙이었다. 처녀가 허리를 펴는 순간 호각소리가 울리더니 그 육중한 철물이 기우뚱거리

며 하늘공중에 날아오른 것이었다.

《하하하… 괜찮소. 특보감이야. 저기- 저동무한테 얼마든지 있지 않소!》

대장은 관식로우를 가리킨다.

돌격대장이 가리키는 곳, 병긱거리는 용접불빛에 모자를 뒤로 젖혀쓰고 용접봉을 지저대는 사람, 그가 바로 내가 찾던 운동무였다.

《아이참!》

처녀는 얼굴을 두손바닥으로 가리우고 대장의 뺨판같은 어깨뒤에 숨는다.

그제야 나는 그 처녀가 운동무의 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부웅- 용접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붉은 유화구로 진하게 쓴 제목이 한눈에 안겨온다.

《밤을 모르는 전사들!》

아스라한 로우에 붙어있는 속보, 병긱거리는 용접불빛에 드러나군하는 힘있는 글발들을 생각깊이 바라보고섰는데 너멍원들이 샅을 메고 들어선다.

또다시 그뒤를 이어 이번에는 불빛에 번쩍이는 악기를 메고 한손에는 꽃다발을 든 기동예술선동대가 전투장에 찾아온다.

밤하늘에 울려퍼지는 격동에 찬 방송원의 목소리, 팡- 팡- 저르릉-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 자동차의 정적소리, 와르릉거리는 콩크리트혼합기소리, 우렁찬 시대의 메아리속에 밤의 정적은 산산이 깨어져 달아난다.

건설장의 여기저기서 수천수억의 불꽃을 날리며 퍼지는 용접불빛, 그 불빛에 자연이 배풀어준 어둠의 장막은 하늘가에서 물러난다.

정녕 얼마나 크나큰 힘과 위대한 전변을 약속해주는 전투장의 밤인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레사로이 흘러가고 레사로이 흘러오는 이 밤을 어찌 단순한 자연의 반복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랴!

오늘은 어제의 창조로 이룩된 전변이 빛을 내고 래일에는 오늘의 창조로 이룩될 혁신과 비약으로 또한 빛날 것이니 잠들줄 모르는 건설장의 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위대한 전변의 힘- 그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무궁한 힘의 원천인 것이다.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전변의 나날을 더듬으며 나는 노을비낀 강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당을 노래한 충성의 시

-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를 읽고 -

김재원

시인의 미음은 시대의 거울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을 따라 3대혁명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로동당시대이다.

그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당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고있는것이다.

이른새벽,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속에 젖어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리맥)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숭엄한것, 가장 신성하고 자애로운것을 확신에 넘쳐 바라보며 환희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이 시는 그 어떤 류다른 생활정황에서 특유한 시적계기를 안고당을 노래한 시가 아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그 불같은 충성심을 생경한 정치적으로론조로써가 아니라 깊은 정서적체험세계를 통해 노래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은 우리의 당적시문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과업이다. 우리 인민의 감정은 《우리 당과 함께》라는 표현을 곧 《우리 수령님과 함께》라는 표현으로 알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라는 말을 곧 《우리 당과 함께》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접수한다.

더우기 온 나라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선 오늘 우리당을 노래한 충성의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가 창작됨으로써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 언제나 우러르면 용암처럼 솟구치는 숭엄한 빛발-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빛발을 찾아보는 시

인의 눈앞에는 참으로 다정다감한 모습들이 정서적인 화폭으로 수없이 펼쳐진다.

당의 새 진군로우에 한생을 빛내여가는 머리 희숙한 로투사의 감격에 젖은 얼굴도 보이고, 그 길우에 첫걸음마를 뻗은 젊은 당원의 긍지높은 도도한 모습도 보이며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얼굴에 그윽히 피는 행복의 미소도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나는 모양도 보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이 땅에 꽃이 피듯이 우리 인민에게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기때문에 참다운 자유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려갈수가 있는것이다.

이처럼, 이 공지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감정이며 이를 노래하는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진실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편의 서정시는 짧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 감정을 직접적인 주정토로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종류인것만큼 어디까지나 형상이 생활의 진실성에 기초하고있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에서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시는 짙막해서 외우기 쉽게 되여야 하며 눈물이 나오도록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여야 한다.

이 시의 모범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마를줄 모르는
깨끗한 마음과 마음들이
높이 받들어올린 당

민족의 수천년 력사우에 받들어올리고
주체의 우리 시대가 떠받든 당

당이어
세기의 영광을 지닌 우리 당이어
그대의 전사로
노을이 피어나는 혁명의 언덕길을
우리 걸어가는
행복의 그 끝은 어디나

이렇게 노래하고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당의 전
사로, 당의 위업을 위해 노을이 피어나는 혁명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행복의 끝을 어찌 다 알수
있을것이라! 이것은 우리 로동당시대에 살며 혁
명하는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감정이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행복과 기쁨이 너무
아름답때 그 끝을 안다고 하는것보다 모른다고
한 감정이 얼마나 더 진실하고 고결하며 행복에
겨운 감정인가. 때문에 서정적주인공-시인에게는
자신의 사소한 움직임, 작은 활동조차도 작게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며 커다란 의의속에 느껴
지게 되는것이다.

날마다 안겨주는
그 작은 하나의 분공도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받드는
빛나는 삶으로 꽃피거니
무조건성은 우리의 심장의 노래

저 높은 철탑우에서
날마다 말없이
나사뭇을 조이는 당원도
이 궁지로 가슴부풀고
한밤중 천리길을 헤쳐가는 전사도
당의 결정 받들고 가기에
힘한 산악을 웃으며 넘으라

당을 노래한 이 시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것
은 당을 노래하면서도 론리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정서와 사색을 밀접히 잘 결합시켜 형상함
으로써 당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
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보여준것이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높

은 권위와 그 위대성이 바로 인민의 슬기를 안고
있기때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면서 그 빛
발 안고 나아가는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민족의 슬기
인민의 예지를 지닌
당중앙
광휘로운 그 빛발로
조선의 장엄한 새벽은 밝아오고
날마다 그 빛발로
누리는 잠을 깨여라

시인의 열렬한 심장이 열어제낀 시대의 창문으
로 내다보이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기약동하면서도 권위있고 존엄있는 우리 당-
한번 나래치면 준령도 발밑에 숙어들고 한번 부
르면 수천만 인민의 심장이 화불이 되어 타오르
며 열정에 끓는 속도전에 바다도 자리를 옮기고
방금 우등불이 타오르던 천막가에 아름다운 노래
인양 락원의 거리들이 솟아오르는 모습-당의 위
업이 영화의 화면처럼 감개무량히 보이는것이다.

시인의 불타는 심장속에 간직된 위대한 당의 모
습은 이처럼 거대한 생활의 숨결을 안고 우리의
가까이에 언제나 함께 있는것이다.

날에날마다
새벽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깨끗해지고 승엄해지는 마음
아, 영원한 향도의 그 빛발
영광스러운 당이 여
삶도 운명도 미래도
인민은 그대에게 바쳤으라

당에 자신의 삶도 운명도 모두 맡기고 당과 함
께 운명을 같이하여 미래로 확신있게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 인민은 물론 당의 품속에서 태어날
수없이 많은 우리 후손들도 이 시를 기쁜 마음으
로 읽게 될것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세기의
끝까지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나갈것이다.

영원히 우리 당과 함께, 우리 당과 함께...

통일된 조선 만세!

김청남

저 아득한 태고로부터 하늘 푸르고 물맑은 강산,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이 분렬의 상처를 가지지 못한채 또 한해를 넘어온다.

백두의 희디흰 눈과도 같이 그 마음 순결하고 동해의 파도와 같이 언제나 정열에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최북단 서수라로부터 제주도의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한낱한시에 동해의 장엄한 해돋이를 맞는 맑은 아침의 나라-조선.

북에서 남으로 하나의 혈맥으로 연연 잇닿은 이 땅에서 우리 겨레, 우리의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두고 슬기로운 기개를 떨치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빛내이며 화목하게 살아왔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온 슬기롭고 정의로운 우리 민족, 우리 겨레.

서른여섯해 긴긴세월 강도 일제의 포악무도한 식민지통치밑에서도 일편단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며 굽힐줄 모르는 신념을 간직하고 싸워온 인민,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마침내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였고 승리의 기쁨속에 해방만세를 불렀다. 강산이 떠나갈듯이 ...

빼앗긴 조국을 찾은 기쁨과 자주독립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는 크나큰 환희로 하여 인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

이처럼 자자손손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사랑하는 조국강토가 남강도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남반부강점으로 허리가 끊겨 두동강이 났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서른여섯해, 인공적인 장벽으로 조국이 분렬된지 서른다섯해, 그 언제까지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참화를 겪어야 하는가.

분렬의 비극으로 서른다섯해, 참으로 세대가 바뀌는 오랜 세월이었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 우리 인민은 분렬이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더구나 생각조차 한적이 없었다.

하나의 혈통으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이란 너무나 크고 가슴 아픈 불행이었다.

분렬의 참화속에 민족이 겪는 가지가지 불행의 년륜을 헤아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열망은 동해의 파도처럼 설레이고있다.

갈라져 서른다섯해, 그 해수만으로 결코 다 헤

아릴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을 안고 자주통일의 한길로 내달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과연 그 누가 막고있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현대의 야만, 남강도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분렬의 참화를 들뜨우고있는 흉악무도한 미제, 수만리 대양을 건너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짓밟고있는 현대식민주의 아성, 낮가죽 두터운 침략자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용납할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다.

우리 인민은 결코 남의 힘을 바라는 무능한 민족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주체의 기치높이 날리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확신성 있게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이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영웅적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해빛아래 오늘 우리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로 힘을 다진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체 인민이 행복을 노래하며 마음껏 웃음꽃을 피우는 《주체의 조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은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을 눈앞에 바라보며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보람있는 창조적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러나 남강도 미제, 파렴치한 침략자 미제가 짓밟고있는 조국의 절반땅 남조선은 인간생지옥으로, 굶이 없는 불모의 땅으로, 미일침략자들의 2중3중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마저 빼앗기고말았다.

돈과 권력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사회, 양풍, 왜풍이 범람하여 민족고유의 문화와 미풍양속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된 썩어빠진 남조선사회, 이것이 미제의 식민지통치, 미제의 강점이 빚어낸 오늘의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차이는 더욱 더 커가고 오랜 역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족의 공통성마저 사라져가고있다.

진정 분렬의 비극이 가져다준 끊어진 혈육의 아픔은 강산에 서려여있고 하늘과 땅에 사무쳐있다. 갈라진 조국의 통일문제는 더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다.

오랜 력사과정을 두고 분렬을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일된 조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할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이거늘 어찌 분렬의 고통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있단말인가!

오늘 우리 민족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괴뢰역적놈들이 집요하게 꾸미고있는 책동대로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느냐, 아니면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하나의 통일조선을 이룩하느냐 하는 엄숙한 갈림길에 서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틀어쥐려는 목적밑에 우리 나라의 분렬상태를 고착시키려고 책동하고있으며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집중배치하고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기만적인 《철군》의 막뒤에서 남조선에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여온 미제는 교활한 시정배 카터놈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철군공약》까지 집어던지고 남조선괴뢰놈들에게 군사《원조》를 대폭 늘이며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더욱더 확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에 미제침략군 무력을 신속히 투입할 흥계를 꾸미며 조선반도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본토에 《신속반응무력》을 두고 조선주변바다에서 활동할 《제3항공모함대》를 창설하며 남조선의 진해항을 미제 7함대기지로 전면시킬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념원을 짓밟는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조국의 절반땅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야망밑에 《철군공약》을 공공연히 집어던지고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카터놈은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상배, 위선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세상에 낱알이 드러내놓았다.

그 무슨 《인권》에 대하여 떠들던 카터야말로 자기의 리익,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짓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파렴치하고 교활하고 너절한놈이다.

미제의 력대 우두머리놈들은 제놈들의 침략적 목적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더러운 야망을 실현하려 했다.

19세기 중엽 《흑인해방》을 부르짖던 링컨놈이 그러했고 제1차세계대전시기 《민족자결》을 고창하던 윌슨놈이 그러했으며 제2차세계대전후 《평화》를 설교하던 케네디와 닉슨, 포드놈이 그러했다.

그러나 분렬의 력사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분렬의 고통이 커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더욱더 가슴불태우는 우리 인민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분렬책동,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낼것이며 민족의 념원, 겨레의 숙원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민족의 념원, 겨레의 숙원, 력사의 거창한 흐름은 막을수도 피할수도 없는것이다.

정의는 승리하고 부정의는 패배한다.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침을 따라 도도히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세인 발구름앞에서 조국의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물러나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 우리 겨레는 100여년에 걸치는 미제의 조선침략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과 남의 장벽을 활짝 열어제낄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강토에 가득찬 통일의 열망, 영광의 그날에로 달리는 민족의 하나같은 의지와 지향, 념원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밤이 깊어갈수록 밝아올 새날이 가까와오듯이 해가 갈수록 민족의 숙원이 이룩될 그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은혜로운 태양이 조국땅 남녘에도 따사로운 햇빛을 뿌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 사랑하는 우리 조국강토는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기쁨속에 파도처럼 설레일것이다. 우리의 온 겨레는 더 많이 건설하고 더 많이 생산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워 천만년 행복을 누려갈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강토,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의 통일 만세!

밝게 웃어라

서농석

1

두 처녀가 내물속에 발을 잠근채 너럭바위우에 앉아있었다. 여름도 다 간 8월의 서늘한 어느날 저녁 숲속을 비집고 흘러드는 노을빛을 가득 실은 내물은 이 산과 이 골짜기가 생겨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아직도 끝맺지 못했는지 골짜기들을 휘어안고 주절주절 덩불속에 기여들어 소곤소곤, 그러다간 아찔한 계곡을 뛰어넘기도 하고 천연 바위를 들이받기도 하며 야단스럽게 흘러내렸다.

내물우에 떨어져 황금치마자락같이 너울거리는 노을은 너럭바위우에도 살며시 기여올라 두 처녀를 포근히 감싸안았다. 하여 두 처녀의 온몸, 걷어 올린 팔과 물에 잠근 두 다리며 곡선을 이룬 부드러운 어깨와 얇은 머리수건밑으로 흘러내린 몇오리 머리칼까지 온통 노을에 물들어있었다. 높아지는 하늘아래 살찐 가슴을 마음껏 열어젖히는 풍만한 계절, 조용한 숲속의 저녁은 두 처녀의 가슴을 더욱다감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한동안 어깨를 기대고 노을이 불타는 숲의 한끝을 취한듯 바라보았다. 이윽고 까만눈이 무척 예쁘고 애되어보이는 처녀가 시름겹게 입을 열었다.

《참... 난 왜 그럴가요. 언니》

《뭐가 말이야?》

얼굴이 등실한 처녀가 강렬한 노을빛에 눈을 쏘프리며 그를 돌아다보았다.

《왜 손님들앞에서 언니처럼 삼삼하지 못하구... 안타까와 죽겠어요. 그러구 언니가 부러워...》

처녀는 무릎을 웅송그려 치마폭에 꼭 감싸안으며 호! 한숨을 내쉬었다.

《애두 참, 처음엔 다 그런 법이란다. 나도 그랬는걸 뭐, 손님들이 한창 들볶을 땐 제정신이 아니지. 이제 얼마 있으면 경험이 생긴단다.》

《그렇가요? 나두 언니처럼 손님들의 사랑을 받을가?》

《호호, 이젠 정말...》

두 처녀는 제 나름의 생각속에서 수집계 웃었다.

금주는 올해 열아홉살의 한창 무르익어가는 과일마냥 청신한 향기와 싱싱한 탄력이 온몸에 넘치는 처녀였다.

그가 아직 이곳 덕동령으로 오기전인 상업학교 시절, 어느 잡지책에선가 읽은 실화는 금주를 아예 매혹시켜버렸다.

사방 어디를 보나 검푸른 물뿐인 망망한 바다, 그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등대불, 거기서 사는 세명의 아이를 찾아 하루도 빠짐없이 파도를 헤쳐가는 처녀선생, 그 나어린 처녀선생의 이야기는 얼마나 금주의 작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던지 이 감성적인 소녀를 온밤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외동딸을 품에서 놓기 아쉬워하는 어머니를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설복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 처녀선생의 실화가 실린 잡지책을 어머니앞에 퍼놓고 《자, 이걸 봐요. 청춘은 바로 이처럼 남모르는 위혼속에서 빛내야 하잖아요.》하고 제법 주먹까지 흔들어대며 열변을 토했다.

그날밤 금주는 폭신한 베개에 불을 고인채 모기장밖으로 내다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세이며 오래 동안 생각했다.

(그럼 나의 청춘을 빛낼곳은 과연 어딘가?)

문득 몇해전에 어머니와 함께 광산에 사는 이모를 찾아가다 들렀던 산간마을의 중간빠스정류소가 생각났다.

그때 오랜 차멀미에 시달렸던 어머니는 그 중간 빠스정류소앞의 작은 상점에서 딸기시음을 사서 마시며 얼마나 그 상점을 두고 칭찬했는가?

(그래, 그런곳이야. 나의 삶이 뿌리내릴곳은...)

금주는 상점에 온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업봉사부문일군들에게 주신 교시를 열심히 학습하면서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해나가려 노력했다.

그는 같이 판매원을 하는 숙영에게서 배우려 애썼다.

숙영은 이 상점에서 판매원을 시작한지 3년째 되는 말하자면 《구대원》이다. 그의 복스럽게 생긴 얼굴은 언제봐야 웃음에 젖어있었다.

그는 이 상점에 들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꼭 같이 웃으며 맞고 웃으며 보낸다.

어떻게 돼서 요구하는 물건을 안겨주지 못할 때에도 그대신 아름다운 웃음을 안겨주는것을 잊지 않는다. 마치도 그에게서 웃음은 태어날 때부

터 가지고 나온듯싶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상점에 들러간 사람이면 덕동상점 판매원 최숙영 하면 잘 몰라도 《인상좋은 동무》 하면 대뜸 《아-그 처녀?》하고 덕동령마루의 중간베스정류소옆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상점의 얼굴 등실한 처녀를 생각하곤한다.

그리고는 그김에 두세마디씩 숙영에 대한 찬사를 꺼붙여하기마련이다. 《삼삼한 처녀》라느니 《인상좋은 판매원》이라느니 하고...

이런 숙영을 볼 때마다 《신대원》인 금주는 《언제쯤이면 나도 숙영언니처럼 저렇게 손님들의 사랑을 받을가?》 하고 내심 부러워하곤하였다.

《아이, 벌써 날이 저무네. 인젠 들어가요. 금주.》

숙영이가 새삼스럽게 해가 졌다는것을 깨달은듯 노을을 털며 일어섰다. 그리고 옆에 놓았던 빨래감을 안으며 금주를 재촉했다.

《먼저 가세요.》

《인츰 들어와.》

하얀 봇나무 두그루가 의좋은 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는곳에 자리잡은 상점을 향해 총총히 사라지는 숙영을 바라보며 금주는 다시 턱을 고였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얼핏 보면 하늘을 썰듯 뚝날썹한 메부리들을 좌우에 수없이 거느린 덕동령증력의 이 직은 상점이 무척 호젓해보인다. 하긴 문덕이나 안주의 개버딩에 버들개지들이 하얗게 피여날 때도 때아닌 눈보라가 해묵은 락엽을 들어일구는 이 덕동령은 산골인 읍에서도 수십리나 떨어진 심심산골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출장길에 아롱아롱 꽃타일을 붙인 이 작은 상점에 들러본 사람이라면 결코 이 상점이 호젓하지도 조용하지도 않다는것을 느낄 수 있을것이다.

동쪽으로는 광산지구, 서쪽으로는 립산마을과 탐사대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읍거리를 갈라주는 이 중간베스정류소옆에 자리잡은 작은 상점은 잠시도 사람이 끊치는 때가 없다.

광산마을을 찾아가는 사진기를 멘 점잖은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계톱을 기관총처럼 돌리면서 젊은 패거리들과 배낭을 지고 끝이 뻗죽한 망치를 든 탐사대원들, 미역보따리를 이고 막내딸의 해산 방조를 오는 늙은이들과 애인을 찾아 필요한 수숙을 해가지고 오는 처녀들,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에 내렸다가는 다시 베스를 갈아타고 자기 목적으로 가곤하였다.

그때마다 그네들은 숲속을 구르는 내물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오는 이 작은 상점에 들러보는것을

잊지 않는다.

방송원이 새날의 방송순서를 들고 마이크앞으로 다가왔을무렵이면 벌써 이 상점에서는 머리칼을 뒤로 꼭 잘라맨 두 처녀가 물초롱을 들고 춤추듯 내가로 달려나온다. 그리고 그네들이 상점 안팎을 알뜰히 닦아내며 마음껏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잠들었던 숲은 취한 눈을 비비며 우수수 깨어난다.

봇나무가지사이로 흘러드는 감빛 아침노을이 금빛창문에 매달려 어리광할 때면 읍에서 들어오는 첫 베스의 경적소리가 산골을 들었다놓고 그 소리에 화답이나 하듯 상점의 넓은 문이 꺾악 열린다.

그다음부터 상점은 한시도 조용할줄 모른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사람들마다 숙영에게 먼저 알은체를 한다.

《안녕하시오.》

《여전하구만.》

《변함없다니까.》

그러면 숙영은 그들에게 함박꽃같은 웃음을 보내며 이렇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오셨군요.》

사람들은 금주가 있는 식료매대도 넘겨다본다.

그리고 또 저저마다 한마디씩 건넨다.

《처음보는 동문데.》

《단발머리야.》

처음에 금주는 어리뻑뻑하였다. 그답에는 약이 올랐다. 왜 이렇게 떠든담. 질서없이... 그런데 단발머리라구? 그러면 어때서?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야참 이렇게 서로 떠들면 되겠어요.》

금주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손님들에게 말하였다.

《허 허 썰썰했는데...》

《저것보게, 감장눈이 성나니까 더 예쁘구만.》

(영터리. 영터리...)

금주의 도톰한 입술이 볼록 나온다.

(에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금주는 뽀로통해서 입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금주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없이 사랑스러워 그런다는걸 알지 못하고있었다. ...

(난 왜 그럴가, 숙영언니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신경질을 낼줄 모르는데... 내겐 아무래도 이런 직업이 맞지 않는가봐.)

금주는 턱을 피였던 손을 바꾸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하얗게 손자리가 났던 턱밑에 빨간 물이 들며 얼얼했다.

무엇인가 발가락을 간지럽힌다. 숨을 딱 죽이고 살며시 내려다보던 금주는 저도모르게 생긋 웃었다.

언제 모였는지 애기손가락만큼씩한 고기새끼들이 오구구 발밑에 모여들어 장난질을 친다. 그것들은 물속에 드리운 금주의 하얗고 죄꼬만 발가락들이 무척 신기한지 보드라운 꼬리로 살짝살짝 다쳐보기도 하고 뽀족한 주둥이로 쿡쿡 찌러보기도 하였다.

금주는 그만 간지러움에 몸을 떨며 발가락을 움츠렸다.

그러자 고기새끼들은 이제 웬 벼락이냐는듯 사방으로 달아나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자기 얼굴이 솟아올랐다. 고기새끼들이 일구어놓은 파문에 흔들리어 얼굴이 턱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눈과 입이 피상하게 이그러지기도 하는 제 얼굴이 우습기도 하고 밍광스럽기도 하였다.

(땡퐁이, 땡퐁이…)

금주는 입술을 삐죽 내밀어보이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흔들흔들 몸을 떨며 자기를 올려다보던 물속의 처녀도 입술을 삐죽 내밀어보였다.

2

그동안 그들이 앉아있던 내가에는 술한 노을이 피었다가 저버렸다.

그것은 금주가 이곳에 처음와서 먼산 벼랑끝에 빨강대 물든 단풍을 보고 산불이 났다고 고향을 치던 지난해 가을이었다.

바로 그 벼랑우에 한무더기의 진달래가 피어난 지금에 와서 숙영에 대한 금주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처음에 금주는 숙영을 자기의 거울처럼 생각했다.

금주에게 있어서 숙영의 모든것은 부러움의 표본이었고 배우의 표본이었다. 지어는 숙영의 웃는 모양이라든가 걸음걸이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숙영을 따라하기 위해 애써도 금주는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게만 느껴졌고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다.

손님들이 왁작 물러들었을 때 숙영은 전표를 손에 든채 매대한쪽에서 누군가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마도 이 상점에 자주 들리곤하는 잘 아는 손님인 모양이었다.

《아니 동무, 빠스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빨리 물건을 줘야 갈게 아니요?》

아까부터 전표를 맡긴채 서있던 상고머리청년이 두번째로 찾았을 때야 숙영이가 돌아섰다.

《호호 미안해요.》

숙영의 그 태연스런 웃음에 금주는 고개를 떨구며 낮을 붉혔다.

(하여튼 재간이라니까, 나같으면 얼굴이 빨개져 찢찢 뻤겠는데… 그런데 난 왜 안될까? 나도 숙영언니처럼 하느라, 했는데… 숙영언니 얼마나 자연스러워.)

하루봉사가 끝난 저녁 두 처녀는 텅빈 상점에 마주앉아 총화를 지었다.

아까부터 무엇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던 금주가 펜대를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으며 열심히 수판을 튕기는 숙영을 쳐다보았다.

《저… 언니.》

《응?》

《나… 한가지 말하랴요?》

《무슨 말?》

숙영은 여전히 자기일에 여념이 없었다.

《성내지 않을래요?》

《애두 참, 어서 말하라니까.》

그제야 숙영은 머리를 들고 금주를 바라보았다.

《언니말이야 꼭 배우갈애…》

《아니 뭐 ? 이애가 정말.》

《호호, 성내지 않겠다구 하구선 뭘… 정말 언니 배우들처럼 웃음을 지어낼줄 알거든요. 어색하지 두 않게.》

그 말에 숙영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하겠니, 직업이 가져다준건데…》

《직업이 가져다주었다구요?》

장난기 어렸던 금주의 눈이 울롱해진다. 무슨 말인지 리해가 안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대해서 나쁠거야 있니, 괜히 쿵이야 팔이야 신경 쓸것도 없이 다 좋게 대하고 웃어주는게 제일이지. 그까짓 값이 드는 일도 아닌데.》

《네?》

금주의 머리가 다시 한번 갸우뚱해졌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옳을까? 옳은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섭섭했다. 무엇인가 배반당한듯 불쾌하고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허전하다.

값이 들지 않다니 진짜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린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구…

순식간에 만들어낼수도 있고 지워버릴수도 있는 그런 웃음을 뭐라고 했더라?

오, 아까 내가 말했지, 옛날 꼭마단인가 하는데 나온다는 어리광대...

어제일이 생각났다.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중에는 이미 다 팔렸거나 미처 상점에 들어오지 않은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숙영은 레의 그 인상좋은 얼굴로
《아이, 한발 늦었군요, 며칠만 기다오세요.》
《걱정마세요. 그때 오면 꼭 드릴테니.》 하고 다짐을 한다.

그때마다 손님들은 《그럼 믿겠수다.》 《꼭 부탁해요.》 하고는 안심한 얼굴로 돌아간다.

광산마을로 떠나는 저녁빠스의 경적소리가 지는 노을속에 감돌아 사라질무렵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돋은 청년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판매원동무.》

《아이 오래간만이군요.》

오가는 말을 보아 그들은 이미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가만, 그런데 거 있지요?》

《아니 거-라니요?》

《거-뭐라더라... 뉴퉁동...》

《호호 누가 장가들게요?》

숙영이가 웃으며 물었다.

《참 동무두, 우리 청년돌격대의 꺾다리 알겠구만?》

《아, 1년전에 약혼을 하고 1년동안 합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말이에요?》

《맞았소, 그 친구 이번에야 드디어 합치게 됐소. 근데 그 동무 어머니가 첫날웃은 뉴퉁이 좋느니라 하고 편지를 해왔다지 않소.》

그들이 주고 받는 말이 우스워 금주는 저도모르게 킁! 하고 웃었다.

《야, 한발 늦었구만요. 아까 얼마 남은걸 손주 장가보낸다고 광산에 사는 할머니가 다 가져갔는데... 저 며칠만 기다오세요. 꼭 구해드릴테니.》

숙영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청년에게 말하였다.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고 갑니다.》

《아이, 녀려 말라니까?》

가벼운 걸음으로 상점을 나가는 청년과 엇바뀌어 화관을 옆에 낀 점잖은 손님이 금주의 식료매대로 걸어들어왔다.

《수고합니다. 담배 한팩만 주시오.》

풍채가 좋은 화가의 손에는 빈 물주리가 들려 있었다.

순간 금주의 가슴이 철렁하였다. .

방금전까지 마지막 팩을 다 팔았던것이다.

《어쩌나...》

《왜 담배가 없소?》

《저... 래일아침에 오면 안되겠어요?》

말해놓고보니 방금전 숙영언니가 청년에게 한 말을 빌려쓴셈으로 되었다.

얼굴이 뜨끈하다. 지금 없는 담배가 래일아침엔 어디서 생길가. 내가 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래일 아침에 오라고 했을가. 래일 정말 오면 어쩌지...

금주는 손님이 자기속을 들여다본것만 같아 얼굴이 새빨개졌다.

《허허 일없소. 나야 이제 갈 사람인데...그럼 수고하시오.》

화가는 사람좋게 웃으며 돌아서 나갔다.

그것이 더 미안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갔으면... 야, 참 숙영언닌 왜 요전날 상품을 실어올때 담배를 조금밖에 안받아왔을가?

그때 상업관리소에서 담배와 같은 장마철에 변질될수 있는 몇가지 상품은 때때로 조금씩 가져가라고 하자 숙영은 다른 생각없이 주는대로 받아왔던것이였다.

그런데 그후 류다른 산골비에 며칠동안 교통이 마비되어 인차 상품을 실어오지 못하였다. 그런데다가 금주는 담배같은것은 장마철에 못쓰게 될수 있으니 될수록 빨리 팔아 처리해치워야 한다는 숙영의 말을 듣고 그대로 콕콕 팔아쳤던것이 다.

(한심두 하지. 정말 멍꽂이야, 숙영언니가 그런다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담배를 콕콕 팔아치웠으니말이야. 다 내 잘못이야. 러행자들이 많이 리용하는 우리 상점 경우에 많이씩 파는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팔구지 않고 공급하는것이 기본이라는걸 내가 왜 생각못했을가.)

유쾌한 저녁 손님들이 밀려든다.

저저마다 숙영을 찾고 금주를 부른다. 경황없이 물건을 내주는 금주의 눈앞엔 빈물주리를 들고 서있던 화가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렸다.

아마 담배를 무척 즐기는 모양인데 먼길을 오느라 넣고온 담배가 다 떨어진 모양이다.

금주는 무슨 죄라도 지은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이제 빠스를 갈아타고 또 멀리 가야 할텐데 《길동무》가 없으니 얼마나 괴로울가.

우리 아버지도 밥은 굶어도 담배는 못끊는다고 하시던데...어쩌나, 어디서 담배를 구할수 없을가? 피뚱 언제나 담배대가 물려있던 령길감시원 아버이가 생각났다.

(그렇지, 아바이에겐 사다둔 담배가 있을거야.)

금주는 더 생각할사이없이 숙영을 찾았다. 그리고 영문을 모르고 쳐다보는 숙영에게 잠깐 매대를 부탁하고 령길 초소막이 있는곳으로 달려갔다.

금주가 《갈매기》 몇박을 얻어들고 정류소로 뛰어왔을 때는 탐사대행빠스가 막 떠나려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주는 다급히 운전사에게 소리치며 빠스에 뛰어올랐다.

빈 물주리를 입에 문채 창가에 앉아 심산의 풍경을 바라보고있던 화가가 놀라게 금주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불러놓고보니 자기가 왜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 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손님들의 시선을 온몸에 무겁게 느끼며 쭈뼛쭈뼛 담배를 내밀었다.

《저...》

금주는 다음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저 입술만 껍 깨물었다.

《아니 그럼 나때문에 이렇게 뛰어왔소?》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일을 할줄 몰라서...》

마치도 잘못을 저지르고 엄격한 선생앞에 선 소녀같다.

《하참, 이렇게 고마울데가 있나. 담배라는거야 상점에 떨어질수도 있는건데 이 늙은게 주책없이 담배걱정을 했더니만 이 처녀가 이렇게 구해까지 가지고왔구만. 정말 안됐소.》

화가는 땀에 뜬 금주의 얼굴을 보며 거듭 미안해 하였다.

그러자 금주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빠스안의 손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정말 기특하워다.》

《어린 동문데 마음은 맘머느리갈구만.》

《글쎄말이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금주는 그 소리에 쫓기듯 빠스에서 내렸다. 얼굴이 화황 달아오르는게 목욕탕에라도 들어갔다 나온것 같다.

금주에겐 사람들의 그 모든 찬사가 다 질책으로 들리었다.

다 그렇지 못하다는게지. 시부모에게 담배 하나 제대로 보장못해주는 그따위 맘머느리가 어디 있담.

하지만 어쩐지 그 《시부모》라는 말은 마음에 들었다.

정말 모든 손님들을 시부모 공대하듯 봉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자면 시부모들의 식성이며 취미까지 머느리들은 다 알아야 하겠지.

금주는 문득 상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들을 쏴아보았다.

담배, 성냥, 당과류...

맞아, 우리 상점에 들리는 손님들은 거의나 먼 길을 오거나 가는 손님들이기때문에 이런것이 제일 필요할거야. 우리 아버지도 출장을 떠나실땐 담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떠나시지. 그런건 여행도중에 떨어질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런것들을 더 많이 실어와야겠어.

야 진짜 맘머느리라면 이런것을 왜 이제야 생각했을까... 애개나? 그런데 내가 똥판지같이 맘머느린 또 뭐야?...

금주는 얼굴이 활짝 붉어져서 가슴에 손을 모 두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쪽 광산지구로 가는 빠스정류소 이깎나무그늘아래서 한 청년이 책을 펼쳐든채 자기를 흘끔 흘끔 쳐다본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싱겁게 흘끔거릴까. 책이나 볼게지.)

금주는 괜히 그 청년에게 입을 삐죽 내밀어보였다.

상점에 들어서니 그새 자기 매대까지 보느라고 바쁘게 돌아가던 숙영이가 금주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언니, 머느리노릇하기도 쉽지 않은가봐요.》

심란해하는 금주의 말에 숙영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니, 너 벌써 그런 생각을 다하니?》

《아이참, 그런게 아니예요.》

금주는 숙영이가 자기 말을 시시하게 생각한것이 억울해서 웬지었다.

그리고 방금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래서말이에요. 우리 상점은 다른 상점과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담배나 당과류 같은 상품을 더 많이 실어와야겠어요.》

그 말에 숙영은 빙그레 웃었다.

《난 또, 무슨 큰 일이나 있었다구. 그거야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상업관리소에서 어련히 다 생각하지 않으리. 우리야 그저 상점에 있는 물건이 나 정성껏 내주면 되는거지.》

《아이참, 그럼 이 덕동령에 상점이 괜히 있겠요. 손님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건데.》

《글쎄 그렇지만 그거야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 않니?》

《누가 뭐 책임을 위해서 일하나요.》

금주는 서운하다는듯 눈을 내리깔며 돌아섰다.

《아니, 저 애가?》

문득 금주는 요즘에 와서 숙영이와 자기사이에 자주 이렇게 미묘한 감정의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느끼었다.

숙영은 여전히 봉사성 높은 처녀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살뜰한 인사와 친절한 대답도 예전 그대로 변함없었다.

하지만 금주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따라배우려고 애쓰던 그 살뜰한 웃음과 친절한 대답도 날이 감에 따라 점점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속에서도 숙영이에 대한 소리가 점점 적어져갔다.

금주는 그것이 자기가 온후부터라는 것을, 그것도 자기와의 대조속에 그렇게 된다는 것만은 알수 없었다.

3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림산사업소 청년돌격대장이라는 그 여드름 많은 청년은 이날아침 숙영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나타난 첫 손님이었다.

《자, 약속대로 왔수다.》

빙글빙글 웃으며 숙영이 앞으로 걸어들어온 그는 모자를 벗어 얼굴을 활활 부치며 말하였다.

빠스를 놓치고 뛰어온 모양인지 그 사람의 두릿 두릿한 얼굴에서는 땀이 철철 흘렀다.

《아니 약속했던 거 아니요?》

영문을 모르고 바라보는 숙영의 어색한 웃음은 줄지에 상대방까지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고쳐놓았다.

《차 이런, 그럼 잊어먹고있는게 아니요? 전번날 내가 부탁한게 있지 않소?》

《아이, 내가 무슨 부탁을 받았더라...》

《아 저 있지 않소. 첫날 색시가 입을...》

《어마나? 뉴퐁치마...》

그제야 생각난듯 숙영은 얼굴을 붉히며 괜히 금주를 돌아다봤다.

《어쩌나, 아직 그 천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니 뭐요?》

숙영의 애매한 대답에 청년돌격대장은 입을 형벌리고 쳐다봤다.

금주도 놀랐다. 아니 그럼 그때 탐사대 처녀에게 장가를 든단? ... 1년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합숙생활을 한다는 애인... 생각났다.

언젠가 숙영에게 뉴퐁치마를 부탁하던 저 여드름 많은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숙영언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쩌면 저

렇게 깜깜 잊어먹고있을수 있을까...

아니 누구를 탓할수 없지. 숙영언니 잊어먹었다 해도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더구나 얼마전에 담배를 싣으러 읍에 갔을 때 왜 물어보지 못했담...

난 그때 그저 숙영언니가 어련히 생각하고있지 않으리 하고 거기 대해서는 말도 안했지.

숙영언니가 주문받았다고 그게 어떻게 숙영언니 혼자에게만 한한 일이란말인가. 야참, 그때 내가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가져왔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걸...

《저... 대신 색깔고운 나이론천이 있는데. 그건 안될가요?》

어떻게 하나 이 순간을 모면해보려는 숙영이었다.

《됐수다. 옷이야 없어서 그러우. 허참, 이거야 말로 동리쳐너 믿고있다가 장가 못간다는격이로구만.》

그 사람은 갔다. 하지만 서운한 얼굴로 나가던 그 사람의 얼굴이 금주의 눈앞에서 자꾸만 어릿거렸다.

《언니, 그 손님이 얼마나 섭섭해할가요.》

금주가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할수 없지, 우리 상점이 백화점은 아니니까.》

숙영은 자기편에서 짜증을 내었다.

《이제부턴 손님들의 부탁을 〈주문대장〉에 적어줬다가 해결해주자요.》

《우리 실정에서야 어디 그렇게 되니? 못해도 보름후에 나가서 새로 상품을 받아오는데 그건 적어줬다 뭘 하겠니. 도리어 더 미안하기만 하지.》

그 말에 금주는 어처구니가 없어 숙영을 뻔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아니 그럼 그전에 가서 상품을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들의 부탁이야 들어줘야 할게 아닌가?

《차라리 약속이나 안했더라면 몰라도...》

《상점일이란 그저 그럴 때도 있단다. 글썄 그 많은 손님들의 부탁을 어떻게 다야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섭섭하게 가는 손님들에게 마음상이라도 좋게 해줘야지.》

《거짓말로요?》

금주는 이렇게 말하고싶었으나 어쩐지 그 말만은 목구멍이 요글요글해서 꿀작 삼켜버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량심없는 거짓말쟁이가 된것 같아 그러지요 뭐.》

그 말에 숙영은 화를 벌컥 내었다.

《애, 제발 너무 자주 그러지 말아. 누군 너만 못해서 그런줄 아니? 나도 판매원 3년에 할 일은 다 해봤다. 그러나 생활은 네가 말하는 책처럼 되지 않는단말이야.》

《네-에?》

금주는 한동안 벌렁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숙영을 바라봤다.

금시에 까만 눈동자가 눈물에 핑 젓는다. 억울하다. 진심이 모욕당한것 같아 분했다. 내가 존경하던 숙영언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나? 그토록 내가 부러워하던 그 웃음이 바로 이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것이었나?

위선과 진심-그것은 결코 타협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이 두 상극은 언제나 꼭 부딪치기 마련이다.

금주는 불시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터쳐놓지 않으면 아니 될 자기의 어린 가슴으로는 더욱 묵새겨낼수 없는것이라는걸 생각하며 길게 숨을 들이그었다.

《야참... 어쩔 그럴수 있어요?》

금주는 자기의 목소리가 마음먹은것보다 너무도 조용히 울린데 대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숙영의 어조에는 딱 짝어 말할수 없는 야릇한 그 무엇이 비껴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금주의 용기를 부추겨주었다.

《언니!... 난 언니의 그런 결웃음은 싫어요.》

이 순간 금주는 기껏 준비했던 말머리들을 다 잃어버리고말았다.

그저 눈물만 쿵 솟아올라 울었다. 돌아서서 오래동안 울었다...

한참 매대에 엮드려 울다보니 텅빈 상점안에는 어느새 어둠이 깃들었는데 아까 그 청년돌격대장의 얼굴이 또 생각났다.

물론 그런 치마저고리가 없다고 해도 처녀는 그보다 몇갑절 더 좋은 옷을 입고 시집을 울것이다. 하지만 자기네의 이름으로 그 옷을 사서 어머니며 신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던 청년돌격대장의 심정은 얼마나 서운할까.

아니, 내가 왜 이러고있담. 어디 가서라도 빨리 뉴통을 구해올 생각은 았구...

서둘러 숙영을 찾았다. 어디 갔는지 매대에도 침실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수 없이 사연을 적은 종이쪽지를 숙영의 매대에 올려놓고 총총히 상점을 나섰다.

하지만 처녀는 여기서 읍까지는 60리가 넘는다는것, 래일아침이면 또다시 손님들을 맞아들여야 한다는것을 생각못하고있었다.

4

금주와 다투고 화김에 상점을 나선 숙영은 잠시 망설이였다.

갑자기 어디 가서 뉴통을 구한단말인가. 이 밤으로 상업관리소까지는 갈수 없는 노릇이였다.

웬일인지 숙영은 자신이 서글퍼졌다.

그래 이 숙영이가 언제한번 사람들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그래도 이날 여직껏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두고 찬사의 말을 보내왔고 자기자신 또한 3년동안 이 산골의 매대를 성실하게 지켜왔다.

(어디 가서라도 뉴통을 구해오자. 그래서 이 숙영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자.)

문득 얼마전에 손수 레장감을 마련한다고 뉴통을 사가던 광산마을 할머니가 생각났다.

(그래 그 할머니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해보자, 아직 쓰지는 았았을테니까.)

숙영은 금주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광산마을로 향했다.

땀에 떠서 찾아온 숙영을 반갑게 맞아들인 할머니는 그가 찾아온 사연을 듣자 감동된 얼굴로 혀를 찼다.

《아니, 그래서 이 밤중에 찾아왔단말인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착한 판매원이 다 있을고!》

그 말에 숙영은 얼굴이 불그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큰 일 났구만. 우리 손주며느리 될 체네가 가까운데 있길래 아예 옷을 다 만들어놨으니...》

《네?》

순간 숙영은 온몸에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혹시 그 색시 몸기장이 어떤지 이 치마저고리는 안맞을가?》

할머니가 연신 딱해하며 장농 밑창에서 꽃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할수 없지요. 내 인차 가져다드릴테니 이거라도 주세요.》

숙영은 한숨을 내쉬며 치마저고리를 싸들고 일어섰다.

떠날 때는 몰랐는데 하늘은 별빛 하나 남겨놓지 았고 흐렸다.

밤마다 것처럼 흔하던 반디불마저 어디 숨어버렸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금시 비라도 내리려는가싶다.

다만 광산마을쪽에서 쿵쿵 쿵쿵 가락맞게 울려오는 압축기소리만 점점 멀어져가는데 이 밤따

라 그 소리마저 숙영의 발걸음을 돌뿌리와 흙타
기에 자꾸만 결체하게 했다.

상점으로 돌아오는 숙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청년돌격대의 청년과 결혼한다는 그 처녀의 키
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 옷이 맞겠는지 안맞겠
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괜히 그 청년에게 창피라도 당할게 아닌가. 정
말 처녀의 키가 커서 옷이 작던가 아니면 지내
크던가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도 성의만은 알아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상점에 돌아오니 이번엔 금
주가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매대에 얹드려 우는걸 보고 떠났는데 아
직도 그러고있지 않는가 하여 침실로 쓰는 뒤방
에 들어가보니 거기도 없다.

그제야 숙영은 자기 매대우에 써놓고간 금주의
편지를 발견하였다.

다급히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숙영은 그만 아연
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아니, 애가 거길 어디라구...?》

어두운 창밖에서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
지 굵어진 비방울이 쭈룩쭈룩 소리를 내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도 훨씬 넘었다.

이따금 컴컴한 숲속에서 쇠! 하는 바람소리가
울려나올 때마다 차거운 비방울이 유리창에 휘뿌
러지곤하였다.

한동안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망설이던
숙영은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고 심한 허기증을
느꼈었다.

그제서야 숙영은 자기가 아직 저녁전이라는걸
깨달았다.

그러나 역시 저녁을 굶은 채 그 험한 60리 방
길을 홀로 타박타박 걷고있을 금주를 생각하니
저녁먹고픈 생각도 없어 텅 빈 매대에 턱을 고이
고 앉았다.

문득 숙영은 이 상점이 이상할 정도로 썰렁해
졌음을 느꼈다.

그것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비바람소리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럼 무엇이 발랄한 생기와 웃음이 넘쳐나던
이 오붓한 상점을 이처럼 쓸쓸하게 만들어놓았는
가?

불현듯 숙영은 지금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 응당히 울려나와야 할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 안타까움에 젖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 웃음과 변성기를 채
넘기지 못한 짹짹한 노래소리와 번덕스러운 눈물

이 이 상점을 그토록 밝게 해주었던말인가. 창밖
에서는 여전히 비가 쭈룩쭈룩 내린다.

너무도 주책이 없는 산골비다.

(이 애가 왜 아직 안올가? 무슨 일이 생긴게나
아닐가?)

비방울이 굴러내리는 창문을 내다보는 숙영의
눈앞엔 금주의 비에 젖은 단발머리가 얼른거렸
다.

(참 말썽이라니까. 괜히 사서 고생을 하며...)

숙영은 이 밤에 금주가 돌아오지 못할줄 알면
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기다려지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 시각 금주는 덕동령 60리길을 비속에서 걸
어오고있었다.

상업관리소 소장을 비롯한 그곳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를 태워보내주겠다는걸 집에 가서 자고
래일아침 떠나겠다고 슬쩍 거짓말을 하고 나선
금주다.

하지만 정작 떠나자고 길에 나서니 갈길이 아
득하다. 그것도 탐사대원들이 절실히 요구하던
몇가지 상품을 한보따리 꾸쳐 이기까지 하고 걸
자니 조련치 않다. 깊은 밤이라 다니는 차들도
보이지 않고 무시무시한 어둠만이 산촌의 한적한
길을 굵이마다 확 막아버렸다.

게다가 을씨년스럽게 비까지 내린다.

어떻게 하나? 래일새벽까지 빠스를 기다릴수는
없고... 괜히 아까 자동차를 내주겠다고 할 때
모른체하고 타고올걸, 아니 무슨 소릴, 나 한사람
때문에 그 귀중한 휘발유를 없애며 빈차운행을
할가.

어디선가 우-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선
뜩한 비바람이 금주의 치마자락을 펄럭 잡아흔든
다.

금시 시꺼먼 숲속에서 털을 곤두세운 사나운
짐승이 비물에 젖은 대가리를 흔들며 달려들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금주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다보았
다.

멀지 않는곳에 뻥히 바라보이는 읍거리의 불밝
은 2층아파트 꽃무늬벽의 아늑한 방안이 떠오른
다.

늦도록 재봉기앞에 앉아있다가 문소리에 일어
나는 어머니의 놀란 얼굴과 숙제장에 이마를 박
고 잠들었던 동생이 눈을 비비며 품에 안기는 모
습도 보였다.

《금주 왔나?》

옷방에서 울리는 잠든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기
침소리!

발걸음이 떠진다.

한번 뒤를 돌아다보고는 한걸음 옮기고 한걸음 옮기고는 또 뒤를 돌아보고 순간 길바닥에 숨어 있던 심술궂은 돌맹이가 금주의 발끝을 들이받으며 신발을 채가지고 달아났다.

번쩍 정신이 든 금주는 어둠속을 더듬어 벗겨진 신발을 찾아 신으며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이 밤에 꼭 가야 해, 지금쯤 숙영언니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있을가? 아니 기다리지 않을거야, 아니 아니, 숙영언니 기다려... 나때문에 저녁도 못먹고 매대에 앉아있을거야, 속으로는 요맹꽂이를 욕하면서말이야.

어쨌든 빨리 가야했는데, 참 광산치녀에게 장가든다는 그 청년과 돌격대장은 얼마나 속이 탈가. 처녀는 또 어쨌구...

이윽고 결심한 금주는 뉴통치마저고리감이 든 파란 비닐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힘있게 발걸음을 떼었다.

앞에는 비 내리는 산길 60리도중에 자동차라도 만나면 좋으련만... 바람에 자주 펄럭거리는 비옷은 쓰나마나다.

십리도 못걸었는데 통통한 발등을 도려낸 하얀 비닐편리화속에서는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고 비에 젖어 주름살이 퍼진 치마가 철썩철썩 무릎에 감겨 돈다.

자꾸만 바람에 벗겨지는 고깔이 시끄러워 아예 뒤로 훌쩍 젖혀놓았더니 이번엔 차거운 비물이 목이며 가슴으로 주책없이 흘러들어 쏘다.

(소장아버지두 참, 오늘밤엔 왜 날보고 새빠지게 금주동무라 했을가. 엇그제까지 막내가 막내가 하더니...)

금주는 입술에 간지럽게 매달리는 비물을 푸! 불어버리며 방긋 웃었다.

아닌밤중에 뛰어들어 뉴통천을 내놓으라 했을때 꿈쩍 놀라 심각히 바라보던 상업관리소장아버지의 우습광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

뽀! 뽀! 별안간 굵인돌이가 확 밝아지며 울리는 경적소리에 금주는 깜짝 놀라 길옆으로 튕겨났다.

그러면서 어망결에 손을 들며 소리쳤다.

《좀 타자요.》

칙! 처녀의 고함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한밤중 교통질서에 영 무관심한 이 뜻대기처녀를 혼뜨끔 내려는지 하여튼 자동차는 멎었다.

《뭐요?》

《좀 타자요.》

《어디까지 가오?》

《저, 덕동령상점...》

《이 동무가? 제 정신인지 모르겠군.》

운전칸에 커놓은 환한 실내등을 통해보이는 코끝에 기름칠을 한 나어린 운전사는 어이가 없다는듯 눈을 흘기며 문을 꽁 닫아버렸다.

아마도 이 덕동령을 오르내리면서 금주를 알아 못보는걸로 보아 어느 사업소에 갓 배치되어온 애송이 운전사인 모양이었다.

(피, 눈은 왜 흘겨. 코끝이나 좀 씻고 다닐게지.)

흙탕물을 튕기며 어둠속으로 달아나는 자동차 뒤꽂무니의 빨간 불을 보며 코등을 찡긋해보이던 금주는 그제야 자기가 열결에 마주오는 차를 세웠었다는것을 깨닫고 허구프게 웃었다.

(에, 그까짓 자동차, 내 발로 걸어가는게 낫지.)

뽀뽀! 이번에는 뒤에서 올린다. 손을 들새도 없이 획 지나가버린 자동차는 저쯤 앞에서 불을 매단 꽂무니를 들썩하며 떼어섰다.

《좀 타자요.》

《어디 가는 동무요?》

《저 ...》

《아니, 이게 덕동령상점에 있는 동무가 아니요?》

《어마나, 돌격대장동무?》

운전칸 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은 뜻밖에도 아까 낮에 왔던 그 림산사업소 청년돌격대장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를 보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 대원이 잔치를 한다면 어딜 돌아다닐가. 혹시 이걸 구하러 갔던 길이 아닐가?

《아니 왜 그러고 섰는거요. 훌쩍 젖어가지구선. 자, 어서 올라타시오.》

차가 다시 움직였을때 청년돌격대장이 물었다.

《난 웬 처녀가 했구만. 그런데 이밤에 어떻게 된 일어요?》

《괜히 그저... 음에 좀 나왔다가 늦어졌어요.》

금주는 비물이 떨어지는 비옷을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발밑에 뭉그려놓으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동안 망설이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낮엔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 왜요?》

《이것때문에...》

금주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가슴에 안고있던 비닐보자기를 내밀었다.

《아니, 그게 뭐요?》

운전사 청년도 호기심이 나서 돌격대장이 받아

든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저, 그거... 아이참.》

그리고 또 귀밀을 살짝 불렀다.

《아니, 그럼 이게 뉴통이 아니요?》

돌격대장은 얼굴에 놀란 표정을 가득 지으며 금주를 쳐다보았다.

《색깔이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색깔이야 무슨 관계있소. 하여튼 그놈의 뉴통이라는거면 됐지. 가만 그러고보니 동무가 이것 때문에 우정 이 밤길을 떠났구만.》

환성을 올리던 돌격대장이 문득 비맞은 병아리처럼 볼품없이 된 금주를 바라보며 미안스럽게 말하였다.

《아니, 아니예요. 전 다른 일로 왔다가 숙영언니가 부탁하기에...》

금주는 그 뒤일을 더 캐여물을까봐 겁이 났다.

그러거나말거나 돌격대장은 노상 병글거리는 얼굴로 장가드는 사람이 자기네 돌격대의 이름난 혁신자라는것, 그로 말하면 광산 너기사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도 사람들을 놀래우는 큰 일을 해놓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한 피짜배기 애인들이라는것, 그런데 얼마전에 광산처녀는 자동버럭운반기를 창안해서 신문에 사진이 대문짝같이 났다는것이고 돌격대청년은 새로운 나무베기방법을 연구해서 산판을 들썩 들었다났다는것이며 그래서 이번에 약속대로 살림을 차리는데 부모들이 준비하는것하구는 상관없이 자기네 청년돌격대의 명의로 첫날 색시옷부터 시작해서 살림도구 한조를 그끈하게 따로 장만한다는것 등 무슨 말인가 많이 했는데 금주는 다만 그렇게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해울뿐이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인가! 저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사람의 가슴에 이 처럼 뜨거운 진심이 깃들어있다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가슴속에 말없이 간직된 인간의 뜨거운 것은 이처럼 소문없이 조용히 피어나는것이고 오래도록 잊지 않게 진한 향기를 풍기는것이 아닌가!

금주는 저도모르게 눈곱이 뜨거워져서 옆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참, 시부모들이 이렇게 기뻐할 때 말머느리 마음도 이렇겠지, 그런데 숙영언니...)

낮에 있는 일들이 되살아나 마음이 언짢아졌다.

아까는 정말 내가 당돌했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지만, 이제라도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아까는 다 말뭏했지만 이제 가서는 꼭 말할테야...

금주는 새끼손가락으로 뽀얗진 유리창에 자기 도 알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우린 정말 배우가 아니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극장의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부모>들이예요.

때문에 우리의 웃음은 얼굴에 피는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피어야 해요.

심장속 깊은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밝고 깨끗한 웃음으로...》

5

하늘이 휘뽀하게 밝아올무렵, 그들이 탄 자동차가 정류소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있던 숙영이가 우산과 비옷을 들고 막 상점문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언니!》

숙영을 알아본 금주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금주는 숙영이가 들고있는 자기의 파란 비닐비옷을 보자 웬일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언니두 참, 찾아나오긴...!》

《너 정신있니? 저기가 어디라구...》

숙영은 반가움을 애써 감추며 질책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이때 보따리를 한손에 부둥켜안고 차에서 내린 돌격대장이 숙영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거 정말 뭐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글썽 지나가는 말로 비친 하모니카까지 가져 왔구만. 우리 동무들이 환성을 올릴게요.》라고 법석 고아대며 돌격대장이 어서 전표를 떼라고 보따리를 풀었다.

스무나문개의 하모니카, 새로운 형의 라이타, 위생향수병들이 언뜻 눈에 안겨들었다. 위생향수병을 보던 숙영은 언젠가 한 탐사대원이 산에서 깔따귀를 막는데 위생향수가 좋은데 - 하며 구해달라고 하던 말을 상기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금주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소중히 귀담아 잊지 않고있을것이다.

숙영은 그대로 서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이처럼 어색하고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보이기는 처음이었다.

사방이 어둑어둑한게 다행이었다.

청년돌격대장은 한참동안이나 너스레를 피우다 떠나갔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들을 결혼식에 초대하는걸 잊지 않았다.

한밤을 물고 늘어졌던 어둠이 한겹 두겹 벗겨지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숲속에서 풍겨오는 선득한 공기가 몸을 으쓱하게 한다.

동쪽 산봉우리에 걸터앉았던 어둠이 자기의 찢겨진 보자기를 걷어싸자 지난밤의 흔적을 씻어 내려는듯 안개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길은 안개속에서 거창한 숲이 불그레해진 자기의 등허리를 슬며시 내어밀기 시작했다.

금주와 같이 정류소에서 상점으로 들어오는 숙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꾸만 자기의 두손을 잡고 고마와하던 돌격대장의 얼굴이 떠올라 온몸이 화끈거렸다.

옆에서 금주가 무슨 말을 한다. 그리고 가르르 웃어댄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무엇이 그리도 기뻐 저렇게 좋아할까...

개울가 언덕에 피어난 한무더기의 산나리가 눈에 띄운다.

해빛이 비치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노란 벌 한 마리가 비물에 젖은 야들야들한 꽃잎사귀에 살짝 내려앉는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듯 알락달락한 나비가 벌주위를 팔랑거리며 날아든다.

벌하러 저렇게 날아들까. 밤새 비바람에 씻겨온 꽃에 무슨 꿀이 있겠대구 저렇게 승벽내기로 날아들까

문득 숙영은 어제저녁 금주가 하던 《향기 없는 웃음》이란 말이 생각났다.

향기 없는 꽃-벌과 나비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날아드는게 아니라 그 꽃이 풍기는 향기에 취해서 날아든다.

벌과 나비를 부르는 향기-그것은 결발린 색깔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화분속에 있는것이 아닐까?

물론 꽃중에는 아무런 향기도 없이 화려하고 요염한 색깔로 벌을 부르는 그런 꽃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허울좋은 꽃들을 두번다시 벌들은 찾지 않는다.

금주가 뭐라고 하며 또 웃는것 같다.

금주의 웃음속에서 숙영은 팽팽하게 자신을 반성해봤다.

내가 언제 한번 금주와 같이 손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와 해본적이 있는가? 나는 그저 상점에 있는 물건이나 집어서 내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한번 들렀다 떠나버리면 단데 될수록 그

순간만 좋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어제밤 금주가 그 먼 밤길을 걸어올 때도 나는 진심으로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해서 남이 만들어놓은 옷을 가져왔고 량심이 찢리면서도 성의만은 알아주리라 자신을 위안했지.

상냥한 인사, 상냥한 대답, 상냥한 웃음- 이렇다면 봉사일군의 친절이라고 생각했고 품안들인 그 《친절》의 덕으로 한때는 《봉사성 높은 처녀》라는 말도 들었지.

《언니 배우야 배우.》

심장을 확 찌르는 금주의 말이 숙영의 반성에 답을 내리듯 울려왔다.

(맞았어, 금주 난 지금껏 배우였어. 벌을 부르는 향기가 꽃의 빛갈에 있는것이 아닌것처럼 봉사 일군의 웃음이란 입술에서 솟아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는 몰랐구나...)

두 처녀가 물초롱을 옆에 놓고 너럭바위우에 앉아있었다.

흙썩 목욕을 하고난 숲속의 대기는 더없이 청신하고 조개진 구름사이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해빛은 더더욱 쨍쨍한 나무잎에 맺힌 구슬방울을 떨구며 불어오는 미풍은 두 처녀의 비에 젖은 머리칼들을 가볍게 들추어놓는다.

《언니 날 욕할테지?》

《아니...》

《거짓뿌리.》

《애두참, 제가 날 욕하면서...》

벌안간 금주는 숙영의 허리를 끌어안고 불을 비비며 속삭였다.

《난... 언니가 좋아.》

《호호 어리광쟁이 같은거...》

그들은 이미 더 다른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청신하게 씻겨진 대기속에서 모든것을 다 이해하였고 따스한 해빛을 받아안으며 해면처럼 부드러운것이 었다.

구름장이 활 열려지며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비꼈다.

《아이 저 무지개!》

두 처녀는 즐거운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서로 손을 꼭 잡으며 탄성을 질렀다.

호화로운 아침 무지개의 한끝이 밝게 웃고있는 처녀들의 어깨우에 살며시 내려앉고있었다.